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

여호수아

기독지혜사

성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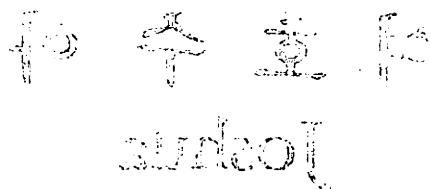
BIBLE RESEARCH GROUP

여 호 수 아

Joshua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묶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1:8)

לֹא יִמּוֹשׁ סְפַר הַתּוֹרָה הַזֶּה מִפִּיךְ וְהַנִּיחָת בְּזַהֲמָם
וְלֹא תַּהֲלֵל לְמַעַן תַּשְׁמַר לְעַשֹּׂת כָּל־הַקְּרוּב בְּזַהֲמָם
אוֹתָצְלִיחָ אֶת־דִּרְכֶךָ וְאוֹתָשְׁפִּיל :



여호수아 차례

역사서 서론	〈12제〉	11
여호수아 서론	〈14제〉	15
제 1 장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14제〉	21
제 2 장 정탐군을 대접하는 기생 라합	〈19제〉	26
제 3 장 요단 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14제〉	32
제 4 장 요단 강을 건너 후에 기념비를 세우다	〈14제〉	37
제 5 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키다	〈18제〉	42
제 6 장 여리고 성의 함락	〈19제〉	48
제 7 장 아간의 범죄와 아이 성 쌌움의 패배	〈20제〉	54
제 8 장 이스라엘의 아이 성 점령	〈20제〉	60
제 9 장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연약을 맺다	〈15제〉	66
제 10 장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다	〈18제〉	71
제 11 장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다	〈13제〉	78
제 12 장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서편(東西便)의 왕들	〈12제〉	83

제 13 장 미정복지(未征服地)의 범위와 요단 동편의 땅 분배	〈18제〉	88
제 14 장 갈렙이 기업을 요구하다	〈12제〉	94
제 15 장 유다·지파의 기업	〈11제〉	98
제 16 장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11제〉	107
제 17 장 브낫세·지파의 기업	〈15제〉	110
제 18 장 베냐민 지파의 기업	〈11제〉	115
제 19 장 여섯 지파가 얻은 기업	〈14제〉	120
제 20 장 도피성을 선정하다	〈9제〉	131
제 21 장 레위 지파가 얻은 48성읍들	〈14제〉	134
제 22 장 제단을 둘러싼 논쟁	〈20제〉	140
제 23 장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교훈	〈11제〉	148
제 24 장 여호수아의 죽음	〈18제〉	152

여호수아 특별 자료 차례

여호수아 서론 〈지도 자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20
------------------------------	----

제 1 장	〈화보 자료〉 요단 강	25
제 2 장	〈화보 자료〉 기생 라합과 도망치는 두 정탐꾼	31
제 3 장	〈화보 자료〉 언약궤	36
제 4 장	〈화보 자료〉 돌기둥	41
제 5 장	〈화보 자료〉 할례 관습	47
제 6 장	〈화보 자료〉 양각(羊角) 나팔을 부는 제사장	53
제 7 장	〈화보 자료〉 처형당하는 아간	59
제 8 장	〈본장의 요절〉	65
제 9 장	〈지도 자료〉 기브온과 인근의 성읍들	70
제 10 장	〈본장의 요절〉	77
제 11 장	〈본장의 요절〉	82
제 12 장	〈화보 자료〉 죽임당하는 가나안 왕들	87
제 13 장	〈연구 자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언약과의 관계	93
제 15 장	〈연구 자료〉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106
제 18 장	〈본장의 요절〉	119
제 21 장	〈본장의 요절〉	139
제 22 장	〈연구 자료〉 증거(證據)	147
제 24 장	〈지도 자료〉 도파성	158

역사서 서론

1. ◎ 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들이 역사서(歷史書)에 해당하는가?

- Ⓐ (1) 모세·오경(五經) 다음으로 나오는 구약 성경의 두번째 부분을 일반적으로 역사서라 부른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이 순서는 한글 개역 성경의 목차를 따른다).
- (2)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시기에서부터 포로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장구(長久)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 (3) 즉 이 기간 안에는 가나안 정복기,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의 재건 시대 등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흥망 성쇠(興亡盛衰)에 관한 모든 역사가 들어 있다.
- (4)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연대가 B.C. 1406-430년 사이의 기간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2. ◎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 Ⓐ (1) 히브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 (2) 즉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는 전기 예언서라 하여 히브리 성경의 두번째 부분인 예언서에 속해 있고 역대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다니엘서는 후기 역사서라 하여 히브리 성경의 세번째 부분인 성문서(聖文書)에 포함되어 있다.
- (3) 이 같은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따라 역사서를 살펴보면 각각의 역사 이해나 기록 방법 또는 신학적 관점 등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3. ◎ 성문서(히브리 성경의 세번째 부분) 가운데 있는 역사서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

- Ⓐ (1) 히브리 성경을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면 율법서(모세·오경), 예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들), 그리고 성문서(나머지 책들)로 분류할 수 있다.
- (2) 여기서 성문서란 히브리어(케투빔), 즉 '기록된 글들'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취급된 책들 이외에 나머지 11권의 책들을 가리킨다.
- (3) 이 성문서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시가서(詩歌書), 두루마리서, 그리고 역사서로 분류된다.
- (4) 여기서 시가서는 시편, 잠언, 육기 등 3권의 책으로 분류되며 두루마리서에는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등 5권의 책이 있다.
- (5) 그러므로 성문서 가운데 있는 역사서는 구약 성경에서 위의 책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4. ◎ 왜 히브리인들은 역사적 성격을 지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예언서에 포함시켰는가?

- Ⓐ (1) 이 책들은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들로서 이 책들이 예언서에 포함된 이유는 그 내용이 예언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들의 저자들이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 (2) 뿐만 아니라 이 책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취급하는 책으로서 모세가 오경

에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해 예언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되었다.

5. ◎ 전기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 Ⓐ (1)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 (2) 다시 말해서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네 권의 책(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으로부터 포로 시대의 신정 국가(神政國家)가 붕괴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어떻게 경륜(經綸)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사(解釋史)이다.
- (3) 그러므로 전기 예언서의 저자들은 예외없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의 증거자(證據者)가 되었다.
- (4) 그런데 혹자는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들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나타난 신학적 관점이 신명기의 관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 (5) 또한 이 책들은 후기 예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며 거기에 필요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6. ◎ 전기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주요 신학 사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전기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신학 사상의 전맥락이다.
- (2) 그중에서도 전기 예언서의 역사책들에는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모든 역사를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한 것이다.
- (3)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 성쇠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관련시켜 해석하고 기록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체결하시고 시내 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은 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 (6)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초석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7. ◎ 전기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 Ⓐ (1) 전기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번째는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이다.
- (2)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神政國家)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 이시라는 사상에 의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왕권 계승자로 나타난 것이다.
- (3) 두번째의 관심사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무엘이나 나단,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등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전기 예언서의 기자들이 선지자의 직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다.
- (4) 이 선지자들은 왕궁의 자문 위원이기도 했고 왕에 대한 전제 세력이기도 했는데 이들이 가졌던 이런 권한은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 (5) 따라서 이 같은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한 것은 왕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세번째 주요한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핵을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 (7) 사실 다윗 왕조가 합법적인 왕권 계승자로 인정받은 것도 그 법궤를 모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이었다.
- (8)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예배에 관한 문제로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신명기적 원칙(참조, 신 12:5-11)에 입각하여 왕들을 평가하였다.
- (9) 즉 예언서 저자들은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순수하게 여호와를 섬겼는가 아니면 이방의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끌어들였는가, 또한 이교(異教)의 요소인 산당들을 제거하였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하였다.

8. **Q**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역대기 역사)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A** (1)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의 내용상 특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고 대부분의 지면(紙面)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 및 남왕조 유다와 관련된 문제들에 할애된 점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강력한 선민 사상(選民思想)을 반영하는 것이다.
 - (3) 이처럼 역대기 역사서가 뚜렷한 역사 의식 또는 역사 철학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데 주력하였으므로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테 등한히 했다고 비난하였다.
 - (4) 사실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기술에 치중하였고 분열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므로 역사 기록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들은 포로 시대 이후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건축 사실을 기록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에서 제외되었거나 방해자가 되었던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9. **Q** 역대기 역사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 A** (1) 역대기 역사에 나타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은 전기 예언서(신명기적 역사서)가 예언자적 정신으로 역사 기록의 표준을 삼은 데 비해 여기서는 제사장적 정신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 (2) 그래서 성전이나 제사 의식 그리고 제사를 담당한 직분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 (3) 즉 신명기적 역사서가 국가적, 정치적 사회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었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민족적, 종교적 집단이나 의식 중심으로 역사를 다뤘던 것이다.
 - (4) 또한 역대기 역사서에서 다윗 왕이 그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가 예배처소인 성전을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 (5) 그리고 포로 후기의 역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많은 사건들 중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만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 (6) 이처럼 역대기 역사서는 제사장적 정신에 입각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다.

10. **Q** 역대기 역사서에 흐르고 있는 신학 사상은 무엇인가?

- A** (1) 역대기 역사서에 흐르고 있는 신학 사상은 인과 응보적(因果應報的) 사상이다. 물론 이 것도 제사장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 (2) 즉 이러한 제사장적 정신(하나님 중심주의)은 구체적으로 현실 역사에까지 적용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별을 받는다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사상이 역대기 역사서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

- (3)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가 강조하는 것은 신정론적 사상(神政論的 思想)이다.
- (4)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다.
- (5)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또한 역대기 역사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전이나 제사 의식 등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순종에 근거한 것임을 볼 수 있다.

11. ② 역사서를 시대 순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 (1) 역사서는 무려 1천 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대성해 놓은 방대한 내용의 책이다. 그리고 왕국 시대 대부분의 역사가 역대기와 열왕기에 중복되어 있다.

(2) 그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 ① 가나안 정복 시대(B. C. 1406-1375) : 여호수아
- ② 사사 시대(B. C. 1374-1043) : 사사기
- ③ 통일 왕국 시대(B. C. 1043-930) : 사무엘상 · 하, 열왕기상 1-11장, 역대상 1장-역대하 9장
- ④ 분열 왕국 시대(B. C. 930-586) : 열왕기상 12장-열왕기하 25장, 역대하 10-36장
- ⑤ 바벨론과 포로기의 회복 시대(B. C. 586-430) : 에스라, 느헤미야

12. ② 분열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 통치하였던 유다왕조(남왕조)를 도표화하라.

Ⓐ

창체	왕명(王名)	통치 기간	관련 성구	활동한 예언자
1	르호보암	B. C. 931-913	왕상 12:1-24; 14:21-31	
2	아비암	913-910	왕상 15:1-8	
3	아사	910-869	왕상 15:9-24	
4	여호사밧	872-848	왕상 16:41-50	
5	요람	848-841	왕하 8:16-24	
6	아하시야	841	왕하 8:25-9:29	
7	아달랴	841-835	왕하 11:1-21	
8	요아스	835-796	왕하 12:1-21	요엘
9	아마샤	796-767	왕하 14:1-14, 17-22	
10	아사랴 / 웃시야	790-739	왕하 15:1-7	
11	요담	751-736	왕하 15:32-38	이사야(B. C. 740-680)
12	아하스	742-728-725	왕하 16:1-20	미가(B. C. 735-690)
13	므스기야	728-725-697	왕하 18:1-20:21	나훔
14	므낫세	697-642	왕하 21:1-18	
15	아몬	642-640	왕하 22:19-26	
16	요시야	640-600	왕하 22:1-23:30	스바냐(B. C. 640-630)
17	여호아하스	609-608	왕하 23:31-35	예레미야(B. C. 626-585)
18	여호야김	608-597	왕하 23:36-24:7	하박국(B. C. 608-597)
19	여호야진	597	왕하 24:8-17	
20	시드기야	597-587	왕하 24:18-25:21	에스겔(B. C. 592-570)
21	예루살렘 함락	586	왕하 25:22-30	다니엘(B. C. 600-530)

※ 통일 왕국 시대: 사울(B. C. 1050-1010), 다윗(B. C. 1010-970), 솔로몬(B. C. 970-931)

여호수아 서론

1. ① 본서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 (1)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첫번째 책인 본서의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2. ②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1) 본서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 그러나 본서에는 여호수아 사후(死後)의 사건인 갈렙의 헤브론 정복(15:13, 14; 삿1:1, 10, 20), 옷니엘의 드빌 정복(15:15-19; 삿1:1, 11, 15), 단 지파의 레센 정복(19:17; 삿17:18)과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3)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가필(加筆)했으며(24:29-31),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24:33)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들은 여호수아가 본서를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4) 반면에 본서에는 여호수아가 저자임을 입증하는 귀절들도 나타나고 있는데(5:1, 6:7, 8장; 15:4) 특히 24:26은 여호수아가 본서의 기록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본서는 여호수아에 의해 일부가 기록되었으며 그 후 본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어떤 사람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Keil).

3. ③ 본서의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라.

Ⓐ (1) 에브리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로서(민 13:8)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 이방 민족의 학대 속에서 성장하였다.

(2) 그 후 애굽인의 학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는 11명의 정탐군과 함께 가나안을 탐지한 적이 있었다. 정탐 후 10명의 정탐군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을 악평할 때 그는 갈렙과 더불어 백성을 안심시키고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자였다(민 13:1-14:10).

(3) 이처럼 그는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모세의 사후 제사장 엘르아살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두번째 지도자가 되었다.

(4)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과업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으나 자신은 에브리임 지파에 속한 한 산지만을 차지할 정도로(19:50) 청렴(清廉)한 인물이었다.

(5) 위의 사실들을 볼 때 여호수아(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봄바쳐 수고한 자임을 알 수 있다(24:29).

4. ④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1)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서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편집되고 추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B. C. 950-200년까지로 추정한다.

(2) 그러나 본서는 적어도 통일 왕국이 설립되기 전인 B. C. 11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분

명하다.

- (3) 왜냐하면 본서가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윗 왕 때에 쫓겨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으며(15:63; 삼하 5:5-9) 사울 왕에 의해 학살된 기브온 사람들이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다(9:27; 삼하 21:1-9).
- (4) 뿐만 아니라 본서에는 솔로몬 시대에 바로 왕에 의해 살해된 가나안인이 게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6:10; 왕상 9:16).
- (5) 또 B. C. 13세기경에야 시돈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된 두로가 본서에서는 시돈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11:8; 13:4-6; 19:28).
- (6) 위의 사실을 볼 때 본서는 모세 이후로부터 여호수아 사후 1세기 이내인 B. C. 1406-13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Q 2).

5. Q 본서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라.

- A (1)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를 묘사하고 있으며 '라스 삼라 서판' (Ras Shamra Tablets)에 명백히 기록된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생활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 즉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음란하고 패역했으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게 하셨다.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11:21-23).
- (4) 여하튼 여호수아에 의해 주도된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Q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A (1) 본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후손(창 12:2)과 땅(창 12:7)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본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본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 (4) 또한 본서는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선민(選民)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선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5)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본서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7. Q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본서에 기록된 가나안 원주민의 멸절(滅絕) 기사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 A (1) 많은 사람들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나안 원주민의 진멸(盡滅)을 명령하신 여호와의 성품과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11:20; 신 7:1-5; 20:16-18).
- (2)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불쌍히 여길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참조, 롬 4:11)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방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내리신다(롬 2:9).
- (3) 한편 가나안인들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같은 경건한 신앙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들었으며 또 소동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하여서 경건치 못한 자의 멸망을 보았다(창 19장).

- (4) 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은 그들의 땅이 정복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서워 떨었다(2:8-11).
- (5)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이미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인들은 계속해서 음란한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 (7)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볼 수 있다.

8. ◎ 본서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즉 본서는 크게 가나안 정복과 정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역사의 이면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 (3) 먼저 정복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 아이 성을 차례로 무너뜨렸다(2-8장).
- (4) 이에 불안을 느낀 가나안의 남부 지역 다섯 왕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에게 대항했으나 이들은 결국 패하여 멸망당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여호수아는 북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진멸시켰다(9-11장).
- (5)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和親) 함으로써 살아남게 되었는데(9장)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참조, Q 5).
- (6)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14-19장),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 전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에게 영토를 분배받았기 때문에(13장; 민 32장)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 (7) 한편 레위 지파는 사십 여덟 개의 성읍과 들을 분배받았으며, 특별히 그들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섯 개의 도피성(逃避城)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다(20, 21장; 신 19:1-10).
- (8) 마지막으로 본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본서를 끝맺고 있다(23, 24장).

9. ◎ 본서가 다른 역사서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建國)의 첫 단계인 가나안 정착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2) 뿐만 아니라 본서는 역사적 사건이 논리적으로 질서있게 배열되어 있어서 당시 가나안인의 타락한 종교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통일 왕국 및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3) 또한 본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의 통치 법칙을 보여 주고 있다.
- (4)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본서는 후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 본서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지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포로 시대 후기에 '예수'

야'로 바뀌었으며 이 이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식 명칭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2) 즉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 1:21)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준다는 뜻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는 사실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事役)을 예시(豫示)해 주는 것이다.

(3)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구속사적(救贖史的)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엡 1:19, 20; 6:10)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장차 받을 하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엡 1:3; 2:6; 6:12).

11. ④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도표로 작성하라.

Ⓐ (1)

인물	시대	연대	특기 사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기 청동기 시대	B. C. 2100-1550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방랑하던 유랑민이었다
요셉	애굽의 중 왕국 시대(12왕조)	B. C. 1990-1780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감
모세	18왕조 하트셉수트	B. C. 1520-1484년	모세가 애굽에서 출생하여 하트셉수트의 양자가 됨
	18왕조 아멘호텝 2세	B. C. 1450-1425년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남(B. C. 1446)
	18왕조 투트모세 4세	B. C. 1425-140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함
여호수아	후기 청동기 시대	B. C. 1550-1200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감(B. C. 1406) 가나안 정복 및 토지 분배(B. C. 1400년경) 여호수아의 사망(B. C. 1375년경)

(2) 위의 도표를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유랑하던 아브라함에 의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의 방랑기를 지난 후 거의 7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④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과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이름과 위치를 도표로 설명하라.

Ⓐ

족속	원주민	위치	참고 귀절
가나안	헷	팔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	1:4
	아모리	유다 산지와 사해의 서부 산악 지대	5:1; 11:3; 민 13:29

가나안	가나안	요단 강 연안 저지대	창 10:19
	기르가스	요단 서편을 개척	3:10; 24:11
	히위	세겜과 기브온 성읍	9:7; 11:19
	브리스	산지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	3:10; 24:11
	여부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의 산지	15:63; 삼하 5:5-9
블레셋	블레셋	그레테의 갑돌 섬에서 왔으며 가나안 남방 해안 평야에 거주	13:3; 창 10:14; 삼 3:3, 31
기타 족속	호리		창 14:6

13. ④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 1:1-5:15

- 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여호수아 / 1:1-18
- ② 여리고 정탐 / 2:1-24
- ③ 요단 강을 건너다 / 3:1-17
- ④ 요단 강을 건넌 기념으로 돌 무더기를 쌓다 / 4:1-24
- ⑤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 5:1-15

(2) 가나안 정복 / 6:1-12:24

- ①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다 / 6:1-8:35
 - ㄱ. 여리고를 함락시키다 / 6:1-27
 - ㄴ. 아이 성 쌔움에서 패배하다 / 7:1-26
 - ㄷ. 아이 성을 함락시키다 / 8:1-29
 - ㄹ. 에발 산에 단을 쌓다 / 8:30-35
- ②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여호수아 / 9:1-10:43
 - ㄱ.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 9:1-27
 - ㄴ.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한 여호수아 / 10:1-43
- ③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다 / 11:1-15
- ④ 가나안 정복 사업을 요약하다 / 11:16-12:24

(3) 가나안 땅의 분할 / 13:1-24:33

- ① 여호수아가 받은 지시 / 13:1-7
- ② 요단 동편 땅의 분할 / 13:8-33
- ③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갖다 / 14:1-19:51
 - ㄱ. 제외된 두 지파와 반 지파 / 14:1-5
 - ㄴ. 유다 지파의 땅 / 14:6-16:63
 - ㄷ. 므낫세 반 지파의 땅 / 17:1-18
 - ㄹ. 남은 땅의 지도 작성 / 18:1-10
 - ㅁ. 베냐민 지파의 땅 / 18:11-28
 - ㅂ. 시므온 지파의 땅 / 19:1-9
 - ㅅ. 스불론 지파의 땅 / 19:10-16
 - ㅇ. 잇사갈 지파의 땅 / 19:17-23
 - ㅈ. 아셀 지파의 땅 / 19:24-31
 - ㅊ. 납달리 지파의 땅 / 19:32-39
 - ㅋ. 단 지파의 땅 / 19:40-48
 - ㅌ. 여호수아의 기업 / 19:4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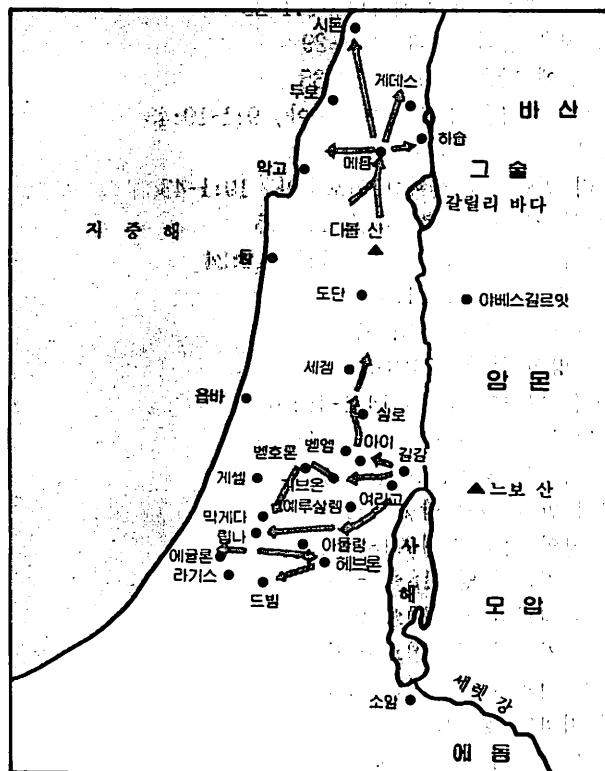
- ④ 도파성들 / 20:1-9
- ⑤ 레위 지파의 성읍들 / 21:1-45
- ⑥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 22:1-24:28
 - ㄱ.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준 교훈 / 22:1-34
 - 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준 교훈 / 23:1-16
 - ㄷ.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 / 24:1-28
- ⑦ 여호수아의 죽음 / 24:29-33

14. ② 본서의 요점은 무엇인가?

- Ⓐ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1:8).

지도자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제 1 장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단락구분 1-9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 10, 15 요단 강 도하(渡河) 준비를 명령하는 여호수아 / 16-18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밭 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 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11 진 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

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 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 임이니라 하라

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13 브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돋고

15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둑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 것을 차지할지니라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 우리는 법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1)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선택받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2)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절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로 임명받은 여호수아는 더욱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다보면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도와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끝내는 영화로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왕하 6:16; 사 41:10; 43:1-3; 마 10:30, 31).

2. ◎ '시종' (侍從)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시종'의 히브리어 <메샤레트>는 '섬기는 자' (minister)라는 뜻으로 일군이나 또는 군대의 부지휘관을 가리킨다.
- (2)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느껴야 하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체득할 수 있었다.
- (3) 이와 같이 지도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참된 일군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4)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남을 가르치며 지도자로서 자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참조, 출 3:11; 삼 6:15; 사 6:5; 렘 1:6).

3. ◎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상징하는 바를 비교하여 설명하라(1절).

- (A) (1)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출 19장) 율법의 대표자로 상징됨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구원의 완성자로 상징된다.
- (2)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救贖事役)을 예시(豫示)하는 것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참조, 서론 ◎11).
- (3) 결국 위의 사실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롬 3:19; 갈 2:19-21; 히 7:19).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행 15:11; 롬 3:24; 5:15; 딸 2:11; 3:7).

4. ◎ 하나님께서 새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인가? (2절)

- (A) (1)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 (2) 원래 이 일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 (3) 결국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자신의 일군으로 인정받고 임명받는 자라야 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군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갈 1:10).

5. ◎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단 한번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민 20:12).
- (2) 즉 모세는 마치 자신이 이적을 일으켜 반석에서 물을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망령되게 말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시 106:32, 33).
- (3) 이와 같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가

데스 바네아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렵고 멀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빌 2:12).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가? (3, 4절)

Ⓐ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남쪽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 레바논에 이르며, 또 동쪽으로 유브라테 강에서 서쪽으로 대해(大海,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이다.

(2) 한편 이 지역들은 이미 430여 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으나 (창 15:18-21)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3)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도록 명령하고 계시며 이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되었다(왕상 4:21).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벧후 3:9).

7. ◎ 어떠한 대적이라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2) 한편 모세가 바로 왕을 물리친 것도(출 5:1-12:36), 흥해를 건넌 것도(출 14장)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낸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그런데 바로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가나안 족속이라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4)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참조, 롬 8:35-39; 약 4:7).

8.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6절)

Ⓐ (1)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순간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다(창 15:18-21).

(3) 즉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된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참조, 시 119:105, 130; 히 4:12).

9. ◎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 8절)

Ⓐ (1)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 이었다.

(2)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가>는 단순히 크게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또 입술로 증거하

는 행위를 가리킨다. 技能學 有為行爲 有為事 有為事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시1:2).

10.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모형(模型)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집,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들도 그냥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신 6:10, 11).

(2)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지에서 시내와 샘이 흘러내려 비옥했기 때문이다(신 8:7-9).

(3)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땅이기도 했다(신 11:25).

(4) 이와 같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온갖 아름다움과 승리와 기쁨이 있는 곳이다(계 21, 22장).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들어갈 천국을 사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벧후 3:12, 13).

11. ④ '유사' (有司)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가? (10 절)

- Ⓐ (1) ‘유사’는 히브리어로〈소테르〉인데 ‘관리’(officer)라고 번역할 수 있다.
(2) 이들은 일정한 협연 단위의 우두머리나 대표자로서 광야에서는 전투에 나갈 남자들 소집하거나 지도자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참조, 8:32; 출 5:10; 립 11:16; 신 16:18).

12. ☐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11점)

- Ⓐ (1)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였다. 그런데 이 양식은 군량미(軍糧米)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2)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를 공급하셨다(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 양식이 가끔은(전쟁의 소란 중에) 필요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3, 6-8절).

(4) 이것은 전쟁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동시에 행동으로 실제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그냥 요단 건너편에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소 준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6)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창조 담전 4:7; 6:11).

13. ◉ 여호수아가 르우벤, 간, 모낫세 밭 지파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12-15절)

- A (1)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남겨 두고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였다.

(2)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에게 요단 강 동편의 땅을 주면서 다른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민 32 장).

(3)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비록 그들이 요단 강 동편의 땅을 차지해지만 자

기의 형제들을 돋기 위해서 요단 강을 앞장서서 건넜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도와 주어야 한다(참조, 행 20:35; 롬 14:1; 15:1; 고전 9:22; 살전 5:14).

14. ◎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대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6-18절)

- Ⓐ (1)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가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소에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같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계실 것을 간구하였다.
- (3) 나아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한 자를 처단하도록 당부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었다.
- (4) 이와 같이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 (5) 이것을 볼 때 이들은 비록 지도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한 번 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민 32:1-42)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단순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보자료

요단 강. 아래의 사진은 사행천(蛇行川)인 요단 강 하류의 모습이다. 이 강은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해로 흘러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건넜던 요단 강은(2절)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동병을 고친 강이었으며(왕하5:1-14)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강이기도 하다(마3:13-16).

제 2 장 정탐군을 대접하는 기생 라합

단락구분 1-7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탐군 / 8-14 정탐군과 언약을 맺은 라합 / 15-21 라합이 정탐군을 피신시키다 / 22-24 정탐군의 보고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 왔느니이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 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진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6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7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늙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흥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흔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늙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12-13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테서 전져 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4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7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23 그 두 사람이 돌아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불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늙더이다

1. ◎ 본장의 내용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여호수아는 싯딤에서 두 정탐군을 여리고로 보냈으며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 주어 무사히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보살펴 주었다.
- (2) 한편 라합은 비록 가나안 사람으로 미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탐군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라합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아무리 무능하고 가치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참조, 시 27:1; 37:39; 사 12:2; 25:9; 습 3:17; 뉴 1:69; 2:30; 행 16:31).

2. ◎ 라합의 신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라(1절).

- Ⓐ (1) 라합(넓다는 뜻)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으로서 그녀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의 눈을 피해 이스라엘의 두 정탐군을 숨겼다가 몰래 돌려보냈으며, 그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생명을 구했다.
- (2) 그 후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으며 다윗 왕의 고조모(高祖母)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마 1:5).
- (3) 뿐만 아니라 라합은 정탐군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히 11:31; 약 2:25).
- (4) 이것을 볼 때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

3. ◎ 여호수아가 정탐군을 '가만히'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군들은 서로 상반되는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일부의 백성들이 모세 이외의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소동을 빚은 적이 있었다(민 13, 14장).
- (2)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정탐군을 파견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오히려 그 일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여야 한다(마 10:16).

4. ◎ '싯딤'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라(1절).

- Ⓐ (1) '아카시아 나무들'이란 뜻을 가진 '싯딤'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요단에서 동쪽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벨싯딤'이라고도 한다(민 33:49).
- (2)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장소로서, 한때 발람의 꾀임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였던 곳이다(민 25장; 31:16).

5. ◎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라합은 멸망받을 도시의 천박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9-12절) 또 믿음대로 행동함으로써(15-21절)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 (2) 이것은 누구든지 주께 오기만 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뿐만 아니라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 (4) 이것을 볼 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또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할 때 (눅 5:32) 성도들은 신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6. ◎ 여호수아가 정탐군을 파견할 당시 여리고의 통치자는 누구였는가? (2절)

- Ⓐ (1) 당시에 여리고는 그 원주민에서 중에서 추대된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여리고 왕은 광범한 통일 국가의 왕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시 국가의 형태)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불과하였다.
 (3) 한편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텔 엘 아마르나' (Tel el Amarna)라는 서판(書板)에 당시 가나안 땅에 왕이 통치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7. ◎ 그 당시 여리고 성의 군사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정탐군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의 왕이 이 소문을 들은 것으로 볼 때 당시 여리고의 군인들은 여리고 성을 철저하게 경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거민들은 매우 강한 자들로 신장이 장대한 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이 허약한 자들이었다 (민 13장).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군을 보내고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다(창 15:18-21; 신 1:28-33).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막 9:23).

8. ◎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에 어떻게 답하였는가? (3-5절)

- Ⓐ (1)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정탐군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라합은 두 정탐군들이 자기에게 왔었지만 이미 떠나갔으니 빨리 죽어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군인들을 속였다.
 (2) 이처럼 여리고의 군인들을 속인 것은 곧 여리고의 왕을 속이고 여리고의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정탐군을 숨겨 줌으로써 정탐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위험한 경우를 당하게 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여여야 한다(에 4:16; 단 3:16, 17; 6:10).

9. ◎ 본절에서 라합이 한 거짓말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5절)

- Ⓐ (1) 라합은 정탐군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급히 성문으로 가면 정탐군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2) 한편 라합이 한 거짓말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계명은 이웃을 속여서 그 이웃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4)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정탐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속인 라합의 행위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는 행동인 것이다.
 (5)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외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깨달아 이웃을 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6절)

Ⓐ (1) 이것은 물 속에서 자라는 길이 1-1.2m 가량의 삼나무 줄기들을 잘라서 말리기 위해 평평한 지붕(참조, 막 2:4) 위에 널어놓은 것을 말한다.

(2) 한편 '삼'은 베옷을 짜는 섬유로서(참조, 렘 13:1;겔 44:17, 18) 잠언에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를 현숙한 자로 언급하고 있다.

11. Ⓛ 라합이 두 정탐군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면서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8-14절)

- Ⓐ (1) 그녀는 성(城)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공포에 쌔였음을 말했다.
 (2)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전년 사실을 말했다(출 14:2).
 (3) 또한 라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흔과 옥(민 21:24)에 대한 일로 인하여 민중이 사기(士氣)를 잃은 사실을 말했다.
 (4)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유일(唯一)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5) 그리고 그녀는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12, 13절).
 (6) 이것을 볼 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미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롬 10:17)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롬 10:15).

12. Ⓛ 두 정탐군들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생명을 원수들에게 내어 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보호자이시면서 또한 자기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보호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3) 그리고 그들은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 준 사실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녀와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였다.
 (4) 이와 같이 정탐군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지만 아니라 그들을 도운 자들에게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 있고 신실한 자들이었다.
 (5)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참조, 엘 1:7; 2:7;요일 3:16-18).

13. Ⓛ 아모리 왕들에 대해 라합이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10절)

- Ⓐ (1) 모세는 암몬 지역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시흔 왕과 그의 강한 도성들을 격파하였으며(민 21:23-30)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산 왕 옥을 쳐부수었다(민 21:31-35).
 (2) 이 사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귀에 들렸으며 여리고 성에 사는 미친한 라합에게도 알려졌던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력한 두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들었다.
 (4) 결국 라합은 이 소문들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5) 이것을 볼 때 신앙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요 20:29; 벤전

1:8).

14. ◎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1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2)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히, 바이맘)는 말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마음이 녹아(hearts did melt) 물같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7:5).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완전히 용기를 상실하였던 것이다(5:1).
 (4)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여리고 성 사람들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말이다.

15. ◎ 라합이 두 정탐군을 ‘선대(普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선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비’, ‘궁휼’, ‘친절’이라는 뜻이다.
 (2) 한편 이 〈헤세드〉란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즉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호 2:19).
 (3) 다시 말하면 라합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정탐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전 16:16; 히 13:17; 벨전 5:5).

16. ◎ 라합이 정탐군에게 베푼 마지막 친절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라합은 자기의 집 창문에서 줄을 내려 정탐군들이 그 줄로 성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게 도와 주었다.
 (2)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탐군들이 산에서 3일 동안 숨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3) 이것은 정탐군들을 집 안에 숨겨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으로 라합은 시종 일관 정탐군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 한다(참조, 뉴 10:30-35).

17. ◎ 본절에서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여기서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2) 한편 두 정탐군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녀의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집 안으로 불러 모으라고 하였다.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붉은 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에서 속죄 짐승이 흘리는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써(참조, 창 3:20, 21; 출 12:1-13; 레 14:1-32; 민 19:1-10)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흘리시는 피를 상징한다.
 (5) 따라서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18. ◎ 라합이 정탐군들을 보낸 뒤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21절)

- Ⓐ (1) 라합은 정탐군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2) 한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만 붉은 줄을 매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군과 약속을 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옮겼던 것이다.
 (3) 이것은 라합의 준비성 있는 삶을 말해 주는 것으로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면 붉은 줄을

매달 경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날을 사전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벤전 4:7).

19. ◎ 정탐군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23, 24절)

- Ⓐ (1) 그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고 보고했다.
- (2) 즉 이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내용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민 14:6-10).
- (3) 한편 정탐군들이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 (4)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대적자인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참조, 액 6:11; 약 4:7).

화보자료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4,5절) 두 정탐군은 탈출할 수 있었다. 이는 그녀가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는 신앙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성경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였다(히11:31; 약2:25).

제 3장 요단 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단락구분 1-6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에 도착하다 / 7-8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 9-15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다 / 16-17 요단 강이 길라지다

1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 삼 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자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

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심 이 명을 택하라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 (요단이 모매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1. ④ 본장의 내용을 약술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들어서자마자 요단 강이 갈라졌으며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마른 땅 건너가듯이 건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단 강을 건너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분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젤 37:7; 히 4:12).

2. ④ 여호수아는 싯딤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1절)

- Ⓐ (1) 그는 식당을 떠나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거기에 진을 치고 유숙하였다.
- (2) 여기서 '유숙(留宿)하다'는 말은 '체류하다'라는 의미보다는(잠 15:31) '쉼다'는 뜻에 더 가깝다.
- (3) 이것은 정탐군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러한 여호수아를 행동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시 27:14; 62:5; 123:2; 사 8:17; 40:31).

3. ⓐ '언약궤 뒤를 쪽으라'는 말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 (1) 언약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 주는 표적이다. 즉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출 25:22).
- (2)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생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따라 행할 때 요단 강이 갈라졌으며(14-17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6:9, 20).
- (4)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날의 성도들도 과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뒤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것같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4.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진하였는가? (3, 4절)

- Ⓐ (1)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이천 규빗(약 912m) 정도 떨어져서 행진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약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죄인이 가까이 음으로써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삼하 6:7).
- (3)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이 정착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항상 구별되어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 (4)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진한 것은 언약궤 주변에 흘어져 있는 온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5. ⓐ 본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5절)

- Ⓐ (1) 여호수아는 내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奇事)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하라고 명령하였다.
- (2) 이 말은 내일 요단을 건너도록 도와 주실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각자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뜻이다.
- (3)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사역(事役)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참조, 레 11:44; 19:2; 20:7, 26; 21:8; 베전 1:16).

6. ⓐ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6절)

- Ⓐ (1) 그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에 서서 요단 강을 건너가라고 하였다.
- (2)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맨 채 요단 강을 뛰어들어야만 하였다.

(3) 이것은 사실 제사장들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7. ◎ 본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로 격려해 주셨는가? (7절)

- Ⓐ (1) 여호와께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더욱 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오늘부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날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행동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 (3)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역사(役事)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마 28:20).

8. ◎ '요단 강'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하라(8절).

- Ⓐ (1) 요단 강은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지나 남쪽의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강이다.
- (2) 뿐만 아니라 요단 강은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이어 주며 동서로 구분하는 천연적인 경계이다.
- (3) 한편 예수께서는 이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마 3:13-17; 막 1:9-11).
- (4) 또 신선한 요단 강의 수원(水源)은 헤르몬 산악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성수하고 왕성한 힘을 얻어 마침내 사해(死海)로 흘러 들어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에 비유되기도 한다.

9. ◎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누구인가? (10절)

- Ⓐ (1) 그들은 가나안, 헷,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다.
- (2)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족속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출 33:2; 신 7:1).
- (3)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종교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신 7:4).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죄악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둡시 미워하시며 또 죄의 유발 원인(誘發原因)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삿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를 사전에 뿌리 뽑아야 한다(참조, 앵 4:22; 하 12:1; 벤전 2:11).

10. ◎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는가? (10, 11절)

- Ⓐ (1)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며, 온 땅의 주(主)라고 하였다.
- (2) 즉 온 땅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 (3)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4)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주신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삼상 17:26), 이사야(사 37:17), 예레미야(렘 23:36), 다니엘(단 6:26)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셨으며, 신약 시대의 여러 신실한 자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하셨다(참조, 행 14:15; 살전 1:9; 히 10:31).
- (5) 이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훼방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행 4:13; 4:31; 9:29; 14:3; 19:8).

11.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때는 언제인가? (15절)

- Ⓐ (1) 그때는 모택(牟麥), 즉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다.
- (2) 한편 요단 강은 해마다 보리를 추수하는 늦은 봄, 즉 4, 5월경이 되면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이 흘러내려 강 둑까지 넘치곤 하였다.
- (3)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가 아니면 감히 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밭을 요단 강에 들여놓을 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강 가운데로 큰 길이 나타났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 114편; 행 16:19-26).

12. ◎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들어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16절)

- Ⓐ (1) 흘러 내리던 강물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鹽海)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 (2) 여기서 아담 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강 위편 24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곳에서 강물을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중단시키셨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흐르던 물을 사해(死海)로 완전히 흘러가게 함으로써 요단 강 사이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창 1장; 시 115:15)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참조, 출 14:15, 16).

1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 (2)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를 신뢰하였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출 19:5; 신 4:30; 5:29; 7:12; 28:1; 왕상 3:14; 용 36:11; 속 3:7; 약 1:25; 요일 3:22).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군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참조, 계 22:14).

1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간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6, 17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차 죽음을 넘어서서 약속된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게 될 성도들의 삶을 연상케 한다.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라본 요단 강은 엄청난 모험과 시련의 장소였던 것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는 이와 같이 신앙의 모험을 요구하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가야만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다.

(4)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에 발을 들여 놓았듯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결단력 있게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

(6) 그때에 성도들은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참조, 행 14:22; 살후 1:5; 약 2:5).

화보자료

언약궤. 아래의 그림은 파리 생 스페스 신학교의 예배실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인데 지금은 없어진 그룹(천사)의 형상이 덧붙여져 있다.



언약궤는(11절) 증거궤(출25:22), 하나님의 궤(삼상 3:3)라고도 하며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출 25:16, 21) 거룩하심(삼상 6:19)을 상징한다.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신 10:4)과 아론의 지팡이(민 17:10), 만나 향아리(출 16:33, 34)가 들어 있다.

제 4 장 요단 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다

단락구분 1-8 요단 강 도하(渡河)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 열 둘을 쥐하다 / 9 기념비 열 두 개를 요단 강 가운데 세우다 / 10-14 요단 강을 건너는 백성이 / 15-18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다 / 19-24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다

1 은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을 택하고

3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 둘을 쥐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 두 사람을 불러서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케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쥐하여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 둘을 쥐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 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있더라

10 케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썼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 사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써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16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19 정월 십 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매

20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 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물기를 이 물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22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히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1) 요단 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서 요단 강가에 세우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자리에도 돌무더기 를 쌓도록 명령하였다.

(2) 이것은 그들이 요단 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찬양하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대상 16:8; 시 50:14; 92:1; 엡 5:20; 빌 4:6; 골 3:17; 살전 5:18; 딤전 4:4).

2. ⓐ 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 돌들을 취했는가? (2-5절)

Ⓐ (1) 그들은 요단 강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지파 수대로 열 두개의 돌을 취하였다.

(2) 그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평상시에는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큰 돌들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요단 강 가운데에서 취한 열 두개의 돌들은 기념비로써 세워질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6, 7절)

Ⓐ (1) 기념비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2)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넌 뒤 이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단 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3)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신 6:4-9).

(4)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그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시켜야 한다(신 4:9; 11:19; 31:13; 시 78:5; 잠 22:6; 사 28:9; 요 21:15).

4. ⓐ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1)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찬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에서 행하신 기적은 그 당시에만 찬양을 받을 만한 일 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만한 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 과거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또한 미래에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시 9:11; 32:2; 67:3; 사 42:12).

5. ⓐ 여호수아가 요단 강 가운데 열 두개의 돌을 세운 것은 의미가 있는가? (9절)

Ⓐ (1) 요단 강 가운데 돌들을 세우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2) 왜냐하면 다시 물이 흐를 때에 그 돌무더기가 보이지 않게 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물들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이 돌무더기가 비록 눈에 띄지 아니하여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 돌무더기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한다.

(5)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참조, 마 6:4).

6. ◎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 강을 건너 사람은 누구인가? (10, 11절)

- Ⓐ (1)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
 (2) 한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채 요단 강의 가운데에서 있어야 했다.
 (3) 사실 언제 강물이 다시 흘러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너는데, 몇몇의 제사장들만이 뒤에 남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실로 위험하고 불만스러운 일이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어렵고 불만스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참조, 출 32:32; 삫 11:36; 롯 2:11; 예 4:16; 히 11:25).

7. ◎ 르우벤, 갓, 모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장서서 요단 강을 건너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그들이 앞장서서 요단 강을 건너 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2) 사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싸움에 능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형제 지파를 돋기 위해 요단 강을 건넜던 것이다(참조, 대상 12:8).
 (3) 그러므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돋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행 20:35; 살전 5:14).

8. ◎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이다.
 (2)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3:7).
 (3) 그리고 그분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5)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리야 한다(참조, 행 5:34).

9. ◎ 요단 강이 다시 흐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15-18절)

- Ⓐ (1)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서부터 나와 빨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 강이 이전과 같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2) 이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의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요단 강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요단 강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말해 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단 강을 멈추게 하실 때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실 때에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4)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0.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정월 십 일'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19절)

- Ⓐ (1)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로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준비일 이었다(출 12:3).
 (2) 한편 하나님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였다.
 (3)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또 그 구원이 요단을 건너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만이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계 1:8; 1:17; 21:6; 22:13).

11. ◎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 사실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지적하라 (19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민 14:34).
 (2)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새로이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과 3일 만에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새 땅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히 13:17; 베후 3:13).

12. ◎ '길갈'의 위치와 길갈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라 (19절).

- Ⓐ (1) 여리고 동쪽 3.7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길갈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진을 친 곳이기도 하다.
 (2)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5:10-12)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도 길갈에서였다(5:13-15).
 (3) 또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기브온 사람과 동맹을 맺었으며(9:3-15),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운 곳 역시 길갈이었다(10:6-43).
 (4) 뿐만 아니라 길갈은 통일 왕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종교의 중심지였으며(참조, 삼상 7:16; 10:8; 11:15; 13:8-10; 15:21) 왕국 분열 이후로는 잘못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하여 선지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곳이기도 했다(호 4:15; 9:15; 12:11; 암 4:4; 5:5).
 (5) 한편 성경에는 길갈의 또 다른 장소를 설명하는 귀절이 있는데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기사에서는(왕하 2:1, 2) 길갈이 벤엘의 북쪽 지역으로 신 11:30에 나오는 '그리실 산과 에발 산 사이의 세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1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22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4)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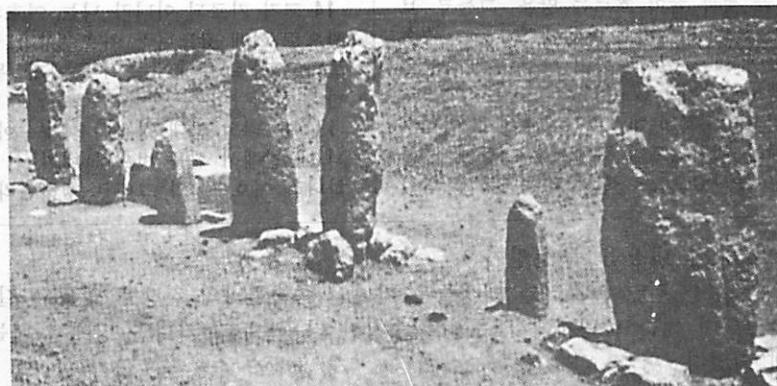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깨달아 그분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102:27; 말 3:6; 히1:12; 약 1:17).

14. ❷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23, 24절)

- Ⓐ (1) 그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서 '경외하다' (fearful)라는 말은 단순히 공포심을 갖고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 (3)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며 또 이러한 사실은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통하여 쌓여져야 하는 것이다.
- (4) 그래서 잠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 1:7; 9:10)이라고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쉐마' (신 6:4-9)라는 귀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어려서 받은 참된 교육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잠 22:6).
- (6)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은 그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올바르게 양육시켜야 한다(참조, 신 4:9; 6:7; 11:19; 31:13; 시 34:11).

화보자료



돌기둥. 아래의 사진은 B. C. 2000년경에 아모리인에 의해 세워진 돌기둥으로서 팔레스틴의 게셀(Gezer)에 있다.

본장의 기록과 같이 돌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증거하는 일에 끈질 쓰여졌다(9절). 즉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려지거나(창 28:18-22; 사 19:19) 죽은 자를 위한 기념비로(왕하 23:17; 갈 39:15) 사용되는 일이 있었다(참조, 7:26; 삼상 7:12).

제 5 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키다

단락구분 1 무서워 떠는 가나안 족속들 / 2-9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割禮)를 받다 / 10-11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다 / 12-15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1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전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잊었더라

2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식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 여호수아가 부식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동에서 죽었는데

5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동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7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나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

음이었더라

8 은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 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10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췌고 그 달십 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A (1)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게 되었다.
- (2) 한편 머잖아 시작될 전쟁을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력(戰力)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 (3)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결하게 살 것을 암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참조, 고후 7:1; 엠 4:24; 베후 3:11).

2. ◎ 가나안과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공포에 싸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연적 방어선인 요단 강을 말리고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추격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주었다(출 14장).
- (3) 특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서 이렇게 용맹한 족속이 두려워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조차도 두려워서 떠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원수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한다(약 4:7; 빙전 5:8, 9).

3. ◎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 (2) 한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후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길갈에서 일제히 할례를 받게 되었다.
- (3)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을 시행하게 되었다(창 17:9-14).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자녀로서의 혼적을 지녀야 한다.
- (5)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할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혼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신 10:16; 30:6; 렘 4:4; 롬 2:29; 빌 3:3; 골 2:11).

4. ◎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에 행한 것으로 성결(聖潔)을 의미한다.
- (2) 즉 할례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행위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이 할례는 더 이상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일에 임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마음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출 4:25).
- (4)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하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즉 부정(不淨)한 마음을 씻어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신 30:6) 또 몸소 실천하는 것이 할례받은 자의 삶인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만 신자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빌 3:3).

5. ◎ 할례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라(2절).

- Ⓐ (1)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관습으로 그 이후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창 17:10-14).
- (2) 한편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그 당시에 이미 중동 지역에 퍼져 있던 관습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써 할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다(창 17:12).

(4) 그 후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받은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가르쳤다(롬 2:29; 빌 3:3; 골 2:11).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4-7절)

- Ⓐ (1) 그들은 길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할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민 9:15-23).
 (3)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받았던 것이다.
 (4) 그러나 태어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더 큰 이유는 (참조, 창 17:12)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분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다(민 14장).
 (5) 결국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은 저주로 인해서 후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更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7. ◎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6절)

- Ⓐ (1)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2) 즉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다(민 14장).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1:12; 3:16)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빌 2:12).

8. ◎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이것은 광야에서 중단되었던 할례가 다시 시행된 것을 말한다.
 (2) 다시 말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한편 할례의 규례가 잠시 동안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문 6).
 (4)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먼저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참조, 시 51:12; 사 57:18; 램 3:22; 30:17; 호 14:4; 미 7:19).

9. ◎ 백성의 진 중(陣中) 각 처소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8절)

- Ⓐ (1) 그것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낫기까지 조용히 앓아서 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한편 할례받은 자는 3일 정도 지나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참조, 창 34:25)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기다리며 조용히 진(陣) 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3) 또한 적을 눈앞에 두고 곧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위협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 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마 26:39; 롬 6:13; 약 4:7).

10. Q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A (1) '애굽의 수치'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던 죄된 습관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 (2)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애굽인들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 (3) 이것을 본 애굽인들은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참조, 출 32:12; 민 14:13-16; 신 9:28).
- (4)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므로써 완전하게 사라졌던 것이다.
- (5)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인 애굽인들로부터 비난 받게 하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마 5:16).

11. Q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라(10절).

- A (1)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통과하다', '면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 23:5; 민 28:16; 33:3).
- (2)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한 역사적 사실에 기원을 두고 있다(출 11:5).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정월 14일 저녁에 흠 없고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楔柱)와 인방(뜻: 문짝의 위 아래로 가로지른 나무)에 발랐다 (출 12:6, 7).
- (4)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잡은 수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無酵餅)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음으로써 죽음을 면했던 것이다(출 12:8).
- (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출 12:14).
- (6) 그 후 이 절기는 갈보리 언덕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다(요 1:29; 고전 5:7; 히 9:23).

12. Q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유월절을 지냈는가? (10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냈다.
- (2) 한편 이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민 9:1-5) 처음 행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즉 유월절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役事)는(출 12장)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을 때가 되면 반드시 완성하신다

(참조, 단 9:24; 막 1:15; 갈 4:4; 엡 1:9; 딤전 2:6; 딤 1:3; 히 9:26).

13. ◎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날에 어떤 식물을 먹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所產)과 무교병(無酵餅)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2)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그들은 유월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떡을 먹었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누룩'이 도덕적 타락과 악을 상징했기 때문이다(레 2:11; 고전 5:7, 8).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회(聖會)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참조, 고전 5:6; 갈 5:9).

14.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날은 언제인가? (11절)

- Ⓐ (1) 그들은 유월절 다음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2) 즉 유월절 다음날은 정월 15일이지만(민 33:3)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날은 정월 16일이었다.
 (3)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즉 15일이(레 23:6-8) 지난 다음 날 첫 수확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준 뒤에 곡물을 먹었기 때문이다(레 23:10, 11).
 (4) 뿐만 아니라 15일은 안식일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물을 먹은 날은 정월 16일임이 분명하다.

15.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12절)

-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2) 즉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땅의 식물을 얻게 되자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 땐 인간 편에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만 앓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

16. ◎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만난 자는 누구인가? (13, 14절)

- Ⓐ (1)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
 (2) 한편 그는 한 손에 칼을 든 채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돋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돋기 위하여 종종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다(창 18:1, 2; 32:24; 단 3:25).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주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히 1:14).

17. ◎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는 여호수아에게 '네 밭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고 하였다.
 (2) 즉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서(출 3:5)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聖戰)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될 것을 지시하는 말이다.
 (3)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당시에 신을 신지 않고 다니는 종에 비유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당신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창 11:15; 창 6:2; 22:2, 3; 출 36:1; 민 9:23; 왕하 18:6; 롬 16:19; 히 5:8).

18. ◎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무엇의 의미하는가? (14, 15절)

- Ⓐ (1) 이것은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써 거룩한 전쟁을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고후 10:4; 엘 6:12).

화보자료

할례 관습. 할례 의식은 고대에 널리 행해졌는데, 바벨로니아인과 앗시리아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셈족 사람들과 애굽인들도 이를 행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인들과 인접해서 살던 민족 중에 팔레스틴 사람들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 관습은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아메리카 등지의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인도 게르만족이나, 몽고 인종에게서는 이러한 관습이 발견되지 않는다(아래 사진은 애굽 사카다 분묘에 새겨진 얇은 부조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언약을 '맺다'에 히브리어 해당하는 〈네리트〉에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행위는 곧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구별을 짓는 것이다(2-8절).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무할례자' (히. 아렐림)라고 불렀다(삿 14: 15-16).

3:15:18; 삼상 14:6; 17:26, 36; 31:4; 삼하 1:20; 대상 10:4).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특성과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철학을 전개해온다.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제 6 장 여리고 성의 함락

단락구분 1-7 여리고 점령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 8-21 여리고 성의 함락 / 22-25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다 / 26-27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1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불였으니

3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둘러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 일에는 성을 일곱 번 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 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윤라갈지니라 하시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둘러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을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둘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 그 제 이 일에도 성을 한 번 둘고 진에 들

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제 칠 일 새벽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들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8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20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21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23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전 밖에 두고

24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 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26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

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잊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잊으리라 하였더라

2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
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1. ◎ 본장은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가?

- Ⓐ (1)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점령하였다.
 (2)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궤와 나팔을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돈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이다.
 (3)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 방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전쟁을(참조, 5장 ◎18) 수행하셨던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당신께 순종한 자들이 승리와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롬 42:2; 시 115:3; 135:6; 합 3:6; 마 19:26; 막 14:36; 뉘 1:37; 계 19:6).

2. ◎ 여리고 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라(1절).

- Ⓐ (1) 여리고 성은 그 둘레가 0.6km, 넓이가 2만m²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성이지만 이중 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으로 요단 대평야의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2)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들의 성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대하 20:20; 막 9:23; 뉘 8:50).

3. ◎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양각(洋角) 나팔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 후에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셨다.
 (2)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게 되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3)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력을 얻어 장차 치루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큰 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심으로써 그 자녀들을 담대하게 하신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장차 다가올 큰 일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참조, 히 10:36; 약 1:4).

4.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요령으로 여리고 성을 들었는가? (3-5절)

- Ⓐ (1) 그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을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들었고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들며 나팔을 길게 불었다.
 (2) 여기서 일곱이라는 수(數)는 완전(完全)을 나타내는 수로서 나아만은 문동병을 완치하기 위해 요단 강에 일곱 번 들어갔으며(왕하 5:10), 시편 저자는 하루에 주를 일곱 번 찬양한다고 하였다(시 119:164).

- (3)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자(数字)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국 여리고 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이라는 수자에 얹매어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5. **ⓐ 언약궤 앞에 선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둘았는가?(4절)**

- Ⓐ (1) 그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리고 성을 둘았다.
- (2) 여기서 양각 나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요벨> <쇼파르>로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은 나팔(민 10:1-8)이 아닌 수양의 뿔로 만든 뿔 나팔을 가리킨다.
- (3) 한편 이 양각 나팔은 신호나 경고를 나타내거나 안식년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레 23:24; 민 29:1; 삼 3:27; 왕상 1:34; 왕하 9:13; 11:14).
- (4) 뿐만 아니라 이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대하 5:12; 20:28; 29:26; 스 3:10).
- (5) 이것을 볼 때 양각 나팔은 주로 구원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날마다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시 9:11; 33:2; 사 42:12; 히 13:15).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둘 때 행군 순서는 어떠했는가?(6, 7절)**

- Ⓐ (1) 선두에 무장한 군인들의 뒤를 이어 나팔 부는 일곱 제사장이 서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따랐다.
- (2) 한편 이 순서는 요단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던 순서와는 차이가 있는데(3:3)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순서로 여리고 성을 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 (3) 사실 위와 같은 대형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 119:105).

7. **ⓐ 언약궤 앞에서 무장하고 행진한 자들은 누구인가?(7절)**

- Ⓐ (1) 그들은 르우벤, 갓, 모낫세 반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로 요단 강을 가장 앞서 건넌 자들이었다(4:12, 13).
- (2) 또한 이들은 요단 강 동편 지역을 차지한 두 지파 반으로서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돋기 위해 무장한 것이었다(1:14, 15).
- (3)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왔기 때문에 가족을 들보기 위해 염려할 필요도 없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의 가족들도 뒤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가정도 포기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막 10:28; 뉘 5:27, 28; 14:33; 빌 3:8).

8. **ⓐ 어떤 자들이 언약궤 뒤를 따랐는가?(9절)**

- Ⓐ (1) 언약궤 뒤에서 행진한 자들은 후군(後軍)이었다.
- (2) 여기서 후군은 앞에서 행진하는 무장한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가운데서 선발된 자들로서 이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는 자들 못지 않게 사기가 왕성한 자들이었다.

- (3) 왜냐하면 요단 강 서편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은 그들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 (4) 이같이 후군들은 무장한 형제들이 자기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 주기 때문에 전(陣)에 그냥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대의 후미(後尾)에서 자기들의 할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9. ◎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0절)

- Ⓐ (1) 그는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레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들레다’(히, 쇠마)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더 주의 깊게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 ‘들레지 말라’고 하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출 14:14; 습 2:13).

10. ◎ 제 칠 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15절)

- Ⓐ (1) 그들은 칠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 주위를 일곱 번 돌았다.
- (2) 이와 같이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참조, ◎3).
- (3) 이것을 볼 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계 2:10, 26).

11. ◎ 일곱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친 말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는 살려 주라’고 말했다.
- (2) 여기서 여호와께 ‘바치다’(히, 헤림)는 말은 ‘철처하게 죽이다’는 말로써 ‘완전히 멸망되다’는 뜻이다.
- (3) 즉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도 노획물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여리고 성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없애 버리라는 것이다(참조, 례 27:28, 29).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의한 자를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출 22:18-20).

12. ◎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 Ⓐ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된다.
- (2) 여기서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똑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참조, ◎11).
- (3)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당하게 될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 (4) 이같이 한 사람의 잘못이 때에 따라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화를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7:1-5; 삼상 4:5-22).

13. ◎ 약탈물 중에서 따로 여호와의 곳간에 넣은 것은 무엇인가? (19절)

Ⓐ (1) 그것은 은금과 동철 기구이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략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죽였지만 금속으로 된 쇠붙이는 남겨서 하나님의 보고(寶庫), 즉 성막에 보관했던 것이다.
- (3)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금속을 보관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 (4) 그러나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노획하여 성막 고간(庫間)에 보관했던 금속과 쇠붙이로 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참조 삼하 8:11; 왕상 7:51; 대상 29:1:2) 이 당시에 보관된 금속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생명체는 모두 죽였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다(참조 대상 29:11; 계 4:11; 15:4).

14. ⓒ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뒤 노획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20, 21절)

- Ⓐ (1) 그들은 성중에 있는 남녀 노유(老幼)와 우양(牛羊)과 나귀를 칼날로 멸망시켰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노획물을 죽인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획물을 처리한 것은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공의로써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는 공의로써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시 119:137; 145:17; 행 17:31).

15. ⓒ 여호수아가 두 정탐군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22절)

- Ⓐ (1) 그는 정탐군에게 기생 라합과 더불어 맷은 약속을 지키라고 하였다.
- (2) 즉 정탐군들은 여리고를 탐지할 때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대가(代價)로 여리고를 공략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 주기로 약속하였다(2:15-21).
- (3) 한편 이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2:12, 13)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다(참조 시 98:3; 사 49:14-16).

16. ⓒ 여리고가 함락될 때 살아 남은 자는 누구인가? (23절)

- Ⓐ (1) 그들은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족들이었다.
- (2) 한편 라합은 정탐군들을 도와 줌으로써 자기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녀의 친족들까지 구원했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자 한 사람의 행위가 그렇지 못한 많은 자들을 구원한 실례(實例)를 볼 수 있다(참조, 렘 5:1).
- (4)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많은 불의한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비교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창 19:29; 마 1:18-25).

17. ⓒ 정탐한 자들은 라합의 가족과 친족들을 구출하여 어디에 두었는가? (23절)

- Ⓐ (1) 그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친족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따로 격리시킴으로써 여리고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라합에게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여유를 주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이방인들은 먼저 과거의 죄된 습관을 청산하고 하

나님의 자녀로써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참조, 출 12:48; 민 9:14).

18. ◎ 라합은 여리고로부터 구원을 얻은 뒤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 Ⓐ (1) 그녀는 그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었다.
 (2) 그 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들을 통하여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마 1:5, 6, 16).
 (3) 한편 우리는 앞에서(참조, 2장 Ⓛ 2) 라합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았음을 이미 살펴보았다(히 11:31).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삼상 16:7; 렘 17:10).

19. ◎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는가? (26절)

- Ⓐ (1)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잊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에 계자(季子), 즉 막내 아들을 잊을 것이라고 저주하였다.
 (2)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반복한 것으로서(신 13:16, 17)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폐허가 된 상태로 남겨 둠으로써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3) 한편 이 저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 두 아들을 잊은 벨엘 사람 히엘에게 이루어졌다(왕상 16:34).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해야 한다(골 3:5, 6).

화보자료



양각(羊角)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아래의 사진은 본래 생트 샤펠 교회의 창문을 장식하였던 스테인드글라스인데 지금은 루앙 고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 7 장 아간의 범죄와 아이 성 싸움의 패배

단락구분 1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 2-5 아이 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 6-15 여호수아의 기도
와 하나님의 명령 / 16-21 아간의 죄가 드러나다 / 22-26 아간을 아끌 끌짜기에서 사형에 처하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벤엘 동편 벤아웬 절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4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 둑 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턱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불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편 하였나이다

8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멀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을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을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을 것이며

15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삼디가 뽑혔고

18 삼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삼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들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의루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님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2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

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들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 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려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아간의 범죄로 아이 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사형에 처하고 그의 소유물을 전부 불태웠다.
- (2) 한편 아간이 전리품을 도적질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 (3) 이와 같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지극히 작은 범죄가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5:5-7).

2. ❓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 (2) 한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요 또 한 개인은 곧 전체 민족을 대표했던 것이다.
- (3) 따라서 아간 개인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자기 개인의 행위가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히 12:15).

3. ❓ 아간은 누구의 자손인가? (1절)

- Ⓐ (1)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다.
- (2) 여기서 세라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이다(창 38장).
- (3) 또한 삽디는 세라의 다섯 아들 가운데 하나로 그의 이름은 대상 2:6에 시므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필사자(筆寫者)의 실수인 듯하다.
- (4) 그리고 아간(히, 아간)은 '괴롭히다'는 뜻으로 대상 2:7에는 '아갈' (히, 아칼)로 되어 있다.

4. ❓ '벨엘' 이란 이름은 언제 생겼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벨엘' (히, 베트엘)은 야곱이 형에서의 낮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뒤 지어진 이름이다.
- (2) 한편 이 지역은 원래 '루스'라고 불리워졌었는데(창 28:19) 여호수아가 영토를 분배할 때 이 땅은 베나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다(수 18:27).
- (3) 그 뒤 벨엘은 사사 시대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나 에브라임 사람에 의해 다시 회복된 후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5. ❓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2절)

- Ⓐ (1) 그는 정탐군에게 벨엘 동편 벨아엔 곁에 있는 아이 성을 정탐하라고 하였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싸움에서 대승(大勝)을 거둔 뒤 자신감에 가득차

서 하나님의 지시도 듣지 않은 채 아이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 (3) 이와 같은 시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안겨다 주었는데(3-5절), 여기서 자만하는 인간의 실패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잠 16:18).

6. ◎ 이스라엘은 아이 성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3-5절)

- Ⓐ (1)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아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은 싸움에 패하여 36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후퇴하였다.
- (2) 한편 그들은 막강한 여리고 성도 함락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아이 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의 병력만 파견하였다.
- (3) 이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도 쉬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참조, 삼상 17:47; 잠 21:30, 31).

7. ◎ 패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6절)

- Ⓐ (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옷을 찢고 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 (2) 한편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낼 때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창 37:34; 민 14:6; 삼하 1:11)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도 이런 자세를 취하곤 하였다(욜 2:13).
- (3)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극도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성도의 실례(實例)를 엿볼 수 있다(사 41:17; 58:9; 65:24).

8. ◎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7절)

- Ⓐ (1)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다나이다’ 하였다.
- (2) 이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였다.
- (3) 이처럼 신실한 자들도 때때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다(참조, 시 6:5).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된 감사 기도로 기도받으시는 자를 회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

9. ◎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8, 9절)

- Ⓐ (1) 그는 주의 크신 이름이 이방 백성에게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 (2) 한편 그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이 기도의 궁극적인 요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신실한 자는 위기에 처해서도 자신에 관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더 염려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찬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마 6:9).

10. ◎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이 성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려 주셨다.
 (2)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해서 자기 기구(器具)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능히 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3) 이것은 이스라엘 패전(敗戰)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 약 1: 13, 14).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말 3:8-10).

11. ◎ '그들이 바친 물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을 뜻한다 (the accursed thing).
 (2) 즉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다.
 (3)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써 (6:19) 그것을 훔친 자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말 3:8-10; 행 5:1-11).

12. ◎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다.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했었다(출 19:10; 레 20:7).
 (3)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해야 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다(참조, 행 22:16; 고전 5:7).

13. ◎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으로 지파, 족속, 가족,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족속으로 나누어지고, 족속이 다시 집, 즉 아비의 집으로 구분되고, 아비의 집은 다시 남자로 구분된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의 사회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고대의 주변 국가와 다를 바 없이 남성 우위의 사회였음을 말해 준다.

14. ◎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범인을 찾아내었는가? (14절)

- Ⓐ (1) 그는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내었다.
 (2) 한편 이 제비뽑기는 목격자의 증언이 없어 범인이 판명되지 않을 때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으로써 (참조, 은 1:7), 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3)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은 토지를 분배하거나(18:8), 사람을 선출할 때에도 사용되었으나 (삼상 14:42)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신다 (잠 16:33).

15. ◎ 제비뽑기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자는 누구인가? (16-18절)

- Ⓐ (1)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2) 한편 아간은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3) 이와 같이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4) 만약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범행을 용서하여 주셨을지도 모르는 일이다(참조. 요일 1:9).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들이켜 보아 자신의 범행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

16. ◎ 아간은 어떻게 해서 자복(自服)하게 되었는가? (19, 20절)

- Ⓐ (1) 그는 죄를 자복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2) 즉 그는 시날 산(產)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重)의 금덩이(약 570g) 하나를 장막 밑에 감춘 사실을 고백하였다.
 (3)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백한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즉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가 발각된 후에 고백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5)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롬 1:18; 2:5).

17. ◎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19절)

- Ⓐ (1) 그는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2)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아들이라 부른 것은 비양거림이나 위선적인 말이 아니라 죽기로 운명지워진 아간에게 지도자로서 신실한 부성애(父性愛)를 보여 준 것이다.
 (3) 이와 같이 아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대했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운명에 처해진 자에게라도 성실한 자세로 대해 주어야 한다.

18. ◎ 아간이 훔친 물건은 무엇이었는가? (21절)

- Ⓐ (1) 그는 시날 산(產)의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重)의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
 (2) 여기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란 바벨론(창 10:10)에서 생산되는 금실과 은실로 섞어서 짠 긴 옷으로 상당히 값비싼 외투를 가리킨다.
 (3) 뿐만 아니라 1세겔(shekel)은 11. 4g으로서 은 이백 세겔은 당시에 노예 6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었다(출 21:31; 례 27:1-7; 마 26:15).

19. ◎ 아간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24-26절)

- Ⓐ (1) 아간은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소유물과 함께 아풀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2) 한편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신 24:16).
 (3)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충동에 의해 그의 가족들까지 희생을 당했다는 학설이 타당한 것 같다.
 (4) 또한 아간은 둘에 맞아 죽은 뒤 불태워졌는데 이러한 사형법은 흔히 살인자나 배교자(신 13:5-10),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자(레 24:10-16),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가해

졌다(민 15:32-35).

20. ◎ 아골 골짜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26절).

- Ⓐ (1) 아골은 ‘괴롭게 하다’는 뜻으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뒤 붙여진 이름이다.
- (2)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명으로도 사용되었는데 (15:7) 그 위치는 여리고 남서쪽에 있는 현재의 ‘엘 브케아’(el-Buqe'ah)이다.
- (3) 한편 이 골짜기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사 65:10과 호 2:15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4) 즉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운 곳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괴로운 세상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머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의 장소로 사용하시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마 6:10).

화보자료

처형당하는 아간. 아래의 사진은 범죄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돌로 처형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서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두루마리」에 나오는 그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지은 자를 처형할 때 대개 돌로써 처형하였는데(25절; 레 20:2; 신 21:21) 이는 팔레스틴에 돌이 흔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제 8 장 이스라엘의 아이 성 점령

단락구분 1. 2. 여호와께서 아이 성 점복을 명하다 / 3. 9. 여호수아가 지시한 전술(戰術) / 10. 17. 이스라엘의 거짓 패배 / 18. 23. 이스라엘의 승리 / 24. 29. 아이 성을 점령하다 / 30. 35. 그리심 산에서 죽복을, 예벌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다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 지니라

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5 나와 나를 죽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7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불이시리라

8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9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벨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 그를 죽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끝짜기가 있었더라

12 그가 오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벨엘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13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끝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찌기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16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 아이와 벨엘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1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9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아와 아이 사람을 죽이고

22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듣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 왔더라

24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25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일만 이천이라

26 아이 거민을 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

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다라

28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30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1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둘에 기록하매

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1. ④ 본장에 언급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는가?

- Ⓐ (1)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써 악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 성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2)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 산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 공의로써 다스리시지만 인간이 회개할 때는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사 30:18).

2. ④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2)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 지도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하셨던 말씀이다(1:9).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 싸움에서 패배하여 낙망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참조, 시 37:5; 68:19; 막 5:36).

3. ④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 뒤에 매복하여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탈취물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고 하셨다.
 (2)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약탈물을 일체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신데 반해(6:21) 아이 성에서는 가축과 탈취물을 취하도록 명령하셨다.
 (3)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은 것을 당신께 모두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23:19).
 (4) 따라서 첫 성인 여리고에서 획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번 째 성인 아이에서 탈취한 것을 가질 수 있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잠 3:9, 10).

4. ◎ 아이 성을 공략(攻掠)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맨 먼저 어떤 전술을 사용하였는가?

(3, 4절)

- Ⓐ (1) 그는 용사 삼만 명을 밤에 아이 성 뒤에 숨기는 매복 전술(埋伏戰術)을 사용하였다.
 (2) 이러한 작전은 상대방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전투 방식으로 고대 세계에서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3) 한편 성경에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가알을 물리칠 때(삿 9:31-40),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삼상 15:4-9) 이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 여호수아는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4절)

- Ⓐ (1) 그는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고 명하였다.
 (2)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예비하라는 말은 성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성을 공격하는데 차질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적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항상 임전 태세(臨戰態勢)를 확고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全身甲冑), 즉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엡 6:11, 12).

6. ◎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한 두번째 작전은 무엇인가? (5, 6절)

- Ⓐ (1)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아이 성 군사와 싸우다 못 이기는 척하고 도망함으로써 적을 유도(誘導)하는 유인 작전(誘引作戰)을 사용하였다.
 (2) 이 작전 역시 상당히 위험한 전술로써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 유인 작전에 앞장 섰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지도자는 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솔선 수범하여 앞장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聖戰)에 참여하여 원수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참조, 딤전 1:18, 19; 딤후 2:3, 4).

7. ◎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한 위치는 어디인가? (9절)

- Ⓐ (1) 그들은 아이 서편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
 (2) 한편 벤엘과 아이 사이의 땅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창 12:8) 벤엘은 아이에서부터 북서쪽으로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다(7:2; 12:9).
 (3) 그런데 이러한 작전은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주간(晝間)에 적이 보는 가운데서 여리고 성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4) 이것을 볼 때 여리고 성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이 성 싸움은 인간의 전술이 결부된 싸움이었다.
 (5)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것이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8. ◎ 여호수아는 언제 작전을 개시하였는가? (10절)

- Ⓐ (1)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고(點考)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백성들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2) 한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개시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3:1; 6:15; 출 8:20; 34:4; 삿 7:1).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뜻

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 12:11).

9. ⓐ 여호수아가 아이 성 근처에 매복시킨 군사는 몇 명인가? (12절)

- Ⓐ (1) 그는 오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2) 한편 본장 3절에서는 삼만 명의 병력이 매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본절의 기사와 차이가 난다.
 (3) 그러나 이 두 귀절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삼만 오천 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에 5천 명의 군사를 몰래 아이 성 서편에 매복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왜냐하면 삼만 명의 군사를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변에 매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Calvin).
 (5)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만의 병력을 다 매복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 성 주변으로 갔던 정예 군사 중에서 오천 명 가량의 군사를 아이 성 서쪽에 매복시켰던 것이다.

10. ⓐ 아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어디까지 왔는가? (14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아라바까지 추격하였다.
 (2) 한편 아라바는 사해의 남쪽 지방을 가리키기도 하며(신 2:8) 요단 강 동편(신 4:49)이나 서편(11:16)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뿐만 아니라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요단 강 끝짜기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삼하 4:7).
 (4) 그러나 여기서 아라바는 요단 계곡 주변에 있는 낮은 지역인 초원 지대나 광야를 가리킨다.

11. ⓐ 이스라엘을 추격한 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17절)

- Ⓐ (1) 그들은 아이와 벤엘에 있던 자들이었다.
 (2) 이것을 볼 때 벤엘도 이 싸움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벤엘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였던 것이다(12:16).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계 18:4).

12. ⓐ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무엇을 신호로 하여 아이 성을 공격하였는가? (18, 19절)

- Ⓐ (1) 복병들은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킬 때 공격을 개시하였다.
 (2) 또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쳐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이 성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다(참조, 26절; 출 17:8-16).
 (4) 결국 이 전쟁은 인간의 계획과 전술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이다.
 (5) 이것을 볼 때 인간이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삼상 17:47; 잠 21:31).

13. ⓐ '아이 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라(20절).

- Ⓐ (1) '무더기', '폐허'라는 뜻을 가진 '아이'는 팔레스틴 중부 지역의 성읍으로 벤엘에서 남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다.
 (2) 한편 '아이'는 여리고, 예루살렘, 및 벤엘과 지역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다(느 11:31).
 (3) 뿐만 아니라 '아이'는 B. C. 3200 - 3000년경에 건설되어 B. C. 3000 - 2500년경인 팔

레스틴 초기 청동기 시대에 가장 번성하였다.

14. ◎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공격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1-23절)

- Ⓐ (1)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불지르고 아이 왕을 사로잡음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 (2) 한편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의 양면 작전(兩面作戰)을 사용하여 아이 군사들을 대파하고 아이 왕을 체포함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였던 것이다.
- (3) 또한 이것은 육적인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전략(戰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마 10:16; 뉴 21:15; 약 4:7).

15. ◎ 이스라엘은 아이 군사들을 어떻게 처부수었는가? (24절)

- Ⓐ (1) 그들은 아이 모든 군사들과 거민(居民)들을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시켰다.
- (2) 여기서 '엎드러지게 하다'(히, 나팔)는 말은 '죽이다'는 의미로서(참조, 신 9:3; 렘 19:7; 갤 6:4, 7) 이스라엘 군사들은 심지어 아이 성의 거민들까지 모조리 죽였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그들이 아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모두 칼날로 죽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신 14:1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출 20:4; 34:17; 레 26:1; 신 7:25; 11:16; 16:22; 시 81:9; 사 42:8; 요일 5:21).

16. ◎ 여호수아는 사로잡은 아이 왕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29절)

- Ⓐ (1) 그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 (2) 한편 시체를 나무에 달는 형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엄중한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로서(신 21:22) 주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가해졌다(참조, 10:26; 민 25:4).
- (3) 또한 이 형벌은 해질 무렵에 중단되어 그 시체는 당일(當日)에 장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주받은 시체가 하루를 넘기므로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신 21:23).
- (4)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들의 관례대로 아이 왕을 처리한 뒤 그 시체를 돌무더기로 덮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말로(末路)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된다(출 20:5; 신 7:10).

17. ◎ 아이 성을 점령한 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30절)

- Ⓐ (1) 그는 예발 산에 한 단을 쌓았다.
- (2) 여기서 예발 산은 그리심 산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이 두 산 사이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 (3) 한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영구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철연장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신 27:1-8).
- (4) 또한 예발 산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선택된 산으로서 여호수아는 이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다(참조, 신 27:15-25).

18. ◎ 이스라엘은 예발 산에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31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燔祭)와 화목제(和睦祭)를 드렸다.
- (2) 여기서 번제는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며(레 1:3-17) 또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다(레 3:1-16).

- (3) 따라서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함께 드려졌다.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대상 16:8; 시 50:14; 92:1; 엘 5:20; 빌 4:6; 골 3:17; 살전 5:18; 딤전 4:4).

19. **Q**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단을 만들었는가? (31절)

- A** (1) 그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단(壇)을 만들었다.
- (2) 즉 그는 제단에 사용되는 돌을 '정'으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나온 돌을 자연 그대로 사용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 (3) 이것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 제단쌓는 것을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진실된 제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진실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면적인 것, 즉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요 4:24).

20. **Q**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32-35절)

- A** (1) 그들의 절반은 언약궤를 멘 레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 산 앞에 또 다른 절반은 맞은편에 있는 예발 산 앞에 서 있었다.
- (2) 또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여인과 아이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3) 한편 이 모든 사람들이 절반씩 나누어져서 한편은 축복의 산 그리심 앞에 또 한편은 저주의 산 예발 앞에 섰다는 것은 축복의 산에 선 자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의 산에 선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심 산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요, 예발 산에 있는 자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 (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의 양자 택일이 있을 뿐 그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1:8; 11:15; 출 9:15; 신 4:30; 5:29; 7:12; 28:1; 왕상 3:14; 육 36:11; 속 3:7; 약 1:25; 요일 3:22).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장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장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8절).

제 9 장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다

단락구분 1-2 가나안의 모든 왕이 동맹(同盟)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자 3-5 기브온 족속이 계략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 / 16-21 기브온 족속을 살릴 규례를 정하다 / 22-27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다

1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 불어 싸우려 하더라

3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 그 발에는 낚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뼈를 예비하고

6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흔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1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12 우리의 이 뼈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13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삼 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 삼 일에 그들의 여려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18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었더라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멀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출 33:12-16)

26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

하게 하니라

27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긴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 ◉ 본장의 주된 사건은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물리치고 물밀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불안을 느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연합하여 군사 동맹을 체결하나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 (2)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히위 족속이 다른 지역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출 34:15-17)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참조, 마 5:33-37).

2. ◉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1절)

- Ⓐ (1) 그곳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大)해변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 (2) 즉 요단 강의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산지와 평지 그리고 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 (3) 여기서 해안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을 가리키며 평지는 산지와 산지 사이, 즉 요단 계곡 안의 낮은 평원을 가리키는 데 이곳은 바다 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다.
- (4) 한편 이 지역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땅으로 이미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곳이다(민 34장).

3. ◉ 기브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3절).

- Ⓐ (1) 기브온은 아이에서 남서쪽으로 11km,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히위 족속의 광대한 성읍이 있었다(참조, 삼하 21:2).
- (2) 또한 기브온은 히위 족속들의 동맹군들이던 다른 세 도시, 즉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에 비해 제일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였으며, 히위 족속의 왕이 거주한 곳이기도 하였다.
- (3) 한편 이 지역은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 멸망당한 뒤 베냐민 지파의 소유가 되었으며 히위 지파의 성읍으로 성별되기도 하였다(18:25; 21:17).
- (4) 그 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 왕의 잘못을 그 일곱 아들들에게 전가시켜 처형시켰으며(삼하 21:1-9) 솔로몬은 이곳에서 일천 번제(一千燔祭)를 드린 후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기도 하였다(왕상 3:4-15).

4. ◉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4-6절)

- Ⓐ (1) 그들은 먼 지역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였다.
- (2) 즉 그들은 해어진 전대(纏袋)와 해어지고 젖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밭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은 채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음으로써 원방(遠方)에서 온 사신처럼 꾸몄던 것이다.
- (3) 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패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화친하여 전쟁을 피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였다.

- (4)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 남았던 유일한 족속이 되었던 것이다(22:27절).
- (5) 이와 같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가올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던 것이다(참조, 마 10:16).

5. **▣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히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7절)**

-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장한 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 줄 눈치채고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하였다.
-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출 23:32; 34:12; 민 33:55; 신 7:2).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원하셨던 것이다.
- (4)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결하게 살면서 당신만 섬기도록 하셨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요일 5:21).

6. **▣ 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누구라고 소개하였는가? (8, 9절)**

- Ⓐ (1) 그들은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다.
- (2) 즉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 (3) 이러한 말투는 그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단순한 예절의 표현이었던 것이다(참조, 창 32:4; 50:18).

7. **▣ 히위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는가? (9, 10절)**

- Ⓐ (1)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명성과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즉 헤스본 왕 시흔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 (2)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요단 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요단 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자신들이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민 21:21-35).
- (3) 이와 같이 그들은 생존과 멸망의 기로(岐路)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전 7:12; 9:18).

8. **▣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여 준 것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들은 마르고 곰팡이 난 떡과 포도주를 담은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자신의 옷과 신을 보여 주었다.
- (2) 이것은 그들이 여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 사람들의 이러한 기만 행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속고 말았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만 급급하여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기만 행위가 만연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명백히 구분하여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잠 14:15).

9. **▣ 여호수아가 히위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것은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난 히위 사람들의 찬폐 때문이었다.

- (2) 한편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 성을 무력으로 정복하였으나 오히려 히위 사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을 쳐부수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적보다 평화를 가장하고 오는, 눈에 띄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 즉 의로운 일군으로 자처하고 나타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고후 11:14, 15).

10. ⓐ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과 어떻게 조약을 체결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들은 히위 사람들의 양식을 취한 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 주겠다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 (2) 한편 양식을 취하는 행위는 히위 사람들이 가지고 온 떡을 나누어 먹었다는 뜻으로 고대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떡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 (3)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 (4) 이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출 23:32).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선 안 되며(약 2:9)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 ⓐ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위 족속들의 성읍을 공격하지 못했는가? (17-20절)

- Ⓐ (1) 그들은 히위 족속들을 살려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히위 족속의 성읍을 공격하지 못하였다(15절).
- (2) 한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켰던 것이다.
 - (3) 그러나 사실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 (4)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이다(참조, 마 5:33-37).

12. ⓐ 왜 이스라엘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하였는가? (18절)

- Ⓐ (1) 그것은 여호수아가 히위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족장들이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던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들의 말에 순응하여 그 잘못을 함께 책임졌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비록 지도자들이 실수하여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지만 그들은 지도자들의 지시에 순종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하여 그 피해가 그들에게 미친다고 해서 지도자들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13. ⓐ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19절)

- Ⓐ (1) 그들은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건드리지 않았다.
- (2)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실수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원망하면서도 지도자들의 지시에 순응하였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히위 족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령 맹세를 통해 약속한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시 15:4)

14. Q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21절)

- Ⓐ (1) 그들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나무 패며 물긷는 자들이 되었다.

(2)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번제용(燔祭用) 화목(火木)을 준비하는 일과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에 필요한 물을 물두명에 채우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3) 원래 성소의 일은 대부분 레위인들이 하였으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브온족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다.

(4)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요청한 결과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복사할 수 있는 직분을 얻었던 것이다.

15. ◉ 기념온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를 솔였는가? (24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이다.

(2) 사실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3) 또한 이것은 라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군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4)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참조, 롬 10:14, 15).

지도자료



기브온과 인근의
성읍들. 1956 - 57
년의 고고학적 발
굴 작업의 결과로
기브온은 현재의 예
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9.6 km 멀어진
엘 짐 (el-Jib) 이라
는 곳으로 밝혀졌다.

제 10 장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다

단락구분 1-5 예루살렘 왕아 네 왕과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다 / 6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다 / 7-11 이스라엘의 침전과 승리 / 12-14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 15-27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섯 왕을 쳐죽여 나무에 매달다 / 28-39 막게다와 일곱 성읍을 점령하다 / 40-43 남부 팔레스틴을 정복하다

1 여호수아가 아이를 쥐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연하되 당신의 종들 독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벨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벨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데다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 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6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8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불이셨느니라 하고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고로

21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 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

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밭으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마

25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27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들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28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쥐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30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불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1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2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불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쥐하고 칼날로 그 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3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5 그날에 그 성읍을 쥐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6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7 그 성읍을 쥐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39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쥐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1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쥐하니라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 ④ 본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아모리 다섯 족속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거민들을 돋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다.
- (2) 한편 아모리 족속들은 같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해한 테 분개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시하였으며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아모리 족속들과 한 번은 싸워야 했기 때문에(출 23:32,33),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기브온 거인을 살려 주기로 맹세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여호수아의 신실한 모습과(9:22-27)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우상은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참조, 출 20:4; 34:17; 례 26:1; 신 7:25; 시 81:9; 사 42:8; 요일 5:21).

2. ◎ 기브온 성을 공격한 자들은 누구인가? (1-5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티파 헤브론 왕 호함파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다.
- (2) 한편 예루살렘에는 아모리 족속이 아닌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족속들은 다윗 시대에 가서야 정복될 정도로 막강한 부족이었다(참조, 삼하 5:6-10).
- (3) 또한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의 왕도(王都)로서 예루살렘 남쪽 26.6km에 위치해 있었으며 야르뭇은 예루살렘에서 12.8km,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8km, 에글론은 예루살렘의 서쪽 해안 평야 지대로 이 성읍들은 모두 예루살렘 근방에 위치해 있었다.
- (4) 그런데 이 성읍의 왕들이 기브온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해한데 대한 보복 조치였던 것이다.

3. ◎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6, 7절)

- Ⓐ (1) 그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
- (2) 여기서 모든 군사와 용사는 이스라엘 전군(全軍)이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 성을 공략할 때 선봉에 나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킨다(참조, 4:12, 13; 8:1).
- (3) 한편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상호 화친 조약(相互和親條約)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공격받고 있는 기브온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참조, 9:15).
-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아모리 족속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을 돕기 위해 원군(援軍)을 보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르는 체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참조, 약 2:15, 16; 요일 3:17).

4.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8절)

- Ⓐ (1)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불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하셨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 (3) 즉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였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창 12:7; 13:15; 15:18; 24:7).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그에게 당신의 뜻,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이다(1:1; 4:1; 5:13-15; 8:1).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갈 3:29; 4:7; 히 6:17; 11:7; 벤전 3:7).

5. ◎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9, 10절)

- Ⓐ (1)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 (2) 즉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격하여 기브온을 위협하던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벤호론에 이르는 길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아모리 연합군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 기브온을 쳐들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도와 이들을 무찔렀던 것이다.

(4) 이것을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삼상 17:47; 잠 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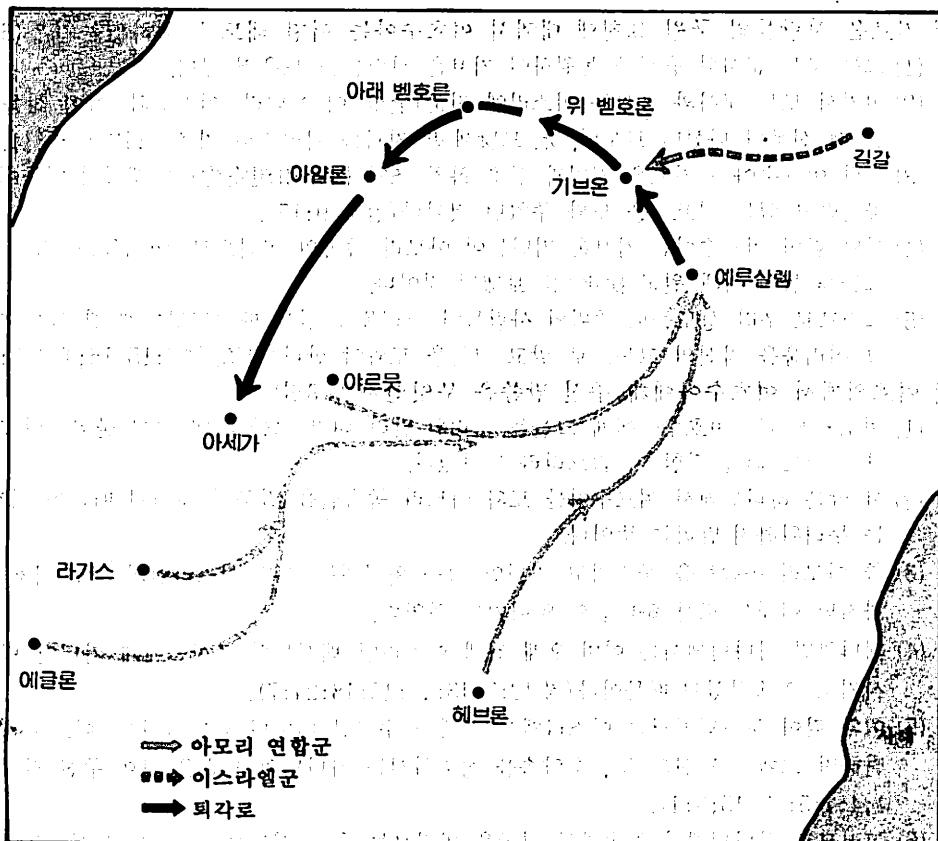
6. ◎ 패배한 아모리 연합군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11절)

Ⓐ (1) 그들은 '벧호론'으로 도망갔다.

(2) 이곳은 아얄론 평야에서 기브온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세벨라 고개 북쪽에 있는 두개로 분리된 산성 동네로서 위 벧호론과 아래 벧호론으로 각각 불리었다.

(3) 또한 위 벧호론과 아래 벧호론 사이에 있는 길을 통해 기브온에서 서쪽 평지로 내려가면 '아세가'와 '막계다'에 이르게 되는데 패배한 아모리 연합군은 이 길로 도망했던 것이다.

(4) 그들의 도주로는 아래 그림과 같다.



7. ◎ 아모리 연합군이 벧호론에서 비탈길로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 Ⓐ (1) 그때는 여호와께서 큰 덩이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셨다.
- (2) 한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박이 자주 내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 우박이 내리게 되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 (3)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자주 우박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출 9:13-34) 이는 우박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겔 38:22; 학 2:17; 계 8:7; 11:19; 16:21).
- (4) 뿐만 아니라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다.

- (5)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망했음을 알 수 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조, 요 3:36; 롬 1:18; 2:8; 엡 5:6; 살전 2:16).

8. ◎ **야살의 책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12-14절)**
- Ⓐ (1) 야살의 책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쳐부술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학설들이 많으나 우리는 여기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여호수아의 외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한다(참조, 시 91:15; 사 41:17; 58:9; 65:24; 렘 33:3; 속 13:9; 뉘 11:9; 요 14:14; 15:7; 요일 3:22).

9. ◎ **‘야살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라 (13절)**
- Ⓐ (1) 야살의 책은 히브리 말로 ‘의로운 차의 책’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위대한 인물이나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즉 이 책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사(戰爭史, 12절)나 고대 영웅들의 무용담(삼하 1:18)이 수록되어 있다.
 (3) 한편 이 책은 그 기원도 불확실하고 오늘날까지 전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전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정의 전성기인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10. ◎ **전쟁에서 패배한 다섯 왕은 어디에 숨었는가? (16절)**
- Ⓐ (1) 그들은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다.
 (2) 여기서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다섯 왕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게다 근처의 한 동굴에 숨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악한 일에 가담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시 2:1-6; 83:1-5; 미 4:9-13).

11. ◎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9-21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쫓겨서 거의 죽임을 당하고 살아 남은 자 몇몇 만이 근처에 있는 성으로 도망갔던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번 다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지 못했던 것이다(참조, 출 11:7).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단 한 사람의 회생도 없이 승리의 개가(凱歌)를 울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Living Bible).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기 때문이다(8절).
 (5)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약 4:7).

12. ◎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은 다섯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22-27절)**
- Ⓐ (1) 여호수아는 그들을 굴에서 끌어낸 뒤 이스라엘 군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게 하고 쳐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무렵에 내려서 그 시체를 굴 속에 집어넣고 들로 그 어귀를 막았다.
 (2)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왕들을 비참하게 죽인 이유는 이것을 보는 이스

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며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이라는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을 대적하여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살전 5:22).

13. ◎ 여호수아는 아모리·다섯 왕을 죽인 뒤 어느 성을 공략하였는가? (28-30절)

Ⓐ (1) 그는 아모리 왕들을 죽인 그날에 막게다를 공격하여 진멸시키고 그 뒤 립나를 공략하였다.

(2) 여기서 막게다는 아모리 왕들이 도망하여 숨었던 곳으로써 이 성읍은 아모리 왕들이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할 때에 함께 진멸되었다(참조, ◎10).

(3) 또한 립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42km 지점인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친 곳이기도 하다(민 33:20).

(4) 한편 립나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뒤 실수로 살인한 자를 구제하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으며(21:13) 그 후 줄곧 이스라엘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참조, 왕하 8:22; 대하 21:10).

14. ◎ 여호수아가 라기스를 공격할 때 라기스를 도와 준 자는 누구인가? (31-33절)

Ⓐ (1) 그는 계셀 왕 호람이었다.

(2) 한편 호람은 라기스 성읍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성읍까지 진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3) 그 뒤 계셀 성읍의 일부분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일부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참조, 삼 1:29; 대상 7:28).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16절; 시 2:1-6; 미 4:9-13).

15. ◎ 계셀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그 뒤 어느 성읍을 점령하였는가? (34-39절)

Ⓐ (1) 그는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을 진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죽였다.

(2) 한편 여호수아는 자신이 점령한 모든 성읍과 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쳐죽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전에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할 소지(素地)가 되는 것은 사전에 뿌리 뽑아야 한다(살전 5:22; 요이 1:10, 11).

16. ◎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은 어디인가? (40절)

Ⓐ (1) 그는 온 땅 곧 산지(山地)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를 점령하였다.

(2) 여기서 온 땅이란 기브온에서부터 가나안 남부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데 '산지'(hill-country)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간 유다의 산지를 말하며 또 '남방'은 남부 사막으로 뻗은 견조한 언덕밭이를 말한다(창 12:9; 13:1; 20:1; 24:62; 민 13:17, 22, 29).

(3) 또한 '평지'는 블레셋 평원과 유대 산악 지대 중간에 있는 낮은 구릉 지대를 가리키며, '경사지'는 유다 땅에서 사해쪽으로 경사진 곳을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부 주요 지역들을 점령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前進基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5) 한편 이것은 영전(靈戰)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될 수 있다.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마귀와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엡 6:10-18; 약 4:7; 베전 5:8, 9).

17. ◎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지역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4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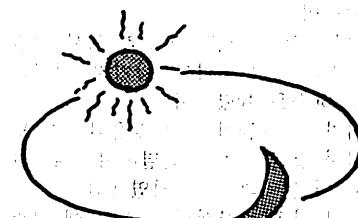
- Ⓐ (1)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지역이다.
 (2)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는 브엘세바 남쪽 80km 지점에 있는 유다의 최남단으로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이다(민 32:8; 신 1:2; 2:14; 9:23).
 (3) 또한 가사는 블레셋의 성읍 중 가장 남쪽에 있으며 헤브론 서쪽 60km 지점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13:3; 삽상 6:17).
 (4) 뿐만 아니라 고센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닌 헤브론 서남쪽 19.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5) 한편 이 지역들은 40절에서 언급된 지역과 다른 곳이 아니라 40절에 나타난 지역들의 범위를 규정해 주는 곳이다.
 (6)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부 팔레스틴의 비옥한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10, 11, 12, 19, 25, 30, 32, 42절).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영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까지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창 39:3; 신 29:9; 대하 26:5; 31:21; 32:30; 느 2:20).

18. ◎ 여호수아가 남부 가나안의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2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2) 한편 '단번에' 취했다는 것은 '단 한번 출정하여' (NIV, in one campaign) 남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말로서 결국 이 말은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3) 즉 여호수아가 이렇게 쉽게 남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4) 이것을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던 것이다.
 (6) 그러므로 약속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싸우는 마귀와의 싸움도 실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출 14:14; 15:3; 23:27; 신 1:30; 3:22; 대하 20:29; 32:8; 느 4:20; 시 24:8; 속 14:3).

본장의 요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13절).



제 11 장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다

단락구분 1-5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태적하다 / 6-9 여호수아의 대승(大勝) / 10-15 하솔 왕과 연합군의 모든 왕이 죽임을 당하다 / 16-20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다 / 21-23 아衲사 람을 멸절시키고 전쟁을 종결하다

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 밥과 시므론 왕과 악살 왕과

2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 와 서방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허위 사람들에게 사람 을 보내매

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 거도 심히 많았으며

5 이 왕들이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름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불여 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7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름 물가로 가서 줍지에 습격할 때에

8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불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죽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끝짜기까지 죽 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죽이고

9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렸더라

10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쥐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11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 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렸으며

12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쥐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3 여호수아가 하솔만 볼살랐고 산 위에 건축

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4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봄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끝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죽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쌔운지는 여러 날 이라

19 기브온 거민 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희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20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태적 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 받은 자 되게 하여 온 해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나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衲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쥐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1)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

합군들이 메롬 물가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격파됨으로써 종식된다.

- (2)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끌어오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짓고 그 땅을 각지 파별로 분배하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많은 역경과 험난한 전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차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참조, 마 7:21; 뉘 8:21).

2. ◎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지역을 간략하게 소개 하라(1-3절).

- Ⓐ (1) 그들은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살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西方)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해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 들이었다.
- (2) 여기서 마돈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6km 지점에, 시므론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 19km 지 점에, 그리고 악살은 시므론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 (3) 또한 북방 산지는 납달리 산지를 의미하며(19:32), 긴네롯 남편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 남쪽의 요단 계곡을 가리킨다.
- (4) 뿐만 아니라 평지는 갈릴리의 산기슭을 말하며 돌(Dor)의 높은 곳은 갈멜 산 용기된 부분 아래 있는 지중해 연안의 바위 능선을 말한다.
- (5) 한편 이외에 언급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가나안 전지역에 흩어져 사는 족속들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가나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가리킨다.
- (6) 위의 사실들에서 볼 때 하솔 왕 야빈은 북부 가나안 전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 하솔 연합군의 전력(戰力)은 어떠했는가? (4, 5 절)

- Ⓐ (1) 하솔 왕 야빈을 주축(主軸)으로 형성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수가 '해변의 모래' 같 았으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4절).
- (2) 한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A. D. 37-100)에 의하면 가나안 군대는 보병 이 30만, 말(馬)이 1만, 병거가 2만 승(乘)으로 구성되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10개국이 넘는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었고 또 야빈 연합군과의 전투는 가나안의 최종 결전(決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규모나 병력에 있어서 엄청난 강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 (4) 결국 이스라엘은 최후의 결전을 눈앞에 두고 엄청난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4. ◎ 여호와께서는 메롬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6절)

- Ⓐ (1)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불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8:1).
- (3)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심 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솔 연합군의 병력과 전투 장비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Q3) 하

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쟁의 승패가 마병의 수자(數字)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왕하 6:14-17; 시 33:16).

5. ◉ 메롬 전투의 결과는 무엇인가? (7-9절)

- Ⓐ (1) 여호수아가 메롬 물가에서 하솔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결과 그들은 큰 시돈과 미스르 봇 마임까지 죽겨 갔고 또 동편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죽겨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
 (2)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탈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
 (3) 이와 같이 하솔 연합군은 자기들의 많은 병력과 특수 부대인 기마병을 자랑하며 그것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 무참하게 참패당한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외형적인 조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참조, 시 9:16).

6. ◉ 왜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는가? (9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최신 병기인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2) 즉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3)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참조, 창 12:2, 7:13:15).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최신식 병기인 말이나 병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그들은 최신 병기를 가진 하솔 연합군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이것을 볼 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잠 3:34; 22:4; 사 57:15).

7. ◉ 하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라(10절).

- Ⓐ (1) 하솔은 북부 가나안의 중요한 왕도(王都)로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성읍은 여호수아에 의해 파괴된 후 다시 사사 시대 때 재건되어(삿 4:2, 17; 삼상 12:9) 이방인의 왕도가 되었지만 통일 왕국 시대 때 솔로몬에 의해 요새화되고(왕상 9:15)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점령되었다.
 (3) 한편 하솔은 북부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성읍으로서 이 성읍은 이번 전쟁에서도 북부 가나안 왕들을 충동질하여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4) 그래서 여호수아는 메롬 전투에서 하솔 연합군을 무찌른 뒤 제일 먼저 하솔 성읍을 불질렀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대적하는 가장 주된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북부 가나안 성읍들이 연합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손을 썼다.
 (6)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非性)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살전 5:22).

8. ◉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지른 때 남긴 것은 무엇인가? (11-15절)

- Ⓐ (1) 그는 하솔의 산 위에 있는 성읍들과 하솔의 재물 및 가축들을 남겼다.
 (2)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다 순종한

행동이라 기록하고 있다(12, 15절).

- (3) 그러나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거민들 모두(신 20:16, 17)와 성 안에 있는 생축(牲畜)을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다.
- (4)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하솔의 일부 성읍과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은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임이 분명하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여호수아의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미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획한 재물과 가축을 취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8:2).
- (6)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9. ⓐ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영토의 범위는 어디인가? (16, 17절)

- Ⓐ (1) 그것은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로 할락 산에서부터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이다.
- (2) 여기서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가리키며(10:40, 41)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는 북부 가나안 지역을 가리킨다(1-15절).
- (3) 즉 이 지역들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인 브엘세바의 남쪽 42km 지점에 있는 할락 산에서부터 북방 한계선인 레바논 평원에 있는 성읍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전지역에 해당된다.
- (4)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난한 역경과 위기를 넘기면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신 4:34; 7:19; 33:27; 시 44:3).

10. ⓐ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는가? (18절)

- Ⓐ (1)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여러 날이었다.
- (2)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말은 꽤 많은 세월이 지났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만에 완료된 것이다.
- (3)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온 갈렙의 당시 나이는 40세로서(14:7)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그의 나이는 78살이었다.
- (4)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뒤 갈렙이 영토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85살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14:10).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7년이란 기간 동안에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6)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사 49:8; 고후 6:2).

11. ⓐ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 남은 족속은 누구인가? (19, 20절)

- Ⓐ (1) 그들은 기브온 거민(居民)인 히위 족속이었다.
- (2) 즉 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지만 그외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였다.
- (3) 한편 여기서 히위 족속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4)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 이 아니라 이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5)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자를 죽이시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시 5:5, 6:34:16; 37:9; 94:16, 17).

12. ⓐ 또 여호수아는 어떤 자손을 진멸시켰는가? (21, 22절)

- Ⓐ (1) 그는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시켰다.
- (2) 여기서 아낙 사람은 주로 가나안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거인 족속으로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창 6:4).
- (3)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에 의해 거인으로 알려져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민 14:1-4).
- (4) 결국 여호수아는 그가 확신한 대로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다.
- (5) 이것을 볼 때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마 8:13; 17:20; 뷔 17:6).

13. ⓐ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한 여호수아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에 착수하였는가? (23절)

- Ⓐ (1) 그는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 (2) 즉 그는 가나안에서 차지한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족속, 가족, 세대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주었다.
- (3)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전부를 다 차지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들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즉 그들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 사업을 중단하였다.
- (4)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었다(삿 1:21, 29-32).
- (5)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과단성 있게 처리해야 할 죄 문제를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여 느슨하게 처리할 경우가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했던 조그마한 죄는 점차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며 또한 우리의 온 인격을 함몰시키고야 만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죄악된 요소에 대해서는 결단성 있는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본장의 요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5절).

제 12 장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서편(東西便)의 왕들

단락구분 1-6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의 두 왕 / 7-24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요단 서편의 31 왕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둘는 편 곧 아르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은 아리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시흔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로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암부 강까지며

3 또 동방 아라바·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 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록까지이며

4 또 르바의 남은 촉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육이라

5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로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흔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6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9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벨엘 곁의 아이 왕이요

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롯 왕이요

11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12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13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렐 왕이요

14 하나는 호르미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15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16 하나는 막제다 왕이요 하나는 벨엘 왕이요

17 하나는 담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18 하나는 이백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19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20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나는 악살 왕이요

21 하나는 다아나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22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23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24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삼십 일 왕이었더라

1. ④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실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11:16-23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의 내용에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한 왕들의 명단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 (2) 뿐만 아니라 본장에는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에 관한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들과 왕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사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 (4)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조, 신 33:29; 대하 25:8; 시 28:7; 40:17; 54:4; 116:6; 사 27:9; 41:10; 50:9; 히 13:6).
- #### 2. ④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지역의 범위는 어디인가? (1절)
- Ⓐ (1) 그곳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 동방의 온 아라바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 (2) 한편 아르논 골짜기에는 모압 땅과 르우벤이 차지한 땅의 경계를 이루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은 자연적 경계선으로 아주 적합하였다(참조, 민 21:13;22:36).

(3) 뿐만 아니라 헤르몬 산은 아람 땅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사시 사철 눈으로 덮혀 있었다.

(4) 또한 '동방의 온 아라바'는 헤르몬 산에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요단 계곡의 동편을 가리켰다.

(5) 따라서 이 땅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정복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요단 동편의 땅이었다(1:12-15).

3. Q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 시흔과 옥의 영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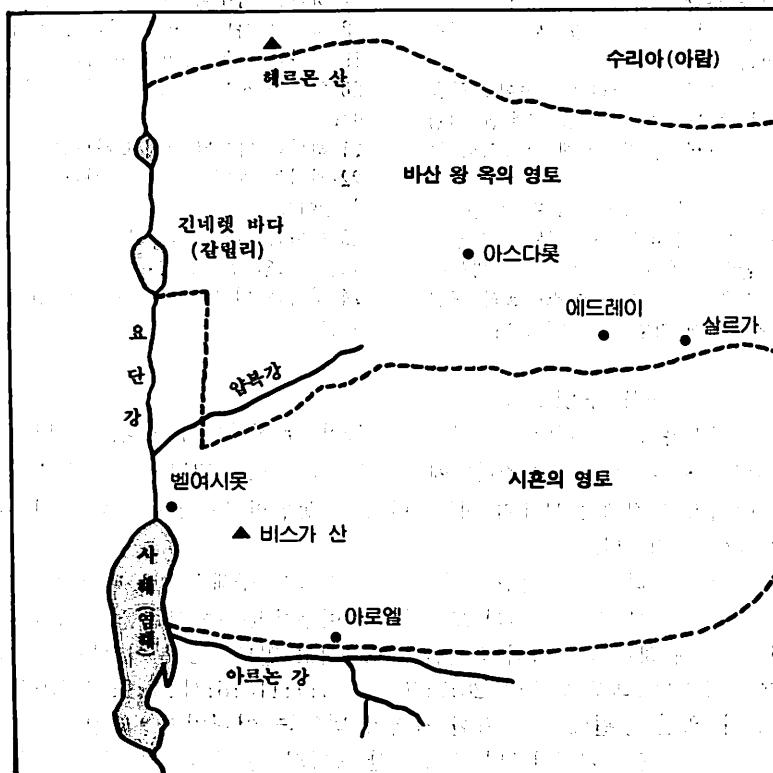
- Ⓐ (1)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압복 강에 이르는 지역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와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과 남쪽으로 비스가 산록(山麓)에 이르는 지역이다.

(2) 즉 시흔 왕의 영토는 남쪽으로 아르논 강, 북쪽으로 압복 강, 서쪽으로 요단 동쪽의 계곡, 동쪽으로 시리아 사막의 경계에 이르는 지역이다.

(3) 한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의 영토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地境) 까지의 길로 약 절반이다.

(4) 다시 말하면 바산 왕 옥의 영토는 동쪽으로 살르가, 서쪽으로 요단 강, 남쪽으로 압복 강, 북쪽으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지역인데 이 헤르몬 산 남서쪽에는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살고 있었다(참조, 신 3:14).

(5) 그 외의 자세한 지역들은 아래 치도를 참조하라.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쳐죽인 왕들은 누구인가? (2-5절)

- Ⓐ (1) 그들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과 이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었다.
- (2) 여기서 시흔은 모암 족속을 쳐부수고 아르는 지역을 탈취한 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을 대적하다 죽임을 당하였다(민 21:21-32).
- (3) 또한 '옥'은 신장이 장대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로서 그는 길이가 4m, 넓이가 1.8m나 되는 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거대한 체구를 가진 자였다(신 3:11).
- (4) 한편 이 두 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나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민 21:33; 신 3:1).

5. ◎ 가나안 동편의 땅을 차지한 자는 누구인가? (6절)

- Ⓐ (1)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다.
- (2) 즉 모세는 가나안 동편에 있던 두 왕 시흔과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이들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이스라엘 형제와 더불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뒤에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민 32:29).
- (3)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비록 그들이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장서서 요단 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도왔던 것이다(4:12).
- (4) 그 후 가나안 정복이 끝난 뒤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13:8-33).

6. ◎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가나안 명의 경계는 어디인가? (7, 8절)

- Ⓐ (1) 그곳은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이다(참조, 10:40-42; 11:16, 17).
- (2) 또한 이곳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 (3) 한편 여기에 나열된 지형들 중에서 10:40-42와 11:16, 17에 언급되지 않은 '광야'는 아라바와 남방(Negeb)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남쪽과 동쪽에 깔려 있는 사마을 가리킨다(Living Bible, the Judean Desert).
- (4)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거된 가나안 족속 중에는 7 족속 중 하나인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는데(참조, 3:10; 신 7:1) 그 이유는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의 하나로 나열만 되었을 뿐 일찌기 주변 족속들에게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7. ◎ 이스라엘이 점령한 남부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을 나열하라(9-16절).

- Ⓐ (1) 그것들은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롯, 라기스, 예글론, 계셀, 드빌, 계델, 호르마, 아랏, 립나, 아들람, 막게다, 베델의 16개 성읍이었다.
- (2) 한편 여기서 나열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2-10장) 이 중에서 계델, 호르마, 아랏, 아들람은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읍이다.
- (3) 즉 계델은 유다 산지에 위치한 성읍(고들 15:58), 벤가델(대상 2:51)과 같은 곳으로 베들레헴 서남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 (4) 뿐만 아니라 호르마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공격하다 패하여 도망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성읍으로(민 14:45; 신 1:44) 스밧이라 불리웠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 사사 시대에 이르러 이 성읍을 완전히 차지하였다(삿 1:17).
- (5) 또한 아랏은 헤브론 남쪽 28km, 보엘세바 북동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아들람은 헤브론 북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들람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으며(참조, 창 38장),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도 역시

아들립이었다(삼상 22:1; 삼하 23:13; 대상 11:15).

8. ◎ ‘담부아’와 ‘헤벨’의 위치는 어디인가? (17절)

- Ⓐ (1) 담부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16:8)으로 세겜 남쪽 12.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엔담부아’라고도 불렸다(17:7).
- (2) 또한 헤벨은 사론 평야에 있는 가나안 성읍으로 가이사랴 남쪽 14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 (3) 뿐만 아니라 헤벨은 솔로몬 당시에 12행정 구역 중 세번째 행정 구역이 되기도 하였다(참조, 왕상 4:10).

9. ◎ ‘아베’와 ‘랏사론’, ‘다아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8-21절).

- Ⓐ (1) 아베은 ‘사론의 아베’과 구별된 가나안에 있는 성읍으로 텔 아비브의 동북쪽 17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교두보(矯頭堡)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삼상 4:1; 29:1).
- (2) 또한 랫사론은 그 장소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사루네’(Saruneh)로 추정되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다아낙은 므깃도의 동남쪽 9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상로(隊商路)의 요충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4) 한편 다아낙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 되었으나(17:11; 대상 7:29) 이들은 다아낙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삿 1:27).

10. ◎ ‘므깃도’와 ‘게데스’, ‘욕느암’의 위치는 어디인가? (21, 22절)

- Ⓐ (1) 므깃도는 현재의 ‘텔 엘 무테셀림’(Tell el-Mutesellim)으로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다(참조, 삿 1:27).
- (2) 뿐만 아니라 게데스는 북부 갈릴리의 구릉 지대에 있던 견고한 성읍으로 납달리 자손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19:32, 37) 납달리 게데스(삿 4:6)라 불리기도 하였다.
- (3) 또한 게데스는 도피성 중의 하나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였는데(20:7; 21:32) 그 위치는 홀레 호수 서북쪽 7km 지점의 구릉지이다.
- (4) 마지막으로 욕느암은 욕모암과 동일한 지역으로(왕상 4:12) 므깃도 서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데 이곳은 스불론 지파에게 속했다가(12:22) 다시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21:34).

11. ◎ ‘길갈의 고임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길갈의 고임 왕’이란 길갈에서 아직 왕국을 형성하지 못한 부족들의 연합체를 대표하는 자라는 말이다.
- (2) 여기서 ‘고임’(민족이라는 뜻)은 왕국을 형성하지 못한 부족들의 연합체를 가리키며, 길갈은 여리고 부근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 아닌 팔레스틴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리킨다(RSV).
- (3) 그러므로 ‘길갈의 고임 왕’은 ‘갈릴리 부족들의 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지역은 모두 몇 개의 성읍인가? (24절)

- Ⓐ (1)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두 31개의 성읍을 점령하였다.
- (2)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16개 성읍과 북부 지역에서 15개의 성읍을 점령함으로써 모두 31개의 성읍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 (3)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했다는 말은 아니며 중요한 대부분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였다는 뜻인 것이다.
- (4)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를 차지해서 그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강요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한다(참조, 마 6:10).

화보자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곳의 왕들을 모두 죽인 것(7-24절)은 매우 잔인한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그들의 사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참조, 신 9:1-5).

제 13 장 미정복지(未征服地)의 범위와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단락구분 1-6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지경(地境) / 7 여호와께서 땅의 분배를 명하시다 / 8-14 요단 동편 땅의 지경 / 15-23 르우벤 지파의 기업 / 24-28 갓 지파의 기업 / 29-31 모낫세 반 지파의 기업 / 32-33 레위 지파의 기업

1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2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3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에 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4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리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匪까지와

5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모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8 모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 곧 아르논 끝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끝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10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11 길로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12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로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13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16 그 지경은 아르논 끝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끝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롯 바알과 벤 바알 모은과

18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19 기랴다임과 심마와 끝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20 벤브울과 비스가 산록과 벤여시못과

21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흔의 온 나라로 모세가 시흔을 그 땅에 거하는 시흔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짐과 술과 흡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22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23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24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5 그 지경은 야셀과 길로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와

26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27 끝짜기 있는 벤 하람과 벤니므라와 숙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흔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28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29 모세가 모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모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30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

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과

31 길로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
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
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32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
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
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
더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부터 마지막 장인 24 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나타나 있다.
- (2) 또한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분배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토지 분배를 명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 위에 새 나라를 건설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참조, 마 6:10).

2. ◎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1절)

- Ⓐ (1)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많이 남아 있었다.
- (2)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년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60-70세를 노년기의 시작으로, 70-80세를 백발기로 80세부터 임종할 때까지를 고령(高齡)으로 보는데,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그가 고령기를 지날만큼 장수하였음을 가리킨다 (참조, 창 18:11; 23:1; 24:1).
- (3)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거의 90-100세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 (참조, 23:1; 24:29) 하나님의 사역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다 (히 13:8).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마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새로운 일군들을 부르시고 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군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혜와 관용이 필요하다.

3. ◎ '남은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남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범위가 이미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 (2) 즉 이스라엘은 능력이 있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땅만 차지하도록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차지해야 할 그들의 영토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창 15:18-21).
-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차지해야 할 사회 각층의 모든 분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들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 차지하지 않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함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대상 29:11; 시 24:1).

4. ◎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全境)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다스리는 곳으로(3절) 그들의 땅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지중해 연안 낮은 지대에 밀접해 있었다.
 (2) 즉 이곳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의 다섯 지역으로써 이 지역은 B.C. 12 세기 무렵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며 살았던 곳이다(참조, 창 21:32, 34; 26:1, 8, 18; 출 13:17).
 (3) 한편 ‘그술 사람의 전경’은 블레셋 남쪽 지경에 살고 있던 그술 사람의 지역으로(비교, 11; 13절; 12:5; 신 3:14) 이 지역은 애굽의 시흘(Shihor)에서부터 북쪽으로 에글론(Ekron)에 이른다.

5. ◎ 시흘 시내와 블레셋의 다섯 성읍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라(3절).

- Ⓐ (1) 애굽의 강으로 불리는 시흘 시내는 애굽과 가사(Gaza) 사이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를 이룬다(창 15:18; 민 34:5).
 (2) 또한 이 강은 ‘애굽 시내’(민 34:5; 전 48:28), ‘애굽 하수’(왕상 8:65; 왕하 24:7; 대하 7:8), ‘애굽의 시흘 시내’(대상 13:5), ‘시흘의 물’(렘 2:18)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3) 한편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가사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교통·통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도시였으며, 아스돗은 철기 문명이 가장 융성했던 곳이다.
 (4) 뿐만 아니라 아스글론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으나 나중에 다시 독립을 행취할 정도로 독립심이 강한 곳이었으며(삿 14:19; 삼상 6:17),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는 르바 족속의 중심지였고(삼상 17:4, 23; 삼하 21:19) 에글론은 블레셋 성읍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다.

6. ◎ ‘그발 사람의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5절)

- Ⓐ (1) 그 땅은 베니게 해안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로서 오늘날 베이루트 북쪽에 있는 ‘예베일’(Jebail)에 해당한다.
 (2) 한편 그발 사람들(Gebalites)은 건축과 조선(造船) 기술이 뛰어나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왕상 5:18; 전 27:9).

7. ◎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내어쫓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모두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다.
 (2) 한편 이 말은 공동 번역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고 번역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이방인들까지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다.
 (3)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참조, 창 12:2, 7; 13:15).

8. ◎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7절)

- Ⓐ (1) 그는 아홉 지파와 브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다.
 (2) 즉 나머지 두 지파 반인 르우벤, 갓, 브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민 32장) 가나안 서편에서는 그들의 분깃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3) 한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땅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의논하여 토지를 분배했던 것이다(14:1).
 (4)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상당히 신중하게 분배했음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땅을 분배하지 않

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했던 것이다.

(6)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편파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신해야 한다(참조, 신 1:16; 16:18; 요 7:24).

9. ◎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은 원래 누구의 영토였는가? (9-12절)

Ⓐ (1)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2) 한편 이 두 왕이 차지했던 땅의 경계는 남으로 아르는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또 서쪽으로 요단 강에서부터 동쪽으로 살르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3) 또한 이 지역에 속하는 중요한 성읍으로는 헤스론과 르바 족속의 성읍인 아스다롯 및 에드레이가 있었다(참조, 12장 ◎4).

(4)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민 32:33-42과 수 12:2-5에 언급된 것으로 이것을 본장에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언급된 땅의 분배가 이제 확정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10. ◎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누구인가? (13절)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 한편 그술과 마아갓은 갈릴리 바다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 강 상류의 동편에 있는 아람의 소국(小國)들로 마아갓의 북동쪽 경계는 헤르몬 산이며, 그술의 남동쪽 경계는 바산 왕국이었다.

(3)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요단 동편의 땅을 설명하는데만 언급되었을 뿐(12:5; 신 3:14)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거나 분배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4)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5) 뿐만 아니라 그술은 나중에 다윗을 피해 도망온 압살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다(참조, 삼하 3:3; 13:37, 38; 대상 3:2).

11. ◎ 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는가? (14절)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火祭物)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즉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내는 십일조와 첫 열매를 포함한 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참조, 레 27:30-32; 민 18:21-32).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33절; 민 18:20) 레위인들은 오직 회막에서 봉사하며 희생 제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4) 결국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는 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의 생계를 돌보아 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참조, 신 25:4; 고전 9:7-10).

12. ◎ 르우벤 자손의 기업은 어디인가? (15-23절)

Ⓐ (1) 르우벤 자손의 분깃은 본장 15-23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남쪽으로 이르는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헤스본에 이르는 모든 성읍들이 있다.

(2) 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 강(23절)인데 동쪽 경계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르우벤 자손의 기업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되었는데(민 21:24-32; 32:37, 38; 신 3:12, 16, 17)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가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도 움의 손길을 뗀 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대상 16:8, 34; 시 50:14; 92:1; 엘 5:20; 벌 4:6; 클 3:17; 살전 5:18; 딤전 4:4).

13. ◎ 모세가 시흔을 쳐죽일 때 함께 죽인 자들은 누구인가? (21절)

- Ⓐ (1) 그들은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진과 술파 홀과 레바였다.
 (2) 한편 이 다섯 귀족은 원래 미디안의 다섯 왕이었으나(민 31:8) 이들은 아모리 왕인 시흔의 공격을 받아 시흔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흔의 방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3) 그 후 모세가 시흔의 성읍을 공격할 때 이들 다섯 왕은 시흔을 도와 이스라엘 군사를 방어하다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세상에는 그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참조, 잠 21:3; 사 56:1).

14. ◎ 이스라엘 자손이 시흔의 방백들을 죽일 때 함께 죽였던 자는 누구인가? (22절)

- Ⓐ (1) 그는 브울의 아들 술사(術士) 발람이었다.
 (2) 한편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 사는 유명한 점술가로(민 22:5-7; 신 23:4) 그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과 친분을 맺도록 제안하였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민 25:1-9; 31:8, 16, 17; 계 2:14).
 (3) 이처럼 발람이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그가 물질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이다(민 22:7, 8).
 (4) 결국 발람은 물질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모세가 시흔 왕을 죽일 때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5) 이것을 볼 때 물질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딤전 6:10).

15. ◎ 모세가 갓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은 어디인가? (24-27절)

- Ⓐ (1) 갓 지파의 땅은 르우벤 지파의 북쪽 경계에서 동으로는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며, 북으로는 암복 강 바로 위에 있는 마하나임, 숙곳을 거쳐 사본, 드빌, 갈릴리 바다 남단에 미치는 요단 계곡 지대이다.
 (2) 여기에 해당하는 성읍들은 25-27절 사이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단 강 동편에 있는 계곡 지대이다.
 (3) 왜냐하면 원래 이 지역은 위치상 모낫세 반 지파의 땅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암복 강에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는 요단 동편 지역에는 큰 산맥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형상 갓 지파의 땅으로 포함된 것이다.

16. ◎ 이스라엘의 차지한 암몬 자손의 땅은 어디인가? (25절)

- Ⓐ (1) 그 땅은 랍바 앞의 아로엘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2) 여기서 '랍바 앞의 아로엘'은 아르논에 있는 르우벤의 아로엘과 구별되는 지역으로 아르논과 암복 강 사이에 있는 암몬 자손의 땅이었다.
 (3) 한편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예인(창 19:30-39)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하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신 2:19, 37) 이스라엘이 암몬 지역의 땅을 절반이나 차지한 것은 이 땅이 시흔의 영토로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그 후 암몬 자손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많은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참조, 샷 11:4-33).

17. ◎ 모세가 모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은 어디인가? (29-31절)

- Ⓐ (1)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였다.
- (2) 즉 이 땅의 범위는 남쪽으로 마하나임에서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요단 계곡 동편 산지에서 길르앗 북부와 갈릴리 바다 동북편에 이르는 바산의 전지역이었다.
- (3) 한편 이 지역은 므낫세의 아들 중 야일과 마길에게 분배되었는데 야일은 자신이 받은 성읍에 자기 이름을 붙여 하봇 야일 (신 3:14)이라 불렀으나 훗날 이 땅은 그술과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대상 2:22, 23).
- (4) 그외에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받았던 것이다 (17:1-21).

18. ⓒ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33절)

- Ⓐ (1)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2) 즉 이것은 오늘날 배금주의(拜金主義)에 빠져서 성직자의 소명(召命)과 책무(責務)를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교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인 것이다.
- (3) 또한 이것은 성직자들이 교회의 재정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4) 결국 이것을 볼 때 성직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릅 3:15; 요 21:17; 행 20:28; 베전 5:2).

연구자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언약과의 관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사실로부터 (창 15:18)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면서 이 언약은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창 17:1-9). 모세와 맺어지면서 그 내용이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되어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경우에 받을 축복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저주가 나란히 등장하게 된다(참조, 1:5-9; 신 28-30장). 이러한 언약의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은 이미 '주어진' (1:3) 것이었으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 14 장 갈렙이 기업을 요구하다

단락구분 1·5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다 / 6·12 갈렙이 아닌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다 / 13·15 여호수아가 갈렙의 청원을 허락하다

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
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
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
으니

3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
편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
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
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
축과 재물을 둘 둘만 줄 뿐으로

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
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6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
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
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
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빽성의 간
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즉 네 발로 밟
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
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 때나 이제나 일반
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
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
에는 아닌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
이며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
는 아닌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 ①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과 갈렙의 기업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2) 한편 갈렙은 가나안 정복 사업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많은 공을 세운 일등 공신(一等功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어렵고 험난한 아닌 자손의 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갈렙이 아닌 자손의 땅인 헤브론이 탐나서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창 12:2, 7; 13:15)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참조. 마 6:10, 33; 14:1-12).

2. ②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기업을 분배한 자들은 누구인가? (1절)

- Ⓐ (1) 그들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 (2) 여기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째 아들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그의 두 형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레 10:1, 2; 민 3:2).
- (3) 또한 그는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앉수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으며(민 27:22, 33)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4) 한편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도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여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였다(참조, 민 34:18-28).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을 기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만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항상 의논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3.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는가? (2절)

- Ⓐ (1)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나누었다.
- (2)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써(민 26:54-56) 절령한 지역을 제비뽑기로 나누는 풍습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 (3)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1:8; 삼상 15:22; 렘 7:23).

4. ◎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자는 몇 지파인가? (2-4절)

- Ⓐ (1) 그들은 아홉 지파 반이었다.
- (2) 한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눈 자들은 아홉 지파 반이었다.
- (3) 그러나 이 9지파 반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13:14, 33) 결국 8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요셉의 지파는 모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은 여전히 9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었다.
- (4) 여기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구분된 것은 야곱이 임종시에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모낫세와 에브라임을 따로 구분하여 축복하였기 때문이다(창 48:8-22).
- (5)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는 13지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할 때 레위 지파는 항상 제외되기 때문에(참조, 민 34:17-28) 결국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었다.

5. ◎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레위 지파는 그들이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들(野)만 받았다.
- (2) 즉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방목(放牧) 할 초지(草地)는 받았던 것이다.
- (3)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여섯 개의 도피성(逃避城)을 포함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사면(四面)의 목축지를 받았다(20, 21장).
- (4) 그런데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영토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이

스라엘이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運命共同體)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결속시키면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 (6)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성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도심지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한다(참조, 마 28:19, 20; 행 1:8).

6. ◎ 갈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라(6절).

- Ⓐ (1)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
- (2)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야에 머무를 때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군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적이 있었다(민 13:7).
 - (3) 그 후 10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스라엘 군중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민 14:10) 그들은 위기를 피하여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민 14:24, 30, 38; 26:65).
 - (4)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다(민 13:22).
 - (5) 이와 같이 갈렙은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참조, 창 12:2, 7; 13:15)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겠다(행 14:22; 살후 1:5).

7. ◎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할 때 그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7절)

- Ⓐ (1)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 (2) 여기서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는 말은 '나의 신념대로' (NIV, according to my convictions)라는 뜻인데 이것은 갈렙이 양심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출 3:8)을 의지하고 양심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민 14:10).
 - (4) 이것을 볼 때 악한 세상에서 양심껏 행동하는 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마 10:16-18; 요 15:20; 딤후 3:12).

8. ◎ 갈렙이 앞에서 정탐 결과를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8절)

- Ⓐ (1) 그것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죄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온전히 죄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죄았다는 뜻으로 갈렙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실을 말했던 것이다(민 14:10).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실을 외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암 7:10-17; 마 14:1-12).

9. ◎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9절)

- Ⓐ (1) 모세는 갈렙에게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죄았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였기 때문에(민 13:32)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마음대로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넓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요구하지 않고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였다.
- (4) 결국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양보하고 자신은 남들이 택하기 싫어하는 혐난한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갈렙의 신앙인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참조, 마 19:21; 고전 10:24; 13:5; 빌 2:4).

10. ◎ 땅을 분배할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10절)

Ⓐ (1) 그는 85세였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는데 (7절) 그 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7년간 정복 전쟁을 치른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다(참조, 11장 ◎ 10).
- (3) 그런데 갈렙은 자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뒤 45년 동안을 더 살아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다.

- (4) 결국 갈렙은 자신의 혐난한 인생을 지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생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며 그 인생의 결말을 당신의 의지에 두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참조, 시 33:13, 14).

11. ◎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땅은 어떤 곳인가? (12, 13절)

Ⓐ (1)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건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산간 진영이다.

- (2) 여기서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인 네피림 후손으로(민 13:33) 이스라엘 정탐군들은 이들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예루미처럼 왜소(矮小)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들은 거골(氣骨)이 장대(壯大)한 차들이었다(민 13:33).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자기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턱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산 땀음이다(참조, 잠 13:13).

12. ◎ 헤브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봐(14, 15절).

Ⓐ (1)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기럇 아르바'였다(15:13; 창 23:2; 35:27; 삼 1:10).

- (2) 여기서 '아르바'라는 이름은 '안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Living Bible, a great hero of the Anakim) 또는 '아낙의 아비' (15:13; NIV, the forefather of Anak)를 가리켰다.

- (3) 이를 볼 때 헤브론에는 과거에 아르바라는 턱월한 통치자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한편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있는 요단 서쪽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이의 무덤이 있었다(창 23:2; 25:9; 49:31; 50:13).

(5) 그 후 이 땅은 갈렙이 침병하여 유다 지파가 차지하였으나(15:13; 삼 1:10)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으로 주어졌다(20:7; 21:13).

42 립나와 에델과 아산과
 43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파
 44 그일라와 악십파 마레사니 모두 아홉 성읍
 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45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47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
 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가에 이르기
 까지였으며
 48 산지는 사밀과 앗털과 소고와
 49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50 아남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51 고센과 훌론과 길로니 모두 삼일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52 아람과 두마와 예산파
 53 야님과 벤 담부아와 아베가와

54 흄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을이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55 마온과 갈멜과 십파 웃다와
 56 이스르엘과 육드암과 사노아와
 57 가인과 기브아와 딤나니 모두 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58 할흘과 벤 술과 그들과
 59 마아랏과 벤 아놋과 엘드곤이니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60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파니 모두
 두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61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멏딘과 스가가와
 62 낭산과 염성과 엔 게디니 모두 여섯 성읍
 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63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
 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라.

- Ⓐ (1) 본장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지대를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가장 기름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모를 취한 야곱의 장자 르우벤(창 49:1-4) 대신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장자권을 계승하기 원하셨던 것이다(참조, 창 49:8-12).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요충지(要衝地)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 (5)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신 7:9; 사 49:7; 호 11:12).

2. ◎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어디인가? (1-4절)

- Ⓐ (1)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극남단(極南端)은 예돔 지경에서 신 광야에 이르는 지역이다.
- (2) 즉 사해(死海)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브엘세바 남쪽 90km 지점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아그람빔 비탈(the ascent of Akrabbim)과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 (3) 한편 이 남쪽 경계선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지역인데(민 34:3-5)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돔 지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신 2:4-18).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야곱의 형인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예돔 지역은 전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 (5)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피를 나눈 형제 나라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한 피를 나눈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 교회는 이러한 일을 대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참조, 마 5:45; 롬 10:12).

3. ◎ 유다 지파의 동편 경계는 어디인가? (5절)

- Ⓐ (1)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동편 경계는 염해이다.

- (2) 즉 이곳은 사해의 서안(西岸)으로 요단 끝 끝 요단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입구 까지를 말한다.
- (3) 한편 성경에서는 염해(창 14:3; 민 34:3)를 아라바 해(12:3; 신 3:7; 왕하 14:25), 동해 (겔 47:18; 수 14:8), 바다(겔 47:8; 암 8:12; 미 7:12)라고도 불렀다.

4. ◎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북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라(5-11절).

- Ⓐ (1) 그곳의 북쪽 경계는 요단 강 끝 하구(河口)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베냐민과 단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한다.
- (2) 한편 이 경계선을 지나는 주요 지역으로는 여리고 남동쪽 10km 지점에 있는 '벤흐글라', 여리고 남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벨 아라바', 여리고의 남쪽에 위치한 '아골 골짜기' (7:21-26),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드빌'이 있다.
 - (3)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예루살렘 북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엔 세메스' 예루살렘 남쪽 힌두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엔로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여부스가 있다.
 - (4) 뿐만 아니라 이 경계선은 예루살렘 북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한 '기럇여아림', 베들레헴 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딤나' (참조, 창 38:12-30), 예그론 북편에 있는 '얌느엘'을 지나 읍바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바다에 이른다.

5. ◎ 유다 자손의 서쪽 경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12절).

- Ⓐ (1) 그들의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다.
- (2) 즉 그 서쪽 경계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당시에 유다 자손은 지중해 연안의 평지인 블레셋의 다섯 성읍(참조, 13:3)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다(참조, 대하 26:6, 7).
 - (3) 이와 같이 유다 자손들은 비록 블레셋 지역을 다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여겼다.
 - (4) 결국 그들의 믿음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약속된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조, 삼상 8:56; 롬 4:21; 고후 1:20; 7:1).

6. ◎ 갈렙이 헤브론에서 쫓아낸 자들은 누구인가? (13, 14절)

- Ⓐ (1) 그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뒤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곤 그의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딸매를 쫓아내었다.
- (2) 한편 성경에서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여호수아(11:21, 22)와 유다 자손(삿 1:10)으로 각각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팔레스틴 남부 지역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북방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아낙 자손은 다시 헤브론을 차지하였으며 그 후 갈렙이 이 지역을 재점령할 때 아낙 자손들을 다시 한번 더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건은 본서 11장의 사건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그 다음에 차지한 곳은 어디인가? (15, 16절)

- Ⓐ (1)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뒤 계속해서 드빌을 공격하였다.
- (2) 한편 드빌은 '학자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은 문화의 첨단을 걷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3) 이러한 제안은 고대 사회에서 큰 공을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풍습으로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의 땅 메랍을 주기로 약속한 사건은 유명하다(참조, 삼상 17:25; 18:17).

8. ◎ 갈렙과 웃니엘은 어떤 사이인가? (17절)

Ⓐ (1) 웃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

- (2) 즉 웃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과 70인역 (LXX)에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형제'(Othniel the son of Knnaaz, the brother of Caleb)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알 수 없다.
- (3) 이에 반해 영어 성경 Living Bible에는 웃니엘을 '갈렙의 조카' (Caleb's nephew)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또 공동 번역에는 '그의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과 동기간이었다'라고 번역하므로 갈렙과 웃니엘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4) 또한 삼 3:9에서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웃니엘은 갈렙의 조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9. ⓒ 갈렙의 땅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악사는 갈렙에게 밭과 또 다른 복, 즉 샘물을 요구하였다.
- (2) 즉 악사가 요구한 밭은 웃니엘이 차지한 드빌 성읍 이외의 다른 밭을 말한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전쟁에서 그 성읍을 차지한 자에게 그 성읍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3) 또한 악사는 이미 얻은 남방 땅, 즉 사막 땅(참조. 시 26:4)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 어디나 댈 수 있는 샘물을 요구하였다.
 - (4) 한편 고대 사회에서 토지의 분배는 아들에게 우선권을 두었는데 악사는 자신의 결혼 선물을 빙자하여 더 많은 토지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 (5) 여기서 남편의 재능과 부친의 아량을 믿는 아녀자의 무절제가 드러나고 있다(Calvin).

10. ⓒ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크게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21-62절).

- Ⓐ (1) 이 성읍들은 크게 남방(21-32절), 평지(33-47절), 산지(48-60절), 광야(61, 62절)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 (2) 또한 유다 지파의 영토는 120여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읍들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18:21-28), 시므온 지파(19:2-9), 단 지파(19:40-46)의 성읍이 확정되면 서 더 보충되었다.
 - (3) 유다 지파의 자세한 지명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절 수	지 명	위치 및 동일 지명	참조 구절	공 통 점
남부에 있는 성읍들	21	감 스 엘	브엘세바의 북동쪽	느 11:25	9개의 성읍으로 된 제1 그룹
	"	에 멜			
	"	야 글	브엘세바 동쪽 14km		
	22	기 나	아랏 근처		
	"	디 모 나	디본	느 11:25	
	"	아 다 다	브엘세바 남동쪽 20km	삼상 30:28	
	23	게 테 스	가테스 바네아로 추측됨		
	"	하 슬	가테스 바네아 근방		
	"	잇 난	브엘세바 남쪽 애굽 강 상류		

남부에 있는 성읍들

24	심	에돔 근방	심상 15:4 19:18	5-6개의 성읍으로 된 제 2 그룹
	멜 램	들 라 임		
	브 알 롯	브알랏 브엘		
25	하솔 하맛다	엘 후다이라의 폐허		9개의 성읍으로 된 제 3 그룹
	그리옷	아랏 북쪽		
	헤스론	14 km		
26	아 맘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세 마	브엘세바 서쪽 15 km		
	몰 라 다	헤브론 남쪽 32 km		
27	하 살 갓 다	유다 남쪽으로 추측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헤 스 몬	"		
	벤 벨 렛	브엘세바 남동쪽 14 km		
28	하 살 수 알	브엘세바 남동쪽 2 km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브 엘 세 바	헤브론 남서쪽 43 km		
	비 스 요 다	브엘세바 부근		
29	바 알 라	브엘세바 남동쪽 11 km	19:13 대상 4:29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이 임	브엘세바와 헤브론 사이		
	에 셈	브엘세바 남동쪽 17 km		
30	엘 돌 랏	브엘세바 남동쪽 20 km	대상 4:29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그 실	브엘세바 북동쪽 8 km	19:4 대상 4:30	
	훔 마	호 르 마 스 랍	12:14 삿 1:17	
31	시 글 락	브엘세바 북쪽 17 km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맛 만 나	시글락 동쪽 7 km		
	산 산 나	브엘세바 북동쪽 15 km		
32	르 바 웃	벤르비온 벤 비 리	19:6 대상 4:31	네게브 서면에 있는 13개 성읍
	실 힘	사 투 헨 사아라임	19:6 대상 4:31	

평 지 에 있 는 성 읍 들	32	아 인	브엘세바 북동쪽 14 km	
	"	림 몬	에느립몬 사클락 남쪽 1.5 km	느 11:29
	33	에스다울	소라 동북 2 km	
	"	소 라	예루살렘 서쪽 23 km	
	"	아 스 나	유다 북쪽 평원 지대	
	34	사 노 아	헤브론 남서쪽 12 km	
	"	엔 가 님		
	"	답 부 아	소고 근처	
	"	에 남	에나임	창 38:14
	35	야 르 뭇	사노아 남서쪽 3 km	
	"	아 들 람	헤브론 북서쪽 16 km	
	"	소 고	아세가 남동쪽 4 km	
	"	아 세 가	소고 맞은편	
	36	사 아 라 임	소고의 서쪽 근처	
	"	아 디 다 임		
	"	그 데 라	예루살렘 서쪽 25 km	
	"	그데로다임		
	37	스 난	사아난 라기스 북서쪽 6 km	미 1:11
	"	하 다 사	에글론 북쪽 4 km	
	"	믹 달 갓	라기스 남동쪽 11km	
	38	딜 르 안	라기스 남서쪽 12 km	
	"	미 스 베	라기스 서쪽	
	"	옥 드 엘	유다 서쪽 평지	
	39	라 기 스	예루살렘 남서쪽 45 km	
	"	보 스 갓	라기스 근처	
	"	에 글 론	라기스 서쪽 11 km	

언덕 지역
이나 경사
면의
북편에
있는
15개
성읍

언덕 지역과
블레셋인이
차지한
해안선
사이에
있는
16개
성읍

평 지 에 있 는 성 읍 들	40	갑 본	에글론 근처	언덕 지역과 블레셋 인이 차지한 해안 선 사이에 있 는 16개 성읍
	"	라 ம	라기스 동쪽 4 km	
	"	기들리스		
	41	그 데 롯		
	"	벤 다 곤	욥바 남동쪽 9 km	
	"	나 아 마	에그론 동쪽 8 km	
	"	막 게 다	사노아 북서쪽 5 km	
	42	립 나	에그론 남쪽 7 km	
	"	에 델	립나 남서쪽 8 km	
	"	아 산	브엘세바 북서쪽 2 km	
산 지 에 있 는 성 읍 들	43	입 다	라기스 동쪽 10km	언덕 지역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 9 개 성읍
	"	아 스 나	헤브론과 라기스 사이	
	"	느 십	입다 남쪽 2 km	
	44	그 일 라	입다 북쪽 2 km	
	"	악 십	그일라 북서쪽 4 km	
	"	마 레 사	그일라 서쪽 11km	
	45	에 그 론	게센 남서쪽 9 km	
	46	아 스 돗	가사와 욥바 사이	블레셋의 해안에 있는 성읍들
	47	가 사	브슬 강 하구	
	48	사 밀	드빌 남동쪽 3km	산지의 남서쪽에 있는 11개 성읍들
	"	앗 딜	시글락 동쪽 16km	
	"	소 고	헤브론 남서쪽 16km	
	49	단 나	드빌 동쪽 8 km	
	"	기 랏 산 나	헤브론 남서쪽 20km	
	"	드 빌	기럇산나 기럇세벨	
	50	아 남	드빌 남쪽 5 km	
	"	에 스 드 모	에스드모아	

산 지 에 있 는 성 음 들	50	아 님	헤브론 남쪽 13km	6:5, 7	전자의 북쪽인 헤브론 주변의 9개 성읍들
	51	고 센	에스드모 남쪽 7km		
	"	흘 론	아남 동쪽 2km		
	"	길 로	힐 렌 딤나 남서쪽 5km		
	52	아 랍	그일라 동쪽 5km		
	"	두 만	헤브론 남서쪽 11km		
	"	에 산	예산 동쪽 2km		
	53	야 님	사밀 동쪽 3km		
	"	벤답부 아	현재의 타푸(Ta'�uh) 헤브론 서쪽 6km		
	"	아 베 가	헤브론 남서쪽 5km		
	54	훔 다	헤브론 근처		
	"	헤 브 론	예루살렘 남쪽 30km		
	"	시 음	헤브론 북동쪽 7km		
	55	마 온	갈멜 남쪽 2km		
	"	갈 멜	헤브론 남쪽 11km		
	"	심	헤브론 남동쪽 6km		
	"	웃 다	헤브론 남쪽 9km		
	56	이스르엘	헤브론 남서쪽 9km		전자의 두 지역 동쪽에 있는 사막 근처의 10개 성읍들
	"	욕 드 암	헤브론 남쪽 12km	대상 2:44	
	"	사 노 아	헤브론 남서쪽 12km		
	57	가 인	헤브론 남동쪽 6km		
	"	기 브 아	심·갈멜 부근		헤브론의 북쪽 또는 마지막 두 지역의 북쪽 지대에 해당하는 6개 성읍들
	"	딤 나	베들레헴 서쪽 15km		
	58	할 흘	헤브론 북쪽 6km		
	"	벤 술	할흘 북쪽 1km		
	"	그 들플	벤술 북쪽 4km		
	59	마 아 랗	헤브론 북쪽 9km		
	"	벤 아 놋	헤브론 동쪽 5km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두 성읍
	"	엘 드 곤	베들레헴 서쪽 9km		
	60	기 랫 여아림	기랫, 바알레 유다, 바알라, 기랫, 바알	18:28; 삼하 6:2; 수 15: 9; 15:60	
	"	라 빠	예루살렘 서쪽 8km		
	61	벤 아라 바	여리고 남동쪽 5km		
	"	맛 딘	사해 북부 서안의		

광야에 있는 성읍들	61	스 가 가	서쪽 7km 맞던 남쪽 3km	유다의 광야에 있는 6개 성읍들
	62	님 산	스가가 남쪽 1km	
	"	염 성	맞던에서 사해쪽 4km	
	"	엔 케 디	사해 중부 서안	

(4) 한편 위의 도표에서 볼 때 유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21-32절) 모두 36개인데 반해 성경에서는 29개 성읍(32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유다의 평지에 있는 성읍 중 언덕 지역이나 경사면의 북편에 있는 성읍은 15개인데 반해 성경은 14개 성읍 이라(36절) 밝히고 있다.

(5) 이러한 모순들은 필사자(筆寫者)가 수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자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 실수이다(Keil).

11. ◎ 유다 자손들이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은 누구인가? (63절)

- Ⓐ (1) 그들은 영토를 분배받을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 (2) 한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테이 아모리 왕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지 않았다.
- (3) 그 후 예루살렘 성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의해 정복되었으나(삿 1:8) 이들은 이스라엘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동안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 하였다(삿 19:11, 12, 21).
- (4) 결국 예루살렘 성의 여부스 거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곁에 살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점령당했던 것이다(삼하 5:6, 7).

연구자료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본장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 지역으로서 중앙 고원 지대와 그에 연속한 골짜기들, 곳곳의 구릉(丘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은 트여진 군사적 취약 지구이며 동쪽은 사해와 유대 광야, 서쪽에는 구릉과 계곡들이, 남쪽으로는 네게브(Negeb) 사막이 있다. 이 기업(基業)의 중심지는 벨엘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중앙 고원 지대로서 고원 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위치하고 있다. 고원 지대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으며 고원이 지중해 쪽으로 완만하게 내려간 곳에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고오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농사와 목축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중해식 농업이 가능했고 그 농산물로 포도, 올리브(olive) 등이 생산되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적인 무대가 되었으며 그 성읍들도(21-63절) 역시 많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제 16 장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단락구분: 1-4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땅 / 5-9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의 경계선 / 10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의 땅에 함께 거하다

1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벤엘에 이르고

2 벤엘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벤 호론 곧 제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4 요셉의 자손 모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5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벤 호론에 이르고

6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빅모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7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8 또 담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르하였고

9 그 외에 모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10 그들이 제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 Q 본장에 기록된 내용 중 중심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모낫세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과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신 7:1-26)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것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창 24:35; 삼하 6:11; 왕상 3:13; 시 65:9; 107:38).

2. Q 요셉 자손이 차지한 기업의 경계는 어디인가? (1-4절)

- A (1) 요셉 자손이 차지한 가나안 중앙 지역은 남쪽으로 단파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과 일치하며, 북쪽으로 아셀, 스불론, 잇사갈 지파와, 또 동쪽으로 요단 강과 서쪽으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이다.
- (2) 한편 요셉 지파는 야곱이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낫세에게 축복함으로써 두 지파의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창 48:5) 여기서는 요셉 지파가 하나의 제비만을 뽑았다.
- (3) 그 이유는 요셉 지파 중 모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다(13:29-31).
- (4) 결국 요셉 지파가 뽑은 땅은 에브라임과 모낫세의 남은 반 지파가 나누게 되었다.

3. ⓐ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땅의 남쪽 경계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1절)

Ⓐ (1) 요셉 자손이 얻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2) 여기서 '여리고 물' (water of Jericho)은 현재의 '에스 술탄' (es Sultan)이라는 샘 물인데 이 샘에서 나온 물이 실개천을 이루어 평지를 지나 요단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3) 한편 여기서부터 시작된 남쪽 경계선은 광야와 산지를 지나 벤엘에 이르게 된다.

(4) 즉 요단에서 시작된 남쪽 경계선은 벤아웬 광야(18:12)에서 여리고 옆 산악 지대를 거쳐 예루살렘 북쪽 19.2km 지점에 있는 벤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4. ⓐ '벤엘'과 '루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2절).

Ⓐ (1) '루스'는 '벤엘'의 옛 이름으로서 벤엘과 루스는 동일한 지역이다.

(2) 왜냐하면 루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야곱이 이 지역을 벤엘이라 고쳐 불렀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본절에 의하면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선이 '벤엘에서부터 루스를 지나고 있다'고 하여 벤엘과 루스를 서로 다른 지역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4) 그러나 여기서 벤엘은 넓은 의미로 벤엘 성읍 남쪽에 있는 능선으로 보고 루스를 벤엘 성읍 자체로 보아 본절을 '벤엘 능선에서부터 루스 성읍으로 가서'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결국 본절에서 벤엘과 루스는 서로 동일한 지역으로 보아도 무난하다.

5. ⓐ 야블렛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1) '야블렛'은 아셀의 자손으로 헤벨(Heber)의 아들이다(대상 7:32, 33).

(2) 또한 야블렛 사람들은 케셀 동쪽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 부근에 거주하였다.

(3) 그 외에 '야블렛'이란 인물에 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6. ⓐ '믹모다'와 '다아낫 실로', '야노아'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6절).

Ⓐ (1) 이 지명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표시하는 주요한 지역들로, 세겜 동쪽 2km 지점에 있는 '믹모다'는 북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2) 한편 세겜 동쪽 11km 지점에 있는 '다아낫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북동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3) 또한 '야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다아낫 실로'의 남서쪽 바로 밀인 세겜 남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7. ⓐ 야노아 동편을 거쳐 남으로 내려오는 에브라임의 경계선이 지나는 두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가? (7절)

Ⓐ (1) 그곳은 아다롯과 나아라이다.

(2) 여기서 '아다롯'은 2절의 '아다롯'이나 5절의 '아다롯 앗달'과 구별되는 곳으로 압복 강과 요단 강의 합류점인 아담에서 서북쪽으로 7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텔 엘 마사르' (Tell er-Mazar)를 가리킨다.

(3) 또한 '아다롯'은 팔레스틴 산악 지대와 요단 동편의 산지가 이어지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4) 한편 '위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아라'는 여리고 북서쪽 3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나아란' (대상 7:28)과 동일한 곳을 말한다.

(5) 뿐만 아니라 이 나아라에서 여리고 북서편 지경을 지나 벤엘 북부 산지를 향해 가면 '아다롯 앗달'에 이르게 된다.

8. ◎ ‘답부아’와 ‘가사 시내’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라(8절).

- Ⓐ (1) ‘엔 답부아’(17:7)라고도 불리는 ‘답부아’(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자라는 뜻)는 유다 평지에 있는 성읍 ‘답부아’(15:34)와 구분된다.
- (2) 또한 세겜 남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이 성읍은 원래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었으나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 귀속되었다(참조, 17:8).
- (3) 한편 ‘가사 시내’는 세겜의 서쪽에서부터 읍바 바로 북쪽을 지나 지중해로 빠지는 강으로 중류 부근에서 ‘메얄콘’(Mejarkon) 강과 합류하고 있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9. ◎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성읍과 촌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더 넓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 (2) 즉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므낫세의 땅이 인구에 비해 너무 많게 되자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일부 지역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이다.
- (3)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이 므낫세 지파의 땅 쪽으로 연장되었음을 가리킨다.
- (4) 이러한 지파간의 경계선 조정은 우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난 뒤 인구 비례에 따라 지파간의 지경을 약간씩 조정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 원칙에 따르는 것이었다(참조, 민 26:53-56).
- (5)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 중에는 ‘답부아’(17:8)가 있다.

10. ◎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0절)

- Ⓐ (1) 게셀 왕 호람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라기스 왕을 도우려 오다가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있다.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함께 거주하였으며 후에 이 성읍을 받은 레위인 고핫 자손들도 이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21:21).
- (4) 결국 게셀 성읍은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을 위해 선물로 준 것을 솔로몬이 수축(修築) 함으로써(왕상 6:16) 완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

11. ◎ 에브라임 자손들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
- (2) 이것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써(신 7:2)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는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참조, 왕상 12:25-33; 13장).
- (3) 이와 같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당초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악한 요소들을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참조, 신 13:5; 17:7; 19:19; 21:21; 22:21; 고전 5:13).

제 17 장 므낫세 지파의 기업

단락구분: 1-6 므낫세 지파가 받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 / 7-11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요단 서편 영토의 경계선 / 12-13 므낫세 영내(領內)에 잔존하는 가나안 족속들 / 14-18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다

1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2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3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5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짓기 돌아갔으니

6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7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에 므낫세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부아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8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9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10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

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잇사갈에 미쳤으며

11 잇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스안과 그 향리와 이불르암과 그 향리와 들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나 거민과 그 향리와 므깃도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것이라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짓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 이까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끌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벤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르엘 끌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7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짓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 ②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사건은 무엇인가?

- Ⓐ (1) 요단 서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는 남자 상속인을 가지지 못한 슬로브핫의 딸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바람에 큰 곤란에 부딪치게 되었다.
- (2)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자 중심의 재산 상

속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지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딸들만 있는 슬로브핫 식구들이 그들에게도 토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여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민 27:4-7) 결국 슬로브핫의 딸들도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4) 이것은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의 완전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고전 11:11, 12).

2. ◎ 므낫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라(1절).

Ⓐ (1) 그는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놓은 맘아들로서 그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창 41:50, 51).

(2) 한편 야곱은 임종시에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좌수를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함으로써 (창 48:14) 사실상 요셉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갔다.

(3) 결국 므낫세 자손들은 요단 강 동서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가나안의 비옥한 중부 지역들은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

(4)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 즉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3. ◎ 마길 자손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은 어디인가?(1절)

Ⓐ (1) 그들은 길로앗과 바산을 얻었다.

(2) 한편 이 땅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지역으로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 왕국의 전부와 길로앗 땅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3) 또한 마길의 자손들은 그의 아버지 마길과 같이 용감했기 때문에 바산과 길로앗을 쉽게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한 뒤 그 형제 지파들을 돋기 위해서 무장하고 선두에서 요단 강을 건넜던 것이다(1:12-18; 4:12, 13; 민 32:1-42).

(4) 이와 같이 마길 자손들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를 돋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돋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참조, 행 20:35; 롬 15:1; 고전 8:11; 9:22; 살전 5:14).

4. ◎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2절)

Ⓐ (1) 그는 길로앗의 여섯 아들들의 가족을 가리킨다.

(2) 한편 길로앗은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데 이 길로앗의 여섯 아들은 아비에셀, 헬레,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였다.

(3) 여기서 '아비에셀'은 '이에셀' (민 26:30)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손들은 오브라(Ophrah)에서 살았으며 그중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사사 기드온이 있다(삿 6:11, 24; 8:32).

(4) 또한 '헤벨'은 그의 자손들이 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기업을 나누었던 것이다(참조, Ⓛ1).

(5)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족장들은 얼마나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그러므로 공의를 외치는 자들은 사람의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잠 22:2; 마 23:8; 행 10:28; 롬 10:12; 갈 3:28; 약 2:5).

5. ◎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기업을 요구한 자들은 누구인가?(3, 4 절)

Ⓐ (1) 그들은 헤벨의 아들 길로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曾孫) 므낫세의 현손(玄孫)인 슬로브핫의 딸들, 즉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 (2)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민 27:1-7) 결국 기업을 받게 되었지만 (참조, ❶) 이들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가야 했다(민 36:8).
- (3)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들의 기업도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민 36:1-9).
- (4)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성 상속권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인의 권리와 더불어 지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같이 고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공정한 상속과 개인의 권리 및 지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6. ❷ 요단 서편에 있는 브낫세 지파의 땅은 몇 등분으로 나누어졌는가? (5, 6절)

- Ⓐ (1) 그 땅은 10개의 분깃으로 나누어졌다.
- (2) 즉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으므로 헤벨을 제외한 길르앗의 다섯 아들에게 주어진 다섯 분깃과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에게 주어진 다섯 분깃을 합하면 전체는 열 분깃이 되는 것이다.
 - (3) 그러나 실제로 이들 다섯 딸들이 각기 받은 기업은 그 크기에 있어서 다른 남자 자손의 분깃과 크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 (4) 다시 말하면 다섯 딸들 전체의 기업은 남자 자손 중 하나의 기업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Matthew Henry).
 - (5) 왜냐하면 이들 다섯은 헤벨의 자손 슬로브핫의 기업을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7. ❸ 브낫세 지파의 경계는 어디인가? (7-13절)

- Ⓐ (1) 브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북으로 아셀, 스불론, 잇사갈 지파의 지경과 접하며, 남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 답부아에 이른다.
- (2) 또한 그 경계는 동으로 요단 강 곧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 사해 북쪽에 이르는 요단 계곡 지대이며 서쪽은 지중해와 접한다.
 - (3) 뿐만 아니라 브낫세의 지경 안에는 잇사갈과 아센에 속하는 6개의 성읍, 즉 벤 스안, 이블르암, 들, 엔들, 다아나, 브깃도가 포함되어 있다(11절).

8. ❹ 브낫세 지경의 북서쪽 경계와 남동쪽 경계는 어디인가? (7, 8절)

- Ⓐ (1) 브낫세의 북서쪽 경계는 아셀 지파의 경계에 있고 남동쪽 경계는 믹모닷과 에브라임 지파의 북동쪽 접경인 엔 답부아에 이른다.
- (2) 여기서 믹모닷은 16:6의 믹모다와 같은 것으로 현재의 길벳 줄레이질 (Khirbet Juleil-jil)인데, 세겜의 남동쪽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3) 한편 엔 답부아는 답부아의 다른 명칭으로 세겜의 남쪽 1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4) 또한 답부아 성읍은 브낫세 지파의 땅에 속하였지만 그 안에 있는 답부아 성읍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하였다.

9. ❺ 브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는 어디인가? (9절)

- Ⓐ (1) 브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는 답부아 거민의 땅에서 가나 시내를 따라 서편 지중해에 이른다.
- (2) 따라서 이 가나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브낫세 지경, 남쪽은 에브라임 지경이 된다.
 - (3) 한편 가나 시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원래 브낫세 지파의 기업이었으나(16:9)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약간 북상(北上)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것은 지파 사이의 경계선이 영토 분배 이후에 인구 수(數)에 비례하여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0. ◎ 므낫세의 영토 중 잇사갈과 아셀의 지경에 있는 성읍은 무엇인가? (11절)

Ⓐ (1) 그것은 벤 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아낙, 므깃도 성읍이다.

(2) 한편 이 여섯 성읍들은 므낫세가 영토를 분배받은 후 잇사갈과 아셀의 영토로 되었다가 다시 므낫세의 영토로 재조정 되었다.

(3) 여기서 '벤 스안'은 갈릴리 바다 남쪽 25km, 요단 강 서쪽 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농경지로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4) 또한 '이블르암'은 '빌르암'과 동일한 곳이며, '돌'은 가이사라의 북쪽 14km, 갈멜 산의 남쪽 25km 지점에 있는 엘 탄두라(et-Tanturah)의 바로 북쪽에 있는데 일찍부터 베니게의 성읍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5) 그리고 '엔돌'은 다불 산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소(小) 헤르몬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길보아 전투의 승패를 물었던 곳이기도 하다(삼상 28:7).

(6) 뿐만 아니라 '다아낙'은 므깃도 남동쪽 9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의 서쪽은 사론 평야, 북동쪽은 이스라엘 평야, 남쪽은 이스라엘 산지, 북쪽은 악고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대상로(隊商路)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다.

(7) 마지막으로 '므깃도'는 에스드렐론 평야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갈멜 산맥의 돌출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최고의 요지(要地)였다(참조, 왕상 9:15, 19).

(8)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성읍 중 므깃도, 다아낙, 엔돌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세 높은 곳'이라고 한다.

11. ◎ 므낫세 자손들은 그들의 영토내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12, 13절)

Ⓐ (1)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시비을 시켰다.

(2) 즉 그 당시 므깃도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16절) 므낫세 자손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3) 더우기 가나안 정복 초기에 막강했던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칠 때 선두에 나섰던 므낫세 자손들이(참조, 4:12)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을 굳게 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분쇄해야 한다.

12. ◎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4절)

Ⓐ (1)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였다.

(2) 즉 요셉 자손은 야곱에게 축복받은 이후(창 48:5) 항상 두 지파로 계수되어 두 지파의 땅을 차지하였는데(참조, 14:4; 민 2:18-21; 13:8, 18; 26:34, 37; 34:18-29) 이번의 영토 분배에서 한 지파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16:1-4)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요구하였다.

(3) 한편 에브리임 지파의 인구는 3만 2천 5백 명(민 26:37), 요단 강 동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만 2천 7백 명(민 26:34)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아야 할 요셉 자손의 인구는 6만 명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4) 이에 반해 유다 지파의 인구는 7만 6천 5백 명(민 26:22), 단 지파의 인구는 6만 4천 4백 명(민 26:43), 또 잇사갈 지파의 인구는 6만 4천 3백 명(민 26:25)으로 이 지파들은 요셉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보다 불리한

여전에서 좋지 못한 산악 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들을 본다면 비록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한 지파의 땅을 받았다 해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분배받은 자기의 분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7) 여기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엿볼 수 있다.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적인 조건들에 만족할 줄 알고 오히려 우리 주위의 어려운 형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참조, 고전 10:24; 13:5).

13. ◎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준 땅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 땅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는 삼림이 우거진 곳이었다.
- (2) 즉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위의 지역들을 개척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 (3) 이것은 요셉 자손들이 좋은 땅만 얻어서 그것만 경작하며 안일하게 살지 말고 개척 정신을 발휘하여 그들의 지역을 넓혀 나가라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불리한 환경과 여전만 탓하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창 1:28; 3:19; 전 9:10; 엡 4:28; 살전 4:11).

14. ◎ 요셉 자손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는 산지를 짚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이스르엘 끌짜기에 살고 있던 거인 족속인 브리스 사람(창 13:7)과 르바임 사람(창 14:5; 신 3:11)의 철병거(鐵兵車) 때문이었다.
- (2) 즉 이 철병거는 철로 된 창이나 칼 등이 둘출되어 나온 고대의 병거로서 이것은 요셉 자손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 (3)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땅을 꺼려했던 것이다(참조, 11:4; 샷 1:19; 4:3; 삼상 13:5).
- (4) 이것은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동했던 그들의 조상 요셉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5) 여기서 인간의 의적 조건에 억눌려 굴복하는 요셉 지파의 나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5. ◎ 불평하는 요셉 족속에게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는가? (17, 18절)

- Ⓐ (1)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권능을 가지고서(창 48:19)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을 반복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요셉 지파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 주었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함으로써 용기를 얻어야 한다(참조, 왕하 6:16; 사 41:10; 43:1-3; 마 10:30, 31).

제 18 장 베냐민 지파의 기업

단학구문 1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帷幕)을 세우다 / 2-9 일곱 지파를 위해 미분할지(未分割地)의 지도를 작성하다 / 10 일곱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다 / 11-20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 / 21-28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2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 너희는 매 지파에 삼 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이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6 그 남은 땅은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으리라.

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것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니라.

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려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 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으리라.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전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10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11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충간이라.

12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

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벤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13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끝 벤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날로 내려가서 아래 벤 호론 남편 산 절으로 지나고 우

14 벤 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끝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15 남방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벨도아를 근원에 이르고

16 르바임 골짜기 북편 힌눔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눔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질로 내려가고

17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임 바탈 맞은편 글랄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둘까지 내려가고

18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19 또 북으로 벤 호글라 절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안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20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2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령고와 벤 호글라와 애에 그시스와

22 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벤엘과

23 아워과 바라와 오브라와

24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케바니 삼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25 가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 미스네와 그비라와 모사와

27 레샘과 이르브엘과 달랄라와

28 셀라와 엘립과 여부스 끝 예루살렘과 기부 앗과 기럇이니 삼 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고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내용 중 특별한 사건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영토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르우벤, 잣, 람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일곱 지파가 아직 영토를 분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를 중지하고 성막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다.
- (3) 그 이유는 이 일곱 지파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극적인 상태로 머물렀 있었기 때문이다(3절).
- (4)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를 잠시 중단하고 먼저 종교적인 기강을 세우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실로에 성막을 세웠던 것이다.
- (5) 이것은 영토 분배가 종교 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켜 준다.
- (6)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는 단순히 자기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2. ◎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을 세운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그들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 (2) 여기서 실로는 베엘 북쪽 16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세일룸 (Seilum) 으로 서남쪽을 제외한 주변 전지역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유리한 곳이었다.
- (3) 또한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지역에 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회합 장소로도 적합했다.
- (4)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질갈에 있던 회막(會幕, the tent of meeting, 출 29: 42, 43; 민 17:4)을 실로로 옮겼던 것이다.
- (5) 그 후 이 회막은 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B. C. 1050, 참조, 삼상 4장) 실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2, 3절)

- Ⓐ (1) 그들은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였다.
- (2)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본짓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 (3) 즉 이들은 그동안 유목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경을 위한 정착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하여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인들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 (4) 결국 이들 일곱 지파는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계으름을 피웠던 것이다(KJV, RSV).
-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 생활하여야 한다(참조, 마 11:12; 뉘 13:24; 고전 9:25; 빌 1:27; 3:14; 골 1:29; 히 12:4).

4. ◎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4-6절)

- Ⓐ (1) 그는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마다 3인씩 선정하여 나머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 오도록 명령하였다.

- (2) 즉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 21명에게 이미 배당받은 지파의 경계선을 변경시키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땅의 크기와 자연적인 경계가 될 수 있는 특정 지형을 파악하 여 오도록 명령하였다.
- (3) 한편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준비된 '지적도' (地籍圖, 공동 번역)를 보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각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겠다고 하였다(8절).
- (4) 이와 같이 실로에서 각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겠다는 말은 한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 로서 공정하게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5)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기만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공정하게 통치하는 지도자상을 확립해야 한다(참조, 삼하8:15; 잠31:9; 렘22:15).

5. ◎ 가나안의 나머지 땅들을 일곱 지파에게만 나누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레위 사람의 분깃과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 (2) 즉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분깃이 되며 또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13:8; 민32:29-33) 이들은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 (3)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직분은 말하는데 (출29:9; 40:15; 민3:10; 16:10; 18:1-7; 25:13)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분깃을 얻지 못했다(참조, 13:14, 33).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만 하고서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참조; 고전9:14; 갈6:6; 빌4:14; 딤전5:18).
- (5)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복음 전파자, 특히 선교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성도들 개개인이 서로 나누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공동 선교(Team mission)를 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6. ◎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일곱 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8-10절)

- Ⓐ (1)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성읍을 중심으로 일곱 부분의 지도를 그려 왔다.
- (2) 즉 이들은 팔레스틴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 사이에 있는 지역을 답사하였다.
- (3) 한편 이들은 이와 같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도 가나안 족속들과의 마찰이 없었던 것은 기이한 일이다.
- (4) 이것을 볼 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7. ◎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11절)

- Ⓐ (1) 베냐민 자손이 차지한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신33:12).
- (2) 즉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북으로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남쪽 경계(16:1-4) 와 똑같 고, 남으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15:5-11)에 접해 있다.
- (3) 또한 서쪽 경계는 '벨 호론'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직선 코스이며 동편 경계는 요단 강이다.
- (4) 한편 이 지역은 대체로 산악 지대이지만 더러는 사막과 관개(灌漑)가 잘되는 비옥한 곳도 있다.
- (5) 여기에 속하는 성읍 중 유명한 곳으로는 여리고와 벨엘 성읍이 있다.

8. ◎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는 어디인가? (12, 13절)

- Ⓐ (1)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선은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한다(16:1, 2).

- (2) 즉 요단에서 시작되는 이 경계선은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벤아웬 항구지를 지나 '루스' 곧 '벨엘'의 남편 능선을 따라 '아다롯 앗달'에 이른다.
- (3) 여기서 벤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로 생각하기 쉬우나 (16:2) 벤엘의 이름인 '루스의 남편'은 벤엘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루스 남편의 능선'은 벤엘 북쪽으로 우회하여 북서쪽으로 올라간 지점을 말한다.
- (4) 이것을 볼 때 벤엘은 에브라임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2절).

9. ◎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어디인가? (14절)

- Ⓐ (1) 그들의 서쪽 경계는 '아래 벤 호론' 남쪽 산에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 (2) 여기서 기럇 여아림은 '삼립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있으며 '기럇 바일'이라고도 불리워졌다 (15:60).
- (3)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단 지파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10. ◎ 저자는 베냐민 지파의 남방 경계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있는가? (15-19절)

- Ⓐ (1) 저자는 베냐민 지파의 남방 경계선을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 (2) 즉 이 경계선은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15:5-9) 본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설명된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 (3) 여기에 해당되는 성읍에 관해서는 15장 ◎4를 참조하라.

11. ◎ 베냐민 지파가 얻은 성읍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 (21-28절).

Ⓐ

구분	절수	지명	위치 및 동일 지명	참조 귀절
베냐민의 동편 지역에 있는 12개 성읍	21	여리고	현재의 리하 (Riha)	2:1
	"	벤 호글라	현재의 아인 하일라 (Ain Hajla)	15:6
	"	에믹그시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22	벤 아라바	여리고 남동쪽의 아인 엘 가라베 (Ain el-Gharbeh)로 추정됨	15:6
	"	스마라임	벤엘 북동쪽 8km의 라스 에즈 제이마라 (Ras ez-Zeimara)로 추정됨	
	"	벤 엘	현재의 베이틴 (Beitin)	7:2
	23	아원	벤엘 동쪽 2km 엘 텔 (et-Tell)로 추정됨	
	"	바라	예루살렘 북동쪽 9km의 길벳 엘 화라 (Khirbet el-Farah)	
	"	오브라	벤엘 동쪽 7km 지점 엘 타이이베 (et-Taiyibeh)로 추정됨	삼상 13:17
	24	그발암모니	벤엘 북쪽 5km의 가블 아나 (Kafr 'Ana)로 추정됨	
	"	오브니	벤엘 북서쪽 지프나 (Jifna)로 추정됨	
	"	제바	예루살렘 북쪽 9km, 현재의 제바 (Jeba)로 추정됨	삼상 13:16 왕상 15:22 대상 6:45 대하 16:6

	25	기 브 은	예루살렘 북서쪽 9km 지점 현재의 입 (Jib)	9:3
베나민의 서편 지역에 있는 14개 성읍	"	라 마	예루살렘 북쪽 9km의 엘 람(er-Ram)과 동일시 됨. 기브온과 계바의 사이에 위치	삿 19:13 왕상 15:17 스 2:26 사 10:29
		브 에 롯	예루살렘 북쪽 14km. 현재의 비레 (Bireh)	9:17
	26	미 스 배	예루살렘 북쪽 7.5km의 네비 삼월 (Nebi Samwil) 혹은 12km 지점 텔엔 나스베 (Tell en-Nasbeh) 로 추정됨	삼하 7:5 ;10:17 왕하 25:23 렘 40:6
	"	그 비 라	예루살렘 북서쪽 13km 현재의 케필 (Kefir)	9:17
		모 사	예루살렘 북서쪽 7km의 칼로니에 (Qaloniyyeh) 부근	
	27	레 켐	예루살렘 북서쪽 6.4km	
	"	이 르 브 엘	예루살렘 북서쪽 현재의 라팟 (Rafat)	
		다 랄 라	예루살렘 서쪽으로 베이트 얄라 (Beit-Jala) 북쪽 의 베이트 티르사 (Beit-Tirza)로 추정됨	
	28	셀 라	예루살렘과 기브온 사이의 길벳 살라 (Khirbet Salah)로 추정됨	삼하 21:14
	"	엘 렘	예루살렘 북쪽, 현재의 살라 (Salah)	
		여 부 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	기 부 앗	현재의 투레일 엘 풀 (Tuleil el Phul)	심상 10:26 ;11:4 삿 19:13 사 10:29
		기 랫	예루살렘 북서쪽 15km 근방	

본장의 요절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
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으리라’
(6절).



제 19 장 여섯 지파가 얻은 기업

단락구분 1-9 시므온 지파의 기업 / 10-16 스불론 지파의 기업 / 17-23 잇사갈 지파의 기업 / 24-31 아셀 지파의 기업 / 32-39 남달리 지파의 기업 / 40-48 단 지파의 기업 / 49-50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 / 51 명 분배하는 일을 마치다

1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2 그 얻은 기업은 브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3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4 엘들랏과 브돌과 호르마와

5 시글락과 벤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6 벤 르비옷과 사루헨이니 십 삼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7 또 아인파 림몬과 에델파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8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9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자 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10 세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렛에 미치고

11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담베셋에 미치고 욕느암 앞 시내에 미치며

12 사렛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불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13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14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15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십 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16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17 네째로 잇사갈 곧 잇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18 그 지경 안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19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20 람빗파 기시온파 에베스와

21 레멧파 언간님파 엔 핫다와 벤 바세스며

22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벤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십 둑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23 잇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24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5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26 알람멜레파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흘 림낫에 미치고

27 꺾여 해 듣는 편을 향하여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골짜기 미쳐서 벤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28 에브론파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29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물이어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결 바다가 끝이 되며

30 또 움마와 아삐파 르홉이니 모두 이십 이 성읍과 그 촌락이라

31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32 여섯째로 남달리 자손을 위하여 남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3 그 경계는 헬렙파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파 암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34 서편으로 돌아 아스놋 다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혹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 듣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35 그 견고한 성읍들은 셋딤파 세르파 함맛파 락갓파 긴네멧파

36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파

37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파

38 이론파 미다렐파 호렙파 벤 아낫파 벤세메스니 모두 십 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39 남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

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40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음과 이르 세메스와

42 사알립빈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43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44 엘드게와 김브돈과 바알랏과

45 여롯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46 메알곤과 락곤과 유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47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다라

48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49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50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증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촉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1. ◎ 본장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6 지파, 즉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배당 받음으로써 영토 분배가 끝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영토 분배가 다 끝난 뒤에 비로소 에브라임 산간에 있는 자신의 땅을 차지하였다.
- (3)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토를 분배한 다음에 성읍을 다시 건축해야 거주할 수 있는 악조건에 놓여 있는 성읍을 차지하였다(50절).
- (4)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여호수아의 이런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2. ◎ 시므온 지파가 제비뽑은 땅은 어디인가? (1절)

- Ⓐ (1) 그들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분깃을 얻었다.
- (2) 즉 시므온 지파는 영토를 얻지 못한 7 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이어(18:11) 두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유다 자손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만을 얻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애당초 여호수아가 유다와 요셉 자손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분깃을 나누겠다고 한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18:5, 6).
- (4) 또한 이것은 결국 유다 지파의 영토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유다 지파의 아량 때문이었다.
- (5)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지 않고 그들의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유다 지파의 이와 같은 성품을 본받아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잠 25:21; 사 58:7; 마 5:42; 뉘 3:11; 12:33; 행 20:35; 롬 12:13; 갈 6:10; 딤전 6:18; 히 13:16).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기업보다 더 훌륭한 하늘의 기업이 마련되어 있다(고후 5:1).

3. ◎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의 위치는 어디인가? (2-8절)

Ⓐ (1)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은 대부분 유다 남방에 위치하고 있다(15:24-32, 42; 대상 4:28-32).

(2) 이 성읍들의 자세한 위치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구분	점수	지명	위치 및 동일 지명	참조 규절
네 개 보 에 위 치 한 13 개 성 읍	2	브 엘 세 바	와디 사바와 와디 케릴의 경계에 위치한 텔 에스-사바 (Tell es-Saba)와 동일한 지역	15:28
	"	몰 라 다	헤브론 남쪽의 아랏 6.5km 지경 혹은 브엘세바 동쪽 18km 지점	
	3	하살 수알	브엘세바 남동쪽 2km 지점의 길벳 엘-와단 (Khirbet el-Watan)	느 11:27
	"	발 라	바알라 (여주인공, 15:29) 또는 빌하 (대상 4:29)와 동일한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남동쪽 11km의 길벳 아부 툴루 (Khirbet Abu Tulul)	
	"	에 셉	브엘세바 남동쪽 17km의 움 엘 아삼 (Umm el 'Asam)과 동일한 지역	대상 4:29
	4	엘 들 러	들랏과 동일한 곳으로 브엘세바 남동쪽 20km의 길벳 에르가 사그라 (Khirbet Erga Sagra)로 추정됨	대상 4:19
	"	브 둘	브드엘과 동일한 곳으로 시글락 남쪽 6km 길벳 엘-라스 (Khirbet er-Ras)로 추정됨	대상 4:30
	"	호 르 마	브엘세바 동쪽 8km 혹은 시글락 서쪽 12km 지점	12:14
	5	시 글 락	브엘세바 북쪽 22.4km의 텔 엘-구웨일리헤 (Tell el-Khuweilfeh)와 동일시됨	대상 4:30
	"	벤 말가봇	헤브론 남서쪽 24km 지점	대상 4:31
	"	하살 수사	사루헨 (Sharuhen) 동쪽 3km의 스발랏 아부 수사인 (Sbalat Abu Susein)	
	6	벤 르바웃	벤 비리 (Beth-Birei)	대상 4:31
	"	사 루 헨	가사 남쪽 28.8km 텔 사루헨 (Tell Sharuhen; Tell el-Farah)	대상 4:31
네 위 계 한 보 성 읍	7	아 인	브엘세바 북동쪽 14km 길벳 움 에르-라마민 (Khirbet Umm er-Ramamin)과 동일시됨	대상 4:32
	"	립 몬	아인과 같은 지역	대상 4:32
세 위 계 한 라 성 읍	7	에 텔	엘 림몬 부근의 길벳 앗디르 (Khirbet 'Attir)와 동일시됨	15:42
	"	아 산	브엘세바 북서쪽 2km 길벳 아산 (Khirbet Assan)과 동일시됨	15:42
	8	라 마		
	"	바알랏브엘		

4. ◎ 여호수아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분할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 즉 유다 지파는 그들이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를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사람의 소유권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 한편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재산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부(富)만을 채우는 일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5)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모든 재산과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는 재물들을 사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암 5:24).

5. ◎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속하는 성읍의 위치를 설명하라(10-16절).

- Ⓐ (1)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나사렛을 포함하여 남부 갈릴리 산지의 전지역이다.
 (2) 여기에 속하는 성읍의 세부적인 위치는 아래와 같다.

구분	결수	지명	위치 및 동일 지명	참조	구절
남부 갈릴리 산지에 있는 성읍	10	사릿	나사렛 남서쪽 8km, 텔 샤두드(Tell Shadud)와 동일시됨		
	"	답 베셋	혹느암 동쪽 4km 텔 셈(Tell Shem)으로 추정됨		
	"	혹느암	므깃도 북서쪽 11km 근방		
	12	기슬롯다불	다불 산 서쪽 익살(Iksal), 나사렛 남동쪽 3km 그 술롯파 동일 지역으로 추측됨	19:18	
	"	다브릿	다불 산 서쪽 데브리에(Debrieh), 다비라(Dabirra)라고도 함	21:28	
	"	야비아	나사렛 남서쪽 3km의 야화(Yafa)로 추정됨	대상 6:57	
	13	가드헤벨	나사렛 북동쪽 4km 근처인 텔 갓 헤펜(Tell Gat Hefer)로 추정됨	왕하 14:25	
	"	옛가신	케풀 캔나(Kefr Kenna)로 추정됨		
	"	림몬	나사렛 북쪽 10km 지점의 룸마네(Rummaneh)	21:35 대상 6:62	
	14	한나돈	나사렛 북쪽의 텔 한나돈(Tell Hannaton)과 동일시됨		
	"	임다엘	나사렛 북서쪽 와디 엘 멜렉(Wadi el-Melek)과 동일시됨		
	15	갓닷	길벳 쿠타이네(Khirbet Quteineh)로 추정됨 기드론과 동일한 지역	삿 1:30	
	"	나할릿	나사렛의 남서쪽, 하이다 동쪽 8km에 있는 텔 엔 나흘(Tell en Nahl)로 추정됨	삿 1:30	
	"	시므론	나사렛 서쪽 7km의 텔 에스 세무니야(Tell es-Semuniya)		
	"	이달라	베들레헴 남서쪽의 길벳 엘 하와라(Khirbet el Hawara)로 추정됨		
	"	베들레헴	나사렛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6. ◎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어디인가? (10-16절)

- Ⓐ (1)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사릿', 서쪽으로 '욕느암 앞 시내'에 미치고, 동쪽으로 다불 산록의 '다브랏'에 이른다.
- (2) 또 북쪽 경계는 '림몬'에서 '한나돈'에 이르며, 남서쪽 경계는 '임다엘 골짜기'이다.
- (3) 이러한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의 영토에 접하고(27절)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과 일치하며(34절), 남동쪽과 남편으로는 잇사갈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이른다.
- (4) 이와 같은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과는 전혀 다르다(참조, 창 49:13).
- (5) 그러나 야곱이 레아의 소생이요 스불론의 형인 잇사갈(창 30:18)에게 한 예언의 말을 참고해 볼 때(참조, 창 49:13-15; 신 33:18) 스불론 지파는 문자 그대로 해변에 거주한 다기 보다 넓은 지역으로 다니며 장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6)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팔레스틴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역로가 교차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예언은 성취된 것이다.

7. ◎ 잇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17-23절)

- Ⓐ (1) 잇사갈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므낫세, 서쪽으로 므낫세와 스불론, 북쪽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동쪽은 요단 강에 이른다.
- (2) 이 지역들은 넓고 비옥한 이스르엘 평지로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인데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 준다(창 49:14, 15).
- (3) 또한 이 지역은 비옥하고 균동 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끔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참조, 샷 4장; 5:15).

8. ◎ 잇사갈 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하라(17-23절).

Ⓐ

절수	지명	위치 및 동일 지명	특정	참조 구절
18	이스르엘	현재의 세린 (Zerin)으로 길 보아 산 북서쪽에 위치	아합의 하기 휴양지로 산악 지역이며 전망이 좋다	왕상 18:45, 46
	그술롯	다불 산 서쪽	기스롯이라고도 한다	12절
	수넴	다불 산 남쪽의 솔렘 (Sol-em) 혹은 수렘 (Sulem)이라 한다	아비삭의 고향	왕상 1:3-15 왕하 4:8
19	하바라임	벳산 북서쪽 14km의 옛 타이베 (et-Taiyibeh)로 추정됨	'두 물두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시온	나사렛 동쪽 4.8km의 아윤에샤인 (Ayun esh-Shain)으로 추정됨		
	아나하랏	작은 헬몬 산 동쪽 엔 나우라 (en-Naura)와 동일시됨	예년 평지의 북쪽에 있는 아라네 (Araneh)와 동일시 되기도 함	
20	람벳	길보아 산 남쪽 12.8km의 라바 (Raba)와 동일시됨	아라네 (Araneh)의 북동에 위치한 아라보네 (Araboneh)와 동일시되기도 함	21:28
	기시온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짐	

20	에 베 스		‘현저한’이라는 뜻	
21	레 멧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코갑 엘 하와 (Kokab el-Hawa)로 추정됨	야르뭇, 라못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21:29 대상 6:58
”	언 간 님	현재의 예닌 (Jenin)으로 길 보아 산의 남서쪽에 위치	레위의 땅, 아넴이라고도 한다	21:29 대상 5:58
”	엔 핫 다	갈릴리 바다 남단의 남서쪽 9km에 위치한 텔 엔 하다테 (Tell Em Hadatreh)로 추정됨	길보아 근처에 있는 베이트 가드나 가드로 보는 사람도 있다	
”	벤바세스	다불 산 근처로 추정됨		
22	다 불	다불 산 위에 있는 성읍	스불론에 의해 세워져서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짐	대상 6:62
”	사하수마	엘 켈룸 (el Kerm)으로 추정됨	엘 하세테 (el Hazetneh)로 추정되기도 함	
”	벤세메스	갈릴리 바다 남단 2km 남쪽에 있는 엘 아베이디예 (el-Abeidiyeh)로 추정됨		

9. ◎ 아셀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경계는 어디인가? (24-31절)

- Ⓐ (1)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경계는 남쪽으로 갈멜 산, 북쪽으로 갈릴리 산맥의 북단에 있는 두로 근처까지 이른다.
- (2) 한편 아셀 지파의 기업은 레온테스 강과 그밖에 레바논의 눈 덮힌 산봉우리에서부터 흐르는 지류를 통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땅은 기름지고 특히 감람나무가 많기로 유명하다.

구분	점수	지명	위치 및 동원 지명	참조 규절
아셀의 중심부에 있는 성읍	25	헬 갓	텔 엘 하르바이 (Tell el-Harbai)로 추정됨	21:31 대상 6:75
	”	할 리	헬갓의 북동쪽 7km 지점에 있는 길벳 라스알리 (Khirbet Ras Ali)로 추정됨	
	”	베 텐	탈레마이스 (Ptalemais) 동쪽의 암문 (Abtun)으로 추정됨	
	”	악 삽	악고 (Acco)의 남동쪽 10km 지점에 있는 텔 키산 (Tell Kisan)으로 추정됨	11:1
아셀의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	26	알람멜렉	악고 평원의 남부	
	”	아 맷	갈멜 산 북쪽	
	”	미 살	잘 알 수 없음, 마살이라고도 함	21:30 대상 6:74
	”	갈 멜	팔레스틴 북서쪽에 있는 기손 시내의 남쪽 산지	왕상 18:17
	”	시흘립낫	갈멜 산 남쪽의 나아르 에즈제르가 (Nahr ez-Zerga)와 동일시됨	

아 있는 셀의 성 남부 지역 에	27	벤 다곤	갈멜 산의 동쪽 지역으로 추정됨	13절
	"	입 다엘	와디 아비린 (Wady Abilin)의 상류 지대	
	"	벤 에멕	악고의 북동쪽 8km 지점에 위치한 텔 미마스 (Tell Mimas)와 동일시됨	
	"	느 이 엘	길벳 야닌 (Khirbet Yanin)으로 추정됨, 네아라고도 함	
	"	가 불	현재의 가불 (Kabul), 악고의 남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함	
아 셀 의 북 부 지 역 에 있 는 성 읍	28	에 브론		
	"	르 흄	텔 엘 아드리 (Tell el-Amri)와 동일시됨	
	"	함 몬	베이루트 (Beirut)의 동쪽에 있는 하마나 (Hamana)로 추정됨	
	"	가 나	나사렛의 북쪽 13km 지점에 위치한 길벳 카나 (Khirbet Qana)로 추정됨	
	"	시 돈	현재의 사이다 (Saida)	11:8
	29	라 마	두로의 남동쪽 21km 지점에 위치한 엘 라미에 (er-Ramieh)와 동일시됨	
	"	두 로	현재의 술 (Sur)	
	"	악 십	현재의 집 (Zib), 악고 북쪽 15km	삿 1:31, 32
	30	움 마	레바논에 위치한 케프 아메에 (Kefr Ammeih)로 추정됨	
	"	아 삼	악고에서 남동쪽으로 9.6km에 있는 텔 케르다나 (Tell Kerdanah)와 동일시됨	13:4
	"	르 흄	28절의 르흡과 다른 지역, 위치는 확실치 않음	

10. ⑤ 남달리 지파가 차지한 분깃의 경계는 어디인가? (32-39절)

- Ⓐ (1) 남달리 지파의 경계는 북으로 가나안의 북쪽 경계에 이르고 남으로는 다불 산에서 요단 강까지 잇사갈 지파의 경계에 이른다.
 (2) 또한 서쪽 경계는 아셀 지파와 접하고 동편 경계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연안에서 요단 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메름 물가에 이른다.
 (3) 이것을 볼 때 남달리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남달리 지파에 속한 성읍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절수	지 명	위치 및 동일 지명	특 징	참조 규절
33	헬 텁	갈릴리 서단 서쪽 15km 지점에 있는 길벳 아르바다 (Khirbet Arbada)	‘지방’ (脂肪)이라는 뜻	
	사 아 난 님	네겝의 남동쪽 6km의 칸 엣 투야르 (Khan et-Tujjar)와 동일시됨	게데스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삿 4:11
	아다미네겝	디베랴 바다 남서쪽 8km의 길벳 다미에 (Khirbet Damiyeh)와 동일시됨	‘협로 (狭路)의 붉은 곳’ 이란 뜻으로 인근의 흙이 붉은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암 느 엘	갈릴리 바다 남서쪽 7km의 예문 (Jemun) 혹은 예무		

		텔 엔 나암 (Tell en-Naam) 과 동일시 됨	니 (Jemuni) 호수로 보는 자도 있다	
33	락 굼	갈릴리 바다 남단의 남서쪽 2km에 위치한 만수라 (Man- surah) 과 동일시됨	'방해', '요새'라는 뜻	
34	아스놋다불	현재의 길벳 제베일 (Khir- bet Jebail) 과 동일시됨	잇사갈의 경계선과 접하 고 있다	
"	혹 곡	게네사렛 북쪽의 야쿡 (Ya- quq) 과 동일시됨		
"	식 딤	디베리아 북서쪽 13km 도상에 있는 핫틴 엘 카딤 (Hattin el-Qadim) 으로 추정됨		
35	세 르		70인역에서는 솔 (Zor) 이 라고 되어 있다	
"	함 맛	디베리아 남쪽의 함맘 타바 리예 (Hammam Tabariyeh) 와 동일시됨	함못 둘 혹은 함몬이라고 도 한다	21:32; 대상 6:61
"	락 갓	디베리아스 (Tiberias) 와 동일한 곳	'해변가'라는 뜻	
"	긴 네 렛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텔 엘 오레이메 (Tell el-Oreimeh) 와 동일시됨	긴네롯 혹은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라고도 한다	11:2; 12:3; 13: 7; 민 34:11 ; 신 3:17
36	아 다 마	현재의 길벳 다미예 (Khir- bet Damiyeh)		
"	라 마	현재의 라메 (Rameh)로, 갈 릴리 바다 북서쪽 18km 지점	넓은 올리브 나무로 둘러 싸인 큰 촌락	
"	하 솔	갈릴리 바다 북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한 텔 엘 케다 (Tell el-Qedah)로 추정됨	라마와 가데스 사이에 위치	11:1
37	게 데 스	홀레 (Huleh) 호수의 북서쪽 7km 지점에 위치한 텔 카데 스 (Tell Qades)	레위 지파에게 속한 도파 성	12:22 20:7 21:32 삿 4:6
"	에 레 드 이	오늘날의 텔 구라이베 (Tell Khureibeh)		
"	엔 하 솔	갈릴리 산지 서쪽의 길벳 하시레 (Khirbet Hasireh) 와 동일시됨	텔 하술 (Tell Hazur) 또 는 아인 하솔 (Ain Hazur)	
38	이 론	홀레 호수 서쪽 16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야룬 (Jarun)		
"	미 다 렐	가데스 북서쪽 23km의 무예딜	가버나움과 디베리야 사	마 15:39

		(Mujeidil)로 추정됨	이에 있는 막달라로 추정 되기도 함	
38	호 램	갈릴리 북쪽의 길벳 카다문 (Khirbet Qatamun)과 동 일시됨		
"	벤 아 낫	악고의 동쪽 18km의 엘 바네 (el Baneh)와 동일시됨	'아낫의 집(신전)'이라는 뜻	삿 1:33
"	벤 세메스	두로 남동쪽의 하리스 (Harris)와 동일시됨	22절에 있는 지명과 다른 지역	

11. ② 단 지파가 차지한 영토의 범위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라(40-48절).

- Ⓐ (1)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유다 지파의 북쪽, 베냐민 지파의 서쪽,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 (2) 결국 이 지역은 대부분이 지중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평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였다.
- (3) 그러나 단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삿 1:34) 요단 강의 수원(水源) 부근인 레센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삿 18:1-29).
- (4) 한편 단 지파가 옮겨간 레센, 즉 라이스 (Laish) 지방은(삿 18:17, 27)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남쪽 입구로 난공불락(難功不落)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뛰어나가는 사자'처럼(신 33:22) 용감하게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47절).
- (5) 이처럼 단 지파가 레센 땅을 차지한 이유는 분배받은 땅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다(공동 번역, KJV, 삿 1:34).
- (6) 이것을 볼 때 단 지파는 그들의 불리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좋지 않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참조, 창 1:28; 3:19; 전 9:10; 엘 4:28; 살전 4:11).

12. ② 단 지파에 속한 성읍의 위치를 설명하라(40-48절).

- Ⓐ (1) 단 지파의 땅은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서, 북쪽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얻어 형성되었다.
- (2) 그 성읍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절수	지명	위치 및 놓일 지점	참조	귀절
41	소 라	현재의 사라 (Sarah)로, 예루살렘 서쪽 23km 지점	유다 지파에게 받은 성읍	
	에스 다 올	소라의 북동쪽 2.5km 지점 의 에슈와 (Eshwa)로 추정됨		15:33
	이르세메스	벤세메스와 동일한 곳		38절; 왕상 4:9
42	사 알 랍 빈	현재의 셀비트 (Selbit)로, 개셀의 동쪽 6km 지점	사알빈이라고도 함	왕상 4:9; 대상 11:33
	아 암 룬	현재의 알로 (Yalo)로 예루살렘 서북서쪽 22km 지점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	21:24; 삿 1:35; 삼상 14:31; 대상

			6:54; 8:13; 대하 11:10; 28:18
42	이 들 라	아얄론 근처에 위치	
43	엘 른	길벳 와디 알린 (Khirbet Wadi Alin)으로 이들라와 딤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엘론 벗 하난으로 언급되기도 함 왕상 4:9
"	딤 나	벨세메스 북서쪽 7km의 텔 엘 바타시 (Tell el-Batashi)로 추정됨	유다 지파에게 받은 성읍 15:10
"	에 그 론	소렉 골짜기 남쪽 아키르 (A qir)와 동일시됨	15:11
44	엘 드 계	에그론의 남동쪽 8km 지점에 있는 길벳 엘 무간나 (Khirbet el-Muguana)와 동일시됨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 21:23
"	김 브 돈	현재의 텔 멜랏 (Tell melat)으로 계셀 서쪽 5km	21:23; 왕상 15:27; 16:15, 17
"	바 알 랫	바알라 산의 남쪽 가드라 (Qatra)와 동일시됨	유다 지경에 있는 바알라일 수도 있다 왕상 9:18; 15:11
45	여 훗	현재의 예후디예 (Jehudieh)로 유파 동쪽 13km 지점	
"	보 네 브 락	텔 아비브의 북서쪽 엘 케이리예 (el-Kheiriyeh)	
"	가 드 림 몬	유파 북동쪽 7km의 텔 엘 여리쉐 (Tell el-Jerisheh)	레위에게 주어진 땅 21:24; 대상 6:54
46	메 양 곤	유파 근처	
"	락 곤	유파 북동쪽 11km의 텔 엘 렉게이드 (Tell el-Reggeit)로 추정됨	
"	음 바	현재의 야파 (Jaffa)	블레셋의 유명한 항구 대하 2:15; 스 3:7; 은 1:3

13.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한 것은 무엇인가? (49, 50절)

- Ⓐ (1) 그는 자기가 거할 성읍을 요구하였다.
 (2) 즉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딤낫 세라를 얻어서 그 성읍을 중건 (重建)하였다.
 (3)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토지를 분배했던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여호수아의 위민 정신 (爲民精神)을 엿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말로만 정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14. ⓐ 각 지파의 영토를 제비뽑은 순서대로 기록하고 그 위치를 비교하라 (51절).

A (1)

지파명	영토의 위치	주요 성읍	해당 구절
르우벤	요단 동편 아르논 골짜기에서 부터 북쪽 헤스본에 이르는 지역, 아모리 사람 시흔의 땅	헤스본, 디본, 바롯 바알 벤 바알 므온, 야하스, 그데롯	13:15-23
갓	르우벤 지파의 북쪽 경계선에서 암복 강에 이르는 길로 앗 지역과 암몬 땅의 절반	벤 하람, 벤 니모라, 숙곳	13:24-28
므낫세 반	갓 지파의 북쪽 지역으로 바산 왕 옥의 전지역	마하나임, 에드레이, 아스다롯	13:29-31
유다	신 광야에 이르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	헤브론, 하솔, 드빌, 기럇여아림	15:1-12; 21-62
요셉 에브라임	사해 북단에서 갈릴리 바다	실로, 담부아, 므마다	16:5-10
므낫세 씹	남단에 이르는 가나안 땅의 가장 가운데 지역	세겜, 므깃도, 디르사, 헤벨	17:7-13
베냐민	유다 지파의 북쪽 요셉 지파의 남쪽에 위치	여리고, 기브온, 라마, 예루살렘	18:11-28
시므온	유다 지파의 영토 중 남단에 있는 일부 성읍을 차지	브엘세바, 하살, 수알, 시글락, 브알랏 브엘	19:1-9
스불론	나사렛을 포함한 남부 갈릴리 산지 전지역	나사렛, 베들레헴, 사릿	19:10-16
잇사갈	므낫세의 북쪽에 위치한 이스르엘 평원 지역	이스르엘, 수넴, 기시온, 레멧	19:17-23
아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역	두로, 시돈, 갈멜, 아삐, 악고, 악심	19:24-31
남달리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로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	긴네렛,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벤세메스	19:32-39
단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다 지파의 북쪽,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 사이에 있는 라이스 지방	욥바, 소라, 에스다을, 아얄론, 딤나 레센	19:40-46 19:47

(2) 위의 도표에서 처음 두 지파 반은 제비를 뽑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3) 또한 요셉 지파의 분깃은 두 지파를 합쳐서 위치 표시를 했으며, 단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구분해서 표시했다.

(4)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토 분배를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제 20 장 도피성을 선정하다

단락구분: 1-6 도피성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7-9 여섯 도피성을 설정하다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4 그 성읍들의 하나님에 도망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라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7 무리가 남달리의 산지 갈릴리 계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로앗 라몬과 뜨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끌란을 택하였으니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캐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1. ◎ 본장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영토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선정하였다.
- (2)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으로 요단 강 동서편에 각각 3 성읍씩 선정되었는데(민 35:9-34; 신 19:1-13) 이것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3)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함부로 유린되지 않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 이유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신 32:4; 시 103:6; 잠 16:11; 사 45:21; 습 3:5).

2. ◎ '부지중 오살(誤殺)'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다.
- (2) 즉 전혀 살인할 의사가 없었으나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를 가리킨다.
- (3) 한편 율법에서는(민 35:9-24)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쇠연장이나 틀,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적의를 품고 사람을 때리거나 밀거나 무었을 던져 죽이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 (4) 그래서 이런 자는 사형(死刑)을 받아야 하지만, 반면에 아무런 적의도 없이 어쩌다가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면 이는 과실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것이다(신 19:5).
- (5) 그러므로 이런 자는 법령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에게 복수할 사람의 손을 피해 도피성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것이다.

(6)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로써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豫表)하는 것이다(참조, 뉴 1:69; 2:30; 요 10:9; 행 4:12; 15:11; 롬 5:9; 살전 5:9; 히 5:9; 9:28).

3. ◎ 피의 보수자(報讐者)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그는 죽은 자의 원수를 갚을 가장 가까운 친척(the relatives of the dead man, who may try to kill him in revenge, Living Bible)을 말한다.
- (2) 한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이든지 가까운 친척이 살해되면 그 피의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민 35:9-28).
- (3)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함으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로써 속죄해야 했기 때문이다(창 9:5; 출 21:28, 29).
- (4) 여기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자신의 피로 속죄하지 않고는 도저히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 35:31-34).
- (5) 한편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6) 즉 살인한 인간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실수로 살인한 그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와 생각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 (7) 결국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행 15:11; 롬 3:24; 5:15; 11:6; 엡 2:5; 딤 2:11; 3:7).

4. ◎ 부지중에 오살한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4, 5절)

- Ⓐ (1)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한 다음 장로들의 허락을 받음으로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다.
- (2) 그런데 당시에는 성읍의 '문 어귀'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참조, 롯 4:1; 삼하 15:2) 비록 실수로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일체를 알리고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었다.
- (3) 그러나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해야 했다(신 19:11, 12).
- (4) 결국 이 제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5. ◎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언제까지 그 성읍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 (6절)

- Ⓐ (1) 그는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뒤 과실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면 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졌다(민 35:28).
- (2)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진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허물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결국 이것은 모든 성도의 대제사장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성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갈 1:4; 엡 5:2; 딤 2:14; 히 9:26; 요일 3:16; 계 1:5).

6. ◎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은 어떤 성읍들인가? (7절)

- Ⓐ (1) 그것은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다.

- (2) 여기서 '제데스'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납달리 자손의 땅으로 (19:32, 37) '납달리 제데스' (삿 4:6) 라고도 하는데 레위 지파 게르손 사람의 성읍으로 배당되었다 (21:32).
- (3) 또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으나 (21:21) 레위 사람 그후 자손에게 배당되었다 (21:20).
- (4) 그리고 유다 자손의 땅이었던 '헤브론' 역시 그후 자손에게 주어졌는데 (21:11).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통치하기도 하였다 (삼하 2:11).

7. **Q**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무엇인가? (8절)

- A** (1) 그것은 베셀과 라못과 바산 골란이다.
- (2) 여기서 '베셀'은 헤스본 동쪽 8km인 모암 평지에 있던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으나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졌다 (21:36; 대상 3:78).
 - (3) 또한 '라못'도 길로암에 있는 갓 지파의 성읍이었으나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졌다 (21:68; 대상 6:80).
 - (4) 그리고 '바산 골란'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 27km에 위치해 있었는데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졌다 (21:27; 대상 6:71).

8. **Q** 도피성을 많이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A** (1) 그것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에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2) 다시 말해서 만약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다면 살인자가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피의 보수자로부터 복수를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 강의 동서편에 각각 3개씩의 도피 성을 두었던 것이다.
 - (3) 또한 이 도피성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그들의 관할하에 둠으로써 이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확실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참조, 21:13, 21, 27, 32, 36, 38).
 - (4)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 일에까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였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각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말 2:10).

9. **Q** 어떤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9절)

- A** (1)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부지중에 오살 (誤殺) 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그들 중에 우거 (寓居) 하는 외국인들이다.
- (2) 즉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
 - (3) 이것은 도피성 제도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의 권익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말해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초교파적이고 범세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조, 레 19:18; 막 12:31; 행 17:26).

제 21 장 레위 지파가 얻은 48 성읍들

단락구분 1-2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구하다 / 3-7 레위인이 얻은 성읍의 수 / 8-26 그ח 자손이 차지한 성읍 / 27-33 게르손 자손이 차지한 성읍 / 34-40 므라리 자손이 차지한 성읍 / 41-42 레위인이 48 성읍을 취하다 / 43-45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다

1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로아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 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 그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실 십 성읍을 얻었고

5 그 남은 그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열 성읍을 얻었으며

6 게르손 자손들은 잇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낭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십 삼 성읍을 얻었더라

7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십 이 성읍을 얻었더라

8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9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10 레위 자손 중 그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11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 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12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13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립나와 그들과

14 앗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15 흘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16 아인과 그들과 웃다와 그들과 벤 세메스

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17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계바와 그들과

18 아나돗과 그들과 암몬과 그들을 끝 네 성읍을 내었으니

19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십 삼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20 그 남은 레위 사람 그ח 자손의 가족 곧 그ח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1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계셀과 그들과

22 집사임과 그들과 벤 호론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23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제와 그들과 김브돈과 그들과

24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 립몬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25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들과 가드 립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

26 그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27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28 잇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29 야르뭇과 그들과 언 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30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암돈과 그들과

31 헬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32 낭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들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33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 세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34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

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35 딤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36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37 그데못과 그들과 므바앗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38 잣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39 헤스본과 그들과 애셀과 그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40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십 이 성읍이었더라

41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 팔 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42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불이셨음이라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옹하였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1) 앞장에서 도피성을 선정한 여호수아는 본장에서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들[野]을 주었다.

(2) 이 성읍들은 한 지점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전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참조, 창 49:7) 결국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의 전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도록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당신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양심이 되기 위해 전국 어디에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마 28:18-20; 막 16:15; 행 1:8).

2. ◎ 레위의 집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라(1절).

Ⓐ (1) 레위는 야곱과 레

아 사이에서 태어

난 세째 아들로서

레위 지파의 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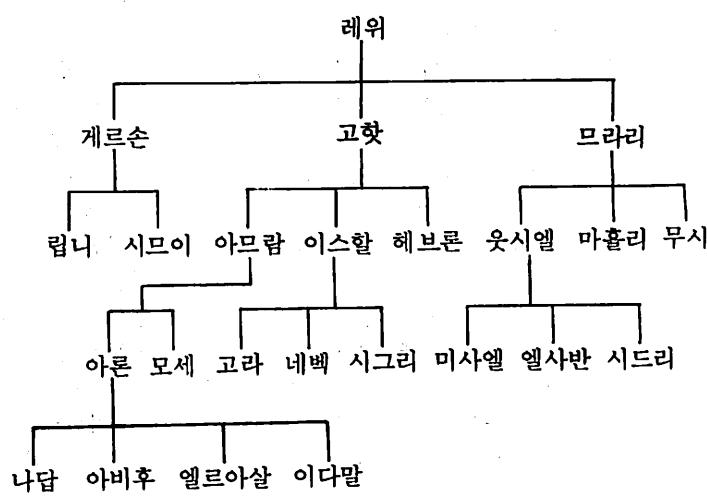
이 되었다(창 29:

34;35:23;출 1:2;

대상 2:1).

(2) 한편 레위 자손의 중요 계보는 다음과 같다(참조, 출 6:16-25; 빌 3:17-20).

(3) 그는 히위 족속 세 침에게 강간 당한 누이 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시므온과 더불어 세겜 성읍을 약탈하였으며(창 34:25-31) 그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 3,000명을 칼로 쳐죽이기도 했다(출 32:25-29; 신 33:8-11).

3. ◎ 레위인들이 여호수아, 엘르아살, 각 지파 족장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레위인들은 토지 분배 위원들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 (2) 즉 레위 자손들은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이 목초지의 경계는 그들의 성읍 벽에서부터 바깥 사면(四面) 천 규빗(약 456m)이었다(민 35:3-5).
- (3) 한편 레위 지파의 뜻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민 35:1-9).

4. ◎ 레위 자손이 차지한 성읍은 본래 누구의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성읍 중에서 일부를 취하였다.
- (2)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이미 영토를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읍 중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성읍들을 레위 자손과 나누어 가겼던 것이다(참조, 민 35:2).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형제인 레위 지파가 살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사욕(私慾)을 버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돋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돋고 그들을 위해 우리 개인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약 2:15, 16).

5. ◎ 레위 지파에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자는 누구인가? (4절)

- Ⓐ (1)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자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가족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었다.
- (2) 한편 아론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막에서 봉사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얻었는데 그들이 차지한 성읍은 시므온 지파를 포함한(19:1) 유다 지파에서 9성읍, 베냐민 지파에서 4성읍인 모두 13성읍이다.
- (4) 또한 이들이 유다 지파에서 더 많은 성읍을 얻은 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었기 때문이다.

6. ◎ 남은 그핫 자손이 차지한 성읍은 어디인가? (5절)

- Ⓐ (1) 그들은 에브리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 10성읍을 차지했다.
- (2) 한편 '남은 그핫 자손'이란 모세의 후손을 포함한 이스라엘, 헤브론, 옛시엘의 자손들을 가리키는데(참조, ◎ 2, 출 6:16-25)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따로 남겨둔 땅이 없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의 후손들도 다른 레위 지파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성읍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이런 위대한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참조, 민 16:15; 삼상 12:4; 삼하 18:12; 왕하 12:15; 22:7; 느 5:15; 고후 7:2).

7. ◎ 게르손 자손이 얻은 성읍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6절)

- Ⓐ (1) 게르손 자손은 잇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소유했었던 성읍 13개를 얻었다.

(2) 한편 게르손은 레위의 맏아들이었지만(창 46:11)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보다 더 늦게 제비를 뽑았다.

(3) 이와 같이 게르손 자손들은 레위의 첫번째 후손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후 자손에게 먼저 제비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였던 것이다.

8. ◎ 므라리 족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라(7절).

Ⓐ (1) 므라리는 레위의 막내 아들로서(창 46:11;출 6:16) 그의 자손은 레위 지파 중 가장 작은 족속이었다.

(2) 한편 므라리 자손은 광야에 있을 당시 성소의 천막과 그에 따른 도구 일체를 관리하였다(민 3:36;4:29-33).

(3) 또한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뒤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에게서 각각 4개씩 도합 12 성읍을 얻었다.

9. ◎ 아론 자손이 차지한 성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라(8-19절).

Ⓐ (1)

절수	성읍명	참조 귀절	성읍을 준 지파	특징
13	헤브론	15:13-19	유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며 갈렙의 땅이 있으나 나중에 도파성으로 선정됨
"	립나	15:42	"	언덕 지역의 남쪽에 위치
14	양털	15:48	"	산지의 남서쪽에 위치
"	에스드모아	15:50	"	에스드모라고도 함(대상 6:5,7)
15	훌론	15:51	"	산지의 남서쪽에 위치
"	드빌	15:49	"	"
16	아인	15:32	시므온	시므온에게 속한 유일한 성읍
"	온다	15:55	유다	사막 근방에 있는 성읍
"	벤 세메스	15:10	"	헤레스라 불리운 아모리 성읍(삿 1:35)이었으나 이르세메스란 이름으로 단 지파에게 주어졌다가(19:41) 그 후 단 지파가 북방으로 이주하자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다
17	기브온	18:25	베나민	베나민 서편에 위치한 성읍
"	게바	18:24	"	베나민 동편에 위치한 성읍
18	아나돗	"	"	"
"	알몬	"	"	"

(2) 위 지명의 위치에 관해서는 참조 귀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보라.

10. ◎ 그후 자손 중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은 원래 어느 지파에게 속해 있었는가?(20-26절).

Ⓐ (1) 나머지 그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4성읍, 단 지파에서 4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모낫세 반 지파에서 2성읍 그래서 모두 10성읍을 얻었다.

(2) 이 성읍들은 다음과 같다.

절수	성읍명	참조 귀절	성읍을 준 지파	특징
21	세겜	17:7	에브라임	도파성
"	게셀	10:33	"	
22	깁사임	대상 6:68	"	유드암으로 불리기도 했다
"	벤 호론	10:10	"	윗 벤호론인지 아래 벤호론인지

				지는 알 수 없다
23	엘드게	19:44	단	에글론의 남동쪽에 위치
"	깁브돈	19:44	"	
24	아얄론	19:42	"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
"	가드림몬	19:42, 45	"	음바 북동쪽에 위치
25	다아낙	12:21; 17:11	반 브낫세	므깃도의 남동쪽으로 대상로(隊商路)의 요충지
"	가드림몬	대상 6:70	"	헬르암 또는 이블르암이 잘못 표기된 것임 (대상 6:70)

(3) 위 성읍의 위치는 참조 귀절의 해당 부분을 찾아 보라.

11. ② 계르손 자손이 차지한 성읍은 다음과 같다(27-33절).

Ⓐ

절수	성읍명	참조 귀절	성읍을 준 지파	특 징
27	골란	20:8	반 브낫세	바산에 있는 도피성
"	브에스드라	대상 6:71	"	아스다롯이라고도 함
28	기시온	19:20	잇사갈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다브랏	19:12	"	다불 산의 서쪽에 위치
29	야르롯	19:21	"	레멧파 동일한 지역
"	언간님	19:21	"	아넴이라고도 함 (대상 6:73)
30	미살	19:26	아셀	마살이라고도 함 (대상 6:74)
"	암돈		"	
31	헬갓	19:25	"	대상 6:75에는 후곡이라 나와 있다
"	르흡	19:28	"	아셀의 북부 지역에 위치
32	게데스	12:22; 19:37	남달리	갈릴리에 있는 도피성
"	함못돌	19:35; 대상 6:76	"	함맛 또는 함몬이라고도 한다
"	가르단	대상 6:76	"	기랴다임이라고도 한다

12. ② 레위 지파 중 모라리 자손이 얻은 성읍은 무엇인가? (34-40절)

Ⓐ

절수	성읍명	참조 귀절	성읍을 준 지파	특 징
34	욕느암	12:22; 19:11	스불론	남부 갈릴리 산지에 위치
"	가르다		"	32절의 가르단을 중복해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됨
35	딤나	대상 6:77	"	림모노 또는 림몬(19:33)으로 추측됨
"	나할랄	19:15	"	남부 갈릴리 산지에 위치
36	베셀	20:8	르우벤	모압 평지에 있는 땅
"	야하스	13:18	"	
37	그테못	"	"	
"	므바앗	"	"	메바앗이라고도 한다
38	라못	20:8	갓	길르앗 지역에 있는 도피성
"	마하나임	13:26	"	
39	헤스본	13:17	"	원래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으나 갓

				지파에게 넘어갔다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짐 (13:24)
39	야센	13:25	갓	

13. ◎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얻은 성읍은 모두 몇 개인가? (41, 42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48개의 성읍을 얻었다.
 (2) 한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의 수가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갈, 납달리, 아벨 지파보다 크고 많은 성읍들을 차지한 것처럼 보인다(참조, 19:17-39; 민 26:25, 47, 50, 62).
 (3) 그러나 13-1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들은 대상 1-8장 사이에 나오는 성읍 보다 그 수(數)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각 지파들의 성읍이 본서에서는 다 기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방식은 우선 제비를 뽑기는 하나 그 뒤 인구에 비례하여 토지의 경계선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민 29:53, 54; 35:8) 결국 레위 지파의 성읍은 다른 지파의 성읍 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43-4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2) 이 약속은 이미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5:6; 창 12:1-3; 26:2, 3; 28:13; 출 3:8; 신 6:10; 샷 2:1) 이 약속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3) 또한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에는 430여 년이 지났으며, 그동안에 많은 가나안 족족들을 물리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4)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며(신 7:9; 왕상 8:56; 시 36:5; 고전 1:9; 히 6:18; 베전 4:19) 또 진실하신 분(시 93:5; 겸 12:25; 단 9:12; 마 5:18; 뉘 21:33)이심을 알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44절).

제 22 장 제단을 둘러싼 논쟁

단락구분 1-9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보내다 / 10 두 지파·반이 요단 서편에 제단을 쌓다 / 11-20 분쟁이 일어나다 / 21-29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 30-34 분쟁이 해결되다

1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2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 오늘 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서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둘러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8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10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단을 쌓았는데 불만한 큰 단이었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하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 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16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죄는 테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17 브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 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 오늘 날 너희가 들이켜 여호와를 죄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 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 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 뿐이 아니었느니라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 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 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23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들이켜 여호와를 죄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의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쟁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28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9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죄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30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 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33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1. ◎ 본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 Ⓐ (1) 12지파의 영토 분배와 도피성 선정,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를 끝낸 여호수아는 요단 강 동편에 거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 선봉에서 싸운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2) 한편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강을 건너기 전 그들의 전과(戰果)를 기억하며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단 언덕에 큰 기념탑을 세웠다.
- (3) 그러나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꾸짖었다.
- (4) 결국 이 오해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방백들의 중재로 해결되고 이 두 지파 반은 무사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 (5)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신도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다(참조, 창 35:2; 출 20:4; 34:7; 레 26:1; 신 7:25; 11:16; 16:22; 시 81:9; 사 42:8; 요일 5:21).

2. ◎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 (1) ‘그때’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때였다.
- (2) 즉 ‘그때’는 모세의 말에 의하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민 32:22),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민 32:29)를 말한다.
- (3)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민 32:18)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안식하고 있을 때였다.
- (4) 이때에야 비로소 두 지파 반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두 지파 반은 그들의 형제가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고 완전하게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의 형제를 도왔던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위의 형제들을 둠되 중도에서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 주어야 한다(참조, 잠 17:17; 요 13:1).

3. ◎ 과거에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했던 것은 무엇인가? (2, 3절)

Ⓐ (1) 모세는 이들 두 지파 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편안히 거주하도록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것을 명령하였다(민 32:20-24; 신 3:18-20).

(2) 한편 이들 두 지파 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들의 형제를 도왔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여기서 이들의 신실한 인간성을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눈가림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엡 6:5; 골 3:22).

4. ◎ 여호수아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4절)

Ⓐ (1) 그는 이들 두 지파 반에게 요단을 건너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2) 사실 이제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과 영토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임무가 완료된 것이다.

(3)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에 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4) 다시 말하면 이들 두 지파 반도 이제 자신의 장막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여야 한다(참조, 행 20:24; 딤후 4:7).

5. ◎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당부하였는가? (5, 6절)

Ⓐ (1) 이들 두 지파 반은 크게 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 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다.

(2) 여기서 ‘크게 삼가’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공동 번역), ‘주의를 기울여’(RSV, take good care to)라는 뜻으로 비록 두 지파 반은 요단 서쪽에서 군사적인 의무를 다 마쳤다하더라도 그들의 고향에서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만 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영적 군사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신 4:4, 29; 6:5; 10:12).

(4)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딤전 4:7; 딤후 1:6).

6. ◎ 여호수아는 자기의 고향을 향해 떠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7, 8절)

Ⓐ (1) 그는 두 지파 반에게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많은 의복들을 주었다.

(2)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탈취한 물건으로서 두 지파 반은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두 지파 반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와도 나누어 가져야 했다.

(4) 이와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참조, 민 31:25-47; 삼상 20:21-25).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 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5)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같이 한 형제라는 지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이러한 분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지 않았다.

7. ◎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가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10, 11절)

Ⓐ (1) 그들은 요단 강가에서 불만한 큰 단을 쌓았다.

(2) 한편 10절에서는 이 단을 쌓은 자들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로 나와 있으나 11절에서는 갓 지파까지 침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0절에서 갓 지파가 빠진 것은 필자(筆寫者)의 실수인 것 같다.

(3) 또한 '불만한 큰 단'이란 단순히 '큰 단' (RSV, alter of great size) 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단을 쌓은 위치가 공동 번역과 KJV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4) 즉 10절에서는 요단 서편에, 11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맨 앞편' (RSV, at the frontier of the land of Canaan) 을 가나안에 속한 요단 강 뚝으로 볼 때 요단 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 뚝에 큰 단을 세워오로써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오해를 샀던 것이다.

8. ◎ 두 지파 반이 요단 강 뚝에 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2절)

Ⓐ (1) 그들은 두 지파 반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서로에 모였다.

(2)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 두 지파 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두 지파 반이 또 다른 단을 세웠다는 소문을 듣자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줄 알고 그들을 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형제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길 기미가 보이면 단호하게 그들을 대적하였던 것이다.

(4) 여기서 하나님만을 제일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얹매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출 8:10; 15:11; 신 33:26; 삼하 7:22; 왕상 8:23; 대상 17:20; 시 89:6; 사 40:18; 막 12:32).

9. ◎ 비느하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라 (13절).

Ⓐ (1) 그는 아론의 세째 아들인 엘로아살과 부디엘의 사이에서 (출 6:25; 민 25:7) 태어났다.

(2) 그는 부친의 뒤를 이어 20년간 대제사장직에 머물러 있었으며 (24:33; 민 25:13; 삼 20:28; 대상 6:4) 모세 때에 미디안 정벌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민 31:6).

(3)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싯딤에서 바알 브을을 섬길 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기도 하였다(민 25:12, 13).

(4) 그 후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엘리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약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참조, 삼상 1:9; 4:12-18).

10. ◎ 비느하스와 10방백은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했는가? (16절)

Ⓐ (1) 그들은 자기들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거역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인데 이것은 '범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마알>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으로써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3) 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로서(민14:9; 느 9:26; 롯 2:3; 단 9:9) 자신을 위해 단을 쌓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인 것이다 (RSV, rebellion against the Lord).
- (4) 한편 자신을 위해 단을 쌓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자나 다를 바 없다.
- (5)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Living Bible, turn away from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뜨렸기 때문에 (NIV, break fait with the God)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Living Bible, sinning against the God).
- (6)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즉 물질, 명예, 학벌, 사상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참조, 골 3:5; 딤전 3:3; 히 13:5).

11. ◎ 비느하스와 10방백은 두 지파 반에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는가? (17, 18절)

- Ⓐ (1) 그들은 브울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내렸던 재앙을 상기시켰다.
- (2) 즉 이 사건은 발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모압 신(神)인 브울을 숭배케 한 결과 이 일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염병에 죽은 것을 말한다(민 25:1-9).
- (3)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과거의 사건에 대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지파 반이 또다시 큰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재앙을 내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 (4)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참조, 7:1).

12. ◎ 비느하스와 10방백은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그들과 함께 살자고 하였는가? (19절)

- Ⓐ (1) 그것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단을 쌓아 하나님께 패역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들까지도 패역하게 할 것 같아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으로 오라고 권유하였다.
- (2)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되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역시 반역 행위에 가담하게 되어(참조, 공동 번역) 결국 피차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가 혹시나 잘못되어 하나님께 실수하게 될까 염려하였고 또 그들의 형제가 범죄함으로 자신들마저도 불행해질까 두려워하였다(참조, ◎11, 7:1).
- (4)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범죄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도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참조, 골3:16; 딤전 4:13; 딤후 4:2; 딸 1:9; 2:15; 히 3:13; 10:25).

13. ◎ 비느하스와 10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으로 상기시킨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세라의 아들 야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이다.
- (2)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공격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훨취하지 말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하였는데 야간은 전리품의 일부를 감춤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 일로 인해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군사 중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었다(참조, 7장).

- (3) 당시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일로써 비느하스와 10방백은 이 사건을 두 지파 반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두 지파 반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했던 것이다.
- (4) 그러나 사실 비느하스와 10방백은 두 지파 반이 큰 단을 세운 원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사이의 논점은 빗나가고 있었다.

14. ◎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자신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변론했는가? (22절)

- Ⓐ (1) 그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단을 쌓은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이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능하신 자’는 히브리어 <엘>로서 ‘강한 자’를,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두려워해야 될 능력 있는 자’를 ‘여호와’는 히브리어 <예호와>로서 ‘진실로 홀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각각 의미한다(참조, 시 50:1).
- (3) 이와 같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을 전능하고 능력 있으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중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느하스와 10방백에게 알려 주었다.
- (4)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사실 그 사람의 모든 신앙 상태를 대변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올바른 신관(神觀)을 확립하여야 한다(참조, 호 6:3).

15. ◎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단을 세운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23-25절)

- Ⓐ (1) 그들은 번제(燔祭)나 소제(素祭)나 화목 제물(和陸祭物)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훗날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까봐서 단을 세웠던 것이다.
- (2)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이 단을 세운 목적은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형제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음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 (3) 그렇게 함으로써 두 지파 반은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의를 다지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 (4) 결국 두 지파 반은 그들의 후손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신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단을 세웠던 것이다.
- (5) 여기서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기 위해 애쓰는 두 지파 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6)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참조, 신 4:9; 6:7; 11:19; 21:19; 31:13; 시 78:5; 잠 22:6; 사 38:19; 엡 6:4; 딤전 3:4; 3:12).

16. ◎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은 행위는 어떻게 해명이 되었는가? (26, 27절)

- Ⓐ (1) 그들은 단을 쌓은 행위가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 (2) 즉 요단 강의 동서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장차 그 단을 봄으로써 피차간에 형제의식을 느끼고 또 그들은 다같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그렇다 하더라도 단을 세우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 20:4, 5; 레 26:

1:신 5:8) 두 지파 반의 행위는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었다.

- (4) 그러나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제사를 목적으로 단을 쌓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승전 비나, 어떤 기적에 대한 증거,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호의에 대한 기념비로써 의 둘무더기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4:9, 20-24; 9:26; 창 12:7; 13:18; 28:18; 삼상 14:35; 삼하 24:25).
- (5) 결국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두 지파 반의 행위는 비느하스와 10방백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졌다.
- (6) 우리는 여기서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그 내적인 동기를 중요시해서 외적인 결과를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들의 훌륭한 신앙을 볼 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삼상 16:7; 마 23:27; 요 7:24; 고후 5:12; 10:7; 약 2:2-4).

17. ◎ 두 지파 반이 세운 단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가? (28절)

- Ⓐ (1) 그 단은 여호와의 모형을 하고 있었다.
- (2) 이 '모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타브니트>는 '유사함'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본따서 만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출 25:9, 40; 26:30; 27:8; 신 4:16-18; 전 8:10).
 - (3) 다시 말하면 이것은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단, 즉 성소에 있는 번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본따서 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 (4) 그들이 이와 같이 성소를 본따서 단을 쌓은 이유는 후손들이 이 단을 봄으로써 여호와께 제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5) 결국 이러한 단의 모양은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두 지파 반이 단의 모양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모든 분쟁은 해결되었던 것이다.

18. ◎ 두 지파 반의 해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10방백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30, 31절)

- Ⓐ (1) 비느하스와 10방백은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전져 내었느니라'고 하였다.
- (2) 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에서 빠져나와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3)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은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면 두 지파 반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재앙을 입었을 것인데 다행히도 두 지파 반의 행동은 오히려 신앙적인 행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 문제로 인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크게 안심하며 기뻐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 32:1, 2; 롬 4:7, 8).

19. ◎ 비느하스와 10방백으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고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32, 33절)

- Ⓐ (1)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 즉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 두 지파 반을 크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체가 올바르게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시기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이 1:4; 요삼 1:3, 4).

20. ◎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세운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34절)

Ⓐ (1) 그들은 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렀다.

- (2) 여기서 '엣'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증언' 또는 '증거'라는 뜻으로 이 단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이다.

- (3) 즉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 '단'이 증거해 주었던 것이다.

- (4) 한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께서 지금도 계속 능력을 베푸시며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말로써 이 '단'이 그러한 사실들을 증언해 주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두 지파 반은 이 '단'을 보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했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참조, 시 84:11; 행 11:23; 13:43; 고전 3:10; 15:10; 고후 1:12; 6:1; 갈 2:21; 읍 3:7; 히 2:9; 약 4:6; 벤 전 4:10; 5:5).

연구자료

증거(證據). 성경에서 '증거' (witness; 히, 에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①증거는 표를 뜻하였다. 본장의 경우 처럼 단(壇)을 쌓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표시(21-28절)를 나타낸 일도 있고 들무더기(창 31:44)나 모세의 노래(신 31:26), 읍의 병(病, 읍 16:8), 여호수아가 세겜에 세운 돌(24:27) 등이 증거물이 된 일도 있다. ②증거는 증인(證人)을 뜻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굽과 라반 사이의 증인이셨으며(창 31:50) 읍도 자신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였다(읍 16:19). 또 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참되고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주장하였다(롬 1:9; 고후 1:23). ③증거는 법적인 증인을 뜻하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눅 24:48; 행 1:8; 2:32; 3:15)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진리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신다(제 1:5; 3:14). 이러한 경우 외에 다른 뜻으로 쓰인 증거(testimony; 히, 에두트, 에다, 트우다)라는 말은 십계명(출 25:16, 21), 언약궤(출 16:34), 하나님의 말씀(사 8:16, 20), 복음(제 9:12; 12:17) 등의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었다(시 119:22).

제 23 장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교훈

단락구분 1-2 지도자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 / 3-5 여호와에 대한 학신과 교훈 / 6-11 모세 율법에 복종을 권고하다 / 12-13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 경고하다 / 14-16 불복종과 배교에 빠지는 경우에 받게 될 재앙에 대한 경고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끝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8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

9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율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14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옹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리

1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영토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죽기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사(告別辭)를 하게 된다.
- (2) 즉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를 배반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6, 7, 8, 11, 12, 13, 15, 16절; 24:14, 15).
- (3) 이와 같이 그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시종 일관(始終一貫)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당부하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평생 동안 전력을 기울여 온 여호수아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만을 위해 살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전 4:2; 히 3:2, 5; 계 2:10).

2. ◎ 여호수아가 불러 모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1, 2절)

Ⓐ (1) 그들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이었다.

(2) 여기서 온 이스라엘과 백성의 대표자들은 동격(同格)으로서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여기서 장로는 백성의 대표자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두령(heads)은 각 지파, 족속, 가족 단위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 중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재판장(judges)과 유사(officials), 즉 행정 직분을 맡은 자로 뽑히었다(참조, 신1:15, 16; 16:18).

(4)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자들만 소집시켜 그들에게 고별사를 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대표자를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5) 여기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참조, 대상 12:38; 스 10:4; 놀 4:16, 17). 공동체의 단합은 밀려오는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3. ◎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3절)

Ⓐ (1)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시니라'고 하였다.

(2) 그는 이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원하였다.

(3)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참조, 속 4:6).

(4)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생활해야 한다(참조, 앱 6:11; 약 4:7; 벤전 5:8, 9).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에서 제비뽑은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4, 5절)

Ⓐ (1) 그들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大海)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뽑았다.

(2) 여기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 즉 치중해에 이르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제비뽑은 가나안 서쪽의 모든 지역을 통칭(通稱)하는 말로써 아직도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13:6; 출 23:23).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약속받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11:12; 놀 13:24; 고전 9:25; 빌 1:27; 3:14; 골 1:29; 히 12:4).

5. ◎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 (1) 그들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1:7-9).

(2) 여기서 '크게 힘써'란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KJV, very courageous)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공동 번역)란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결단이 따르기 때문이다.

(4)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1:6; 10:25; 신 31:6; 삼하 10:12; 대상 19:13; 22:13; 28:20; 대하 19:11; 32:7; 빌 1:28).

6. ⓐ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당부하였는가? (7절)

Ⓐ (1)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그것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 절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의 나라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NIV, do not associate with)는 뜻과 더불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 7:3).

(3) 왜냐하면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신(神)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과 생각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참조, 창 24:3, 4; 28:1, 2; 신 7:3; 느 13:25; 고후 6:14).

7. ⓐ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도록 명령했는가? (8절)

Ⓐ (1)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親近)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고 명령하였다.

(2) 여기서 '친근히 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다바크〉는 '착달라붙다'(KJV, to cleave)는 뜻과 더불어 '확고히 머물다'(NIV, to hold fast) 또는 '힘써 쫓아가다'(Living Bible, to follow)라는 의미를 지녔다.

(3) 한편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 '충성을 바치다'로 의역(意譯)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창 6:9; 왕하 23:3; 미 4:5; 말 2:6).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9, 10절)

Ⓐ (1)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가나안 족속 천 명을 죽을 수 있었다.

(2)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LXX)에는 과거 시제로,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Vulgate) 역에는 미래 시제로 각각 나타나 있다.

(3) 또한 KJV에는 미래 시제로, RSV와 NIV에는 현재 시제로, Living Bible에는 현재 완료 시제로 각각 번역되어 있다.

(4) 그런데 본절과 11절의 문맥과 흐름으로 보아 이 말은 과거의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일당천(一千)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다.

(6)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당천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담 2:1; 계 22:21).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2)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깊이 삼가라' (신 4:15)는 말과 같은 의미로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준다.
 (3)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 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휩쓸려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기로 (岐路)에 서 있었던 것이다.
 (4)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위기의 시점에서 스스로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신 4:9; 잠 4:23; 약 1:27; 요일 5:21; 유 1:21).

10.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친근하게 지낼 때 어떻게 되는가? (12, 13절)

- Ⓐ (1)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 하신다.
 (2)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을무가 되고 빛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3) 여기서 '옆구리의 채찍' (참조, 왕상 12:11)이나 '눈의 가시' (참조, 삽 2:3)라는 표현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가깝게 지낼 때 (RSV, to join, Living Bible, to intermarry with) 결국 이들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 시대에 현실로 나타나 (삽 2: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신 11:17; 28:21).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처음부터 올바르지 못한 일이나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34:14; 97:10; 잠 4:27; 14:16; 롬 12:9; 살전 5:22).

11.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인가? (14-16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응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율법을 지킬 때 당신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고 그들을 지켜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교제하며 우상을 숭배할 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다(8:34, 35; 롬 26:14-33; 신 28:15-68; 29:14-28; 30:1).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법대로 살면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22:5; 출 20:6; 신 4:40; 6:17; 10:13; 26:18; 왕상 2:3; 6:12; 8:58; 11:38; 왕하 17:13; 대상 28:8; 29:19; 시 78:7; 엘 44:24; 마 19:17; 요일 5:3; 계 14:12).

제 24 장 여호수아의 죽음

단락구분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소집하다 / 2-13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고하다 / 14-28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언약을 간증하다 / 29-32 여호수아의 죽음 / 33 엘르아실의 죽음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자라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6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흥해까지 따르므로

7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협약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불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9 때에 모합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브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10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 내었으며

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불였으며

12 내가 왕별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죽이내게 하였으나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죽이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이니이다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아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

이 되었나이다

23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25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

였더라

29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 세에 죽으매

30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가 아스 산 북이었더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 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애굽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매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1. Q 본서의 마지막 장인 본장의 중심되는 줄거리는 무엇인가?

A (1) 본장에는 임종을 앞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놓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다.

(2)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의 조상이나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출 20:3; 신 6:13; 왕하 17:35, 36; 렘 25:6; 35:15; 막 12:29; 딤전 2:5).

2. Q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고별사를 한 곳은 어디인가? (1절)

A (1) 그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였다.

(2) 여기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며(창 12:6, 7) 또 애굽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정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묻은 곳이기도 하다(창 35:4).

(3) 한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성소가 있던 실로에 소집시키지 않고 세겜에 모았던 이유는 그것이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4)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임으로써 과거에 세겜에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Q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라(2절).

A (1) 그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는 원래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었다.

(2)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열조는 강 저편, 즉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그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거주하였다(창 11:28, 31).

(3) 거기서 데라와 그 가족들은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事役)인 것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행 15:11; 롬 3:24; 5:15; 11:6; 엘 2:5; 딤 2:11; 3:7).

4.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셨는가? (3절)

- Ⓐ (1)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 (2)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당신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과거에 범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행 2:47; 16:25; 르 1:12; 2:7; 3:15; 살전 5:18; 히 13:15; 벤전 2:9).

5. ◎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4절)

- Ⓐ (1) 당신께서는 애서에게 세일 산을 소유로 주셨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
- (2) 사실 당신께서 야곱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은 매우 아이로니칼(ironical) 하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고통과 시련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후 있어질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그 역경을 이겨나가야 한다(참조, 마 5:11, 12; 롬 8:17; 딤후 2:12; 히 10:34; 11:26; 계 20:4).

6. ◎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5-7절)

- Ⓐ (1) 당신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치셨으며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보호해 주셨다(출 1-14장).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참조, 창 12: 2, 7; 13:15).
- (3)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엿볼 수 있다(민 23:19; 삼 상 15:29; 말 3:6; 롬 11:29; 딤 1:2; 히 6:18; 약 1:17).

7. ◎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8-10절)

- Ⓐ (1)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키셨고(민 21:23)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셨다(민 22: 22-24).
- (2) 한편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계획을 저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람으로 하여금 이

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민 23:11, 19).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곤경에 처할 때에 그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화 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의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의 전초전(前哨戰)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후 4:1; 4:16; 갈 6:9; 엡 3:13; 계 2:3).

8. ◎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두 왕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 주셨는가? (12절)

- Ⓐ (1)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돋기 위해 왕벌을 보내셨다.
- (2) 여기서 왕벌은 흔히 '말벌'(KJV, RSV, hornet)이라고도 불리는데 성경에서 벌은 종종 공포와 원수로 상징된다(신 1:44; 시 118:12).
 - (3)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왕벌은 사해 주위와 사막 지방 또는 팔레스틴 곳곳에서 자생(自生)하는 벌로서 숲이나 땅불 사이를 지나는 군인이나 말들에 의해 벌집이 파괴될 때 군인을 습격하여 손실을 끼치는 곤충을 가리킨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두 왕인 시흔파 옥의 군대를 치기 전에 미리 왕벌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5)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다(참조, 잠 25:2; 사 45:15).

9. ◎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13절)

- Ⓐ (1) 그들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고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었다.
- (2) 이것은 신 6:10, 11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말해 준다.
 - (3)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
 - (4) 따라서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서는 손으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열매와 식물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식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참조, 창 3:19; 레 23:3; 전 9:10).

10. ◎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섬기라고 당부하였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울러 여전히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3)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신만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 (4) 한편 여호수아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 (5) 여기서 신양은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가져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신양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참조, 딤전 2:1).

11. ◎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기로 결심하였는가? (16-18절)

- Ⓐ (1)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큰 이적으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느끼는 자라야 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운운(云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그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신 8:2; 32:11, 12; 시 27:11; 77:20; 139:9, 10; 잠 20:24; 사 63:14).

12. ⓐ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여호와는 거룩하고 절투하시는 분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赦)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죄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며(참조, 출 19:6; 레 21:6-8; 벨전 2:9), ‘절투하다’는 말은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출 20:5; 신 4:24; 5:6).
- (3)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죄를 짓거나 범죄해도 용서치 않으신다.
- (4)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 (5) 한편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쉽다.
-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과를 씻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요 14:6; 롬 5:2; 엡 2:8; 히 10:19, 20).

13. ⓐ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아켜 화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축복의 손길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히 6:4-6; 10:26, 27).

14.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가? (22, 23절)

- Ⓐ (1) 그들은 자기 중에 있던 이방신들을 없애 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향하여야 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21절)고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중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 (3) 이와 같이 신앙의 결단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참조, 뉘 6:46; 딤 1:16; 약 2:15-17).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15. ⓐ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25절)

- Ⓐ (1) 그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 율례와 법도를 세웠다.
- (3) 여기서 율례(히, 호크)는 단순한 규례와 의무를, 법도(히, 미쉬파트)는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 유헤와 법도는(참조, 출 15:25) 이미 모세 시대에 세워진 것인데 여호수아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법을 다시금 반복하였다.

-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과거부터 고백하고 받아들이던 신앙을 다시금 강조했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주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신앙 사조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 내려오던 신앙을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살후 2:15; 3:6, 7).

16. ◎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헤와 법도를 베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무엇인가?

(26, 27절)

- Ⓐ (1) 그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들을 취해 여호와의 성소(聖所)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
- (2)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과거 모세 시대의 유헤와 법도를 간신할 때 가졌던 전체 의식을 가리킨다.
- (3) 또한 '율법책'은 여호수아서나 다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않지만 당시에 중요하게 취급되어 후에 성경이 기록될 때 많은 참고가 되었던 율법책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간신할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또 큰 돌무더기를 쌓으므로써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 범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증거로 삼았다.

17. ◎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9-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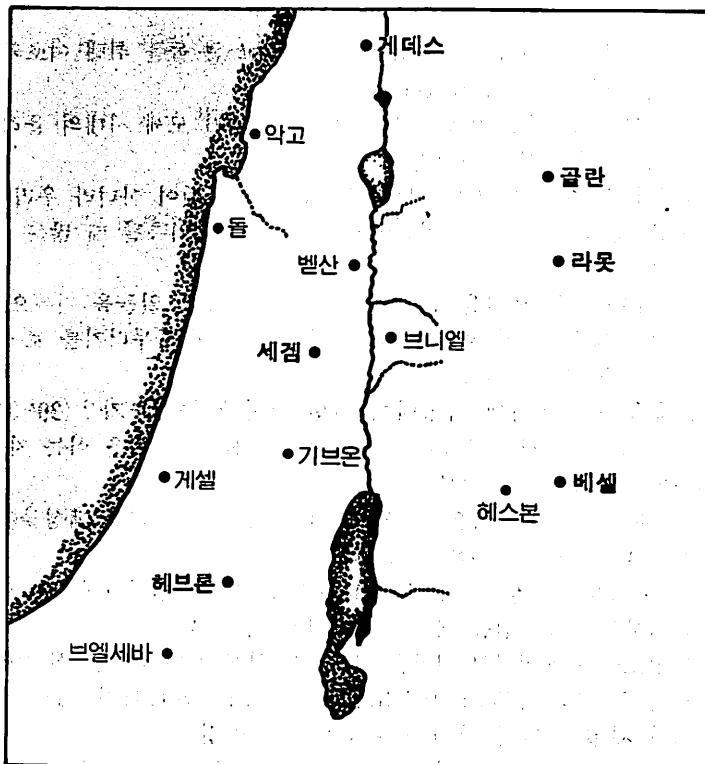
- Ⓐ (1) 그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겼다.
- (2) 결국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후에 다시금 범죄하게 된 이유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막 5:19; 요 3:10, 11; 9:25; 고후 1:4; 벤후 1:16; 요일 1:1).

18. ◎ 본서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사건은 무엇인가? (33절)

- Ⓐ (1) 본서의 제일 마지막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과 무리가 그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산지에 장사 지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째 아들로서(출 6:24) 그의 두 형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 자신의 동생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참조, 레 10:1-7; 민 3:1-4).
- (3)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얼마되지 않아 엘르아살마저 죽음으로써 사실상 여호수아의 동년배(同年輩) 시대는 끝났다.
- (4) 따라서 엘르아살의 죽음이 본서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이들 지도자들의 사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함이다(70인역).
- (5)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 지도자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가나안 정복 역사가 주제인 본서의 결론으로 적절하다.

지도자료

도피성. 아래의 지도에 나타나는 굵은 활자의 지명은 20:7, 8에 나와 있는 6개의 도피성을 표시한 것이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출 21:12-14; 민 35:9-13; 신 19:1-13과 본서 20:7, 8절에 성문화(成文化)되어 있다. 이러한 규례의 목적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도피성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도피 성읍(City of refuge)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장막의 제단이다(참조. 왕상 1:50; 2:28). 아울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피의 보수(報讐)를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단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성밖으로 나을 수 없었다. 한편 이 같은 규례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므로 구원을 받는 것을 표상하고 있다.